

| SRI-정책-2021-17 |

수원 청년정책 발전방향 연구

Suwon Youth Policy Development Direction Research

최지연

연구진

연구책임자 최지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심지은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연구 자문위원

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2022 수원시정연구원

발행인 김선희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http://www.suwon.re.kr>

인쇄 2022년 03월 24일

발행 2022년 03월 29일

ISBN 979-11-6819-046-7 (93330)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최지연. 2022. 「수원 청년정책 발전방향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비매품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 주요 내용

- 본 연구는 지난 5년간의 수원시 청년정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수원시 청년들의 정책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국가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방향에 맞춰 수원형 청년정책의 재정립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정책제안

- ① (Housing & Welfare) 안정적인 생활 기반 구축
 - 청년특구 활성화 : 학업·취업 준비, 독립욕구 등으로 청년 1인 가구 지속 증가 불구, 취업난·주거비 상승으로 주거 안정성·여건 취약한 상황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가 어우러져서 청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지역을 조성
 - 취약계층 청년 정책 개발 : 취업취약, 은둔, 보호 종료 등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취약계층의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 ② (Occupation & Education) 역량 개발을 통한 기회 제공
 - 청년도움닫기학교(수원형 갭이어, Gap Year¹⁾) 프로그램 제공 : 인생전환기를 맞이한 청년들에게 다양한 사유와 경험의 기회를 제공
- ③ (Participation & Right) 정책 참여 확대
 - 청년주도정책 할당제 : 정책결정 및 추진과정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체제 마련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청년 부문 할당, 청년 위원 할당제 강화
- ④ (Enjoyment & Health) 청년 활력 증진
 - 상담센터 및 생활 컨설팅 운영 : 청년들의 생활과 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책정보와 자료들을 제공하고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 및 마음건강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강화

1) 갭이어(Gap Year)는 학업을 병행하거나 잠시 중단하고 봉사, 여행, 진로 탐색, 교육, 인턴, 창업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통해 향후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을 의미함

국문요약

■ 서론

○ 연구의 배경

- 민선 6기 청년정책관 부서 신설 이후 2016년부터 추진해 온 청년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청년의 니즈(needs) 반영 및 추진여부를 점검하고 청년정책 사업 진단 및 종합적 분석이 필요함
- 국가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수원시만의 특화된 청년정책의 미래 비전 제시가 필요한 시점

○ 연구의 목적

- 지난 5년간의 수원시 청년정책의 추진현황을 점검, 수원시 청년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방향 설계. 국가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방향에 맞는 수원형 청년정책 재정립 모색

■ 수원시 청년정책의 필요성

○ 성년으로 자립하기 이전 성인이행기 청년에 대한 지원 필요

- 사회정책의 대상으로 '청년'에 대한 인식 대두
 - 늘어난 생애주기로 인해 대두한 성인이행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 인식
 - 청소년기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연령대는 어려워지는 반면 성인기 과업을 성취하는 연령대가 높아지면 성인기 이행단계 발생

○ 청년담론 부상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청년정책 수립 경향

- 청년의 사회적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 형성
- 국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역청년 맞춤형 정책 수립 증가

○ 수원시의 높은 청년인구 및 1인 청년가구 비중

- 수원시 19~34세 청년인구는 285,508명으로 전체 인구의 24.1%
- 수원시 전체 1인 가구에서 청년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37.6%

■ 청년정책 동향

○ 중앙정부 청년정책

- 기존 청년정책은 청년의 고용확대에 중점을 둔 일자리 정책 중심에서 청년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주거, 복지,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적 제안과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하는 등 청년정책의 체계화 및 제도화를 추진 중

○ 수원시 청년정책

- 수원시의 청년 관련 조례는 청년기본조례, 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의 5개가 있음
- 2017년 수원시 청년정책 종합계획에서는 ‘청년! 신나고 호감가는 더 큰 수원’이라는 비전하에 청년다움, 발돋움, 비움채움, 즐거움 4개 전략과제를 수립하여 추진
- 2021년에 중앙정부 기본계획에 맞춰 전략과제를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영역으로 조정하여 추진

■ 수원시 청년 현황

- 수원시 19~34세의 청년인구는 285,508명으로 수원시 전체 인구의 24.1%를 차지함
- 2021년 수원시 청년(20~34세)의 총 전입자 수는 72,186명, 총 전출자 수는 68,202명으로 순이동(전입-전출) 3,984명으로 전출보다 전입이 많음
- 2021년 수원시의 청년고용률(15~29세)은 44.8%로 전국 청년고용률 45.1%, 경기도 47.3%에 비해 낮은 편임

■ 수원시 청년정책 수요 설문조사

- 청년들의 정책 인식과 정책 수요 파악하기 위하여 수원시 거주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1.12.3.~2021.12.5.(본조사), 2022.1.21.~2022.2.4.(추가조사) 기간 동안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622명이 응답함
- 전체 응답자의 87%가 청년이 겪는 사회적 어려움 정도를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청년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6%에 달하고 있음
-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분야별 정책으로는 교육 분야는 구직자 직업능력 개발 훈련프로그램 지원 54.8%, 일자리 분야는 고용환경 개선과 구직자·기업 취업연계 프로그램 제공이 31.5%와 30.5%, 주거분야는 사회초년생·신혼부부를 위한 일반주택 공급과 주택비용 지원이 39.7%와 37.3%, 복지 및 생활 분야는 금융자산형성지원과 생활비 지원이 33.6%와 32.8%로 응답함
- 수원시 청년정책의 인지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긍정응답은 17.7%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응답이 37.9% 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수원시에서 시행중인 청년정책 사업 중 각 분야별로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일자리 분야는 수원형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장려금 지원 사업(66.6%), 주거 분야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66.6%), 복지문화 분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71.0%), 교육 분야는 청년·기업·대학 연계 취업 멘토링(62.7%), 참여 및 권리 분야는 정책조정위원회·협의체 등의 청년정책 참여 기회 제공(58.8%)이 가장 필요한 정책 사업이라고 응답함

■ 수원시 청년 연령대별 FGI

- 설문조사로 파악하기 어려운 수원시 청년들의 특성 파악 및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 수요 파악을 위해 만19~39세 수원시 거주 청년 연령별 4개 그룹, 수원시 소재 직장인, 학생 비거주자 그룹을 대상으로 FGI 실시
- 청년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모든 그룹들이 다 인식하고 있으나 그룹별로 어려움의 특성은 다르게 나타남
 - 20대 초반 그룹은 주로 구직의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20대 후반 이후부터는 주거의 문제를 지적하고 30대 후반 그룹은 스스로 청년은 아니라고 간주하지만 육아 및 주거 관련 정책 혜택을 필요로 함

- 최근 청년정책 사업이 다양화되었다고 느끼지만 아직 경험해본 사업의 수는 적음
-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으로는 전 연령 그룹에서 주거비 지원, 주거 환경 개선 등의 주거정책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임

■ 결론 및 향후과제

○ 수원시 청년정책의 성과와 한계

- 수원시 청년정책의 성과로는 비교적 이른 2016년부터 청년정책의 토대를 마련하여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선도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였고, 특정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청년 삶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정책으로 접근했다는 점이 있음
- 반면 한계로는 전담 부서가 개별 사업 수행에 집중하다 보니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조정 역할이 미흡했으며, 수원시 청년정책의 브랜드로 내세울만한 대표사업의 부재, 청년정책 예산의 90% 이상이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할당되어 있어 실제 청년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의 부족, 청년들의 의견반영이나 정책과정 참여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이 있음

○ 정책 방향 및 향후과제

- 수원시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청년참여 강화, 유형별 및 집단별 청년 계층에 따른 정책 다양화 및 사각지대 해소 필요, 청년정책의 핵심 영역 확보 및 부서 간 협력 강화가 필요
- 이를 위하여 청년정책의 다음 단계의 비전은 ‘시민 청년, 희망 HOPE 수원’으로 설정하고 안정적인 생활기반 구축, 역량강화를 통한 기회제공, 정책참여 확대, 청년 활약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을 제안함
 - HOPE는 주거와 복지(Housing&Welfare), 일자리와 교육(Occupation&Education), 참여와 권리(Participation&Right), 여가·문화와 보건(Enjoyment&Health)의 약자로, 청년은 시민성을 가진 성인이어야 하며 이러한 청년들이 미래 수원의 희망이라는 것을 의미함
- 정책의 핵심가치는 ‘자립’, ‘안정’, ‘참여’이며, 주요 전략사업으로는 청년특구 조성,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맞춤형 청년정책 개발, 청년 도움단기학교, 청년주도정책 할당제, 청년을 위한 상담과 컨설팅 강화를 제안함

차 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 범위	5
2. 연구 방법	5
 제2장 청년의 개념 및 청년정책 동향	 7
제1절 청년의 개념 및 범위	9
1. 청년의 개념	9
2. 청년의 연령 범위	14
제2절 청년정책 동향	17
1. 국제기구 청년정책	17
2. 중앙정부 청년정책	19
3.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21
4. 청년정책 추진 사례	23
 제3장 수원시 현황	 29
제1절 인구사회학적 특성	31
1. 인구 및 가구 현황	31
2. 결혼 및 고용 현황	42
제2절 청년정책 현황	46
1. 조례	46
2. 조직 및 인력	48

3. 정책 사업	49
4. 예산	56
제4장 수원시 청년 의견 수렴	59
제1절 수원시 청년정책 수요 설문조사	61
1. 조사개요	61
2. 조사결과	63
제2절 청년 연령대별 FGI	80
1. 조사개요	80
2. 조사결과	81
제5장 정책제언	89
제1절 수원시 청년정책 방향 설정	91
1. 수원시 청년정책 점검	91
2. 정책방향	94
3. 수원시 청년정책	95
제2절 주요 전략과제	98
1. Housing & Welfare	98
2. Occupation & Education	102
3. Participation & Right	104
4. Enjoyment & Health	106
제3절 조직 및 추진체계	108
1. 전담부서	108
2. 청년지원센터	109
부록	
수원시 청년정책 수요조사 설문지	115

표 차 례

〈표 1-1〉 연구방법	5
〈표 2-1〉 Arnett(2001)의 분류에 의한 성인기 이행의 기준	10
〈표 2-2〉 청년 세대의 구분 및 특징	11
〈표 2-3〉 밀레니얼 세대의 코호트적 경험	12
〈표 2-4〉 Z세대의 코호트적 경험	12
〈표 2-5〉 법률상 청년의 연령기준 - 17개 광역 시도별	15
〈표 2-6〉 법률상 청년의 연령기준 - 법령별	16
〈표 2-7〉 UN, YOUTH 2030의 우선순위 영역	17
〈표 2-8〉 EU, Youth Strategy(2010~2018)의 8개 분야	18
〈표 2-9〉 청년관련 조례 지역별 현황(2021)	21
〈표 2-10〉 청년관련 조례 유형별 현황(2022)	21
〈표 2-11〉 청년기본법 분류체계에 따른 정책 현황 비교	22
〈표 2-12〉 청년정책 수단별 비교 - 중앙부처	22
〈표 2-13〉 청년정책 수단별 비교 - 지방자치단체(광역)	22
〈표 2-14〉 서울특별시 청년정책 주요사업(2021)	24
〈표 2-15〉 경기도 시흥시 청년정책 주요사업	27
〈표 3-1〉 수원시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현황	31
〈표 3-2〉 수원시 지역별 청년 인구(2021)	32
〈표 3-3〉 수원시 성별 청년 인구(2021)	32
〈표 3-4〉 경기도 지역별 청년인구 수와 비율(2021)	34
〈표 3-5〉 수원시 청년 출생지 유형(2020)	35
〈표 3-6〉 수원시 청년 전입·전출자 수(2021)	36
〈표 3-7〉 수원시 청년 통근·통학 유형별 인구(2020)	37
〈표 3-8〉 수원시 청년 교통수단별 통근·통학 인구(2020)	38
〈표 3-9〉 수원시 청년 상주·주간인구(2020)	39
〈표 3-10〉 수원시 청년 1인 가구 현황(2020)	40
〈표 3-11〉 경기도 지역별 대학교 및 대학생 수(2010~2021)	41

〈표 3-12〉 수원시 혼인건수 변화(2000~2020)	42
〈표 3-13〉 수원시 평균 초혼연령 변화(2000~2020)	43
〈표 3-14〉 수원시 출생아 수 변화(2000~2020)	44
〈표 3-15〉 수원시 청년 관련 조례 현황	46
〈표 3-16〉 수원시 청년정책관 인력 현황	48
〈표 3-17〉 수원시청년지원센터 업무 구분	48
〈표 3-18〉 수원시 청년정책 추진 사업-일자리 분야(2021)	50
〈표 3-19〉 수원시 청년정책 추진 사업-주거 분야(2021)	50
〈표 3-20〉 수원시 청년정책 추진 사업-교육 분야(2021)	51
〈표 3-21〉 수원시 청년정책 추진 사업-복지 및 문화 분야(2021)	51
〈표 3-22〉 수원시 청년정책 추진 사업-참여 및 권리 분야(2021)	52
〈표 3-23〉 수원시 역대 청년정책 추진사업(2018)	53
〈표 3-24〉 수원시 역대 청년정책 추진사업(2019)	54
〈표 3-25〉 수원시 역대 청년정책 추진사업(2020)	55
〈표 3-26〉 수원시 청년정책 분야별 사업 및 예산	56
〈표 4-27〉 수원시 청년정책 부서별 사업 및 예산(2021)	57
〈표 4-1〉 설문조사 문항	61
〈표 4-2〉 응답자 일반 현황	62
〈표 4-3〉 코로나로 인한 일상생활 변화	65
〈표 4-4〉 코로나 이후 삶에 대한 전망	66
〈표 4-5〉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교육 분야) 연령구간별 비교	68
〈표 4-6〉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일자리 분야) 연령구간별 비교	69
〈표 4-7〉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주거 분야) 연령구간별 비교	70
〈표 4-8〉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복지 및 생활 분야) 연령구간별 비교	71
〈표 4-9〉 수원시 청년정책에 대한 태도	72
〈표 4-10〉 수원시에서 시행중인 청년정책사업의 필요성(일자리 분야)	73
〈표 4-11〉 수원시에서 시행중인 청년정책사업의 필요성(주거 분야)	74
〈표 4-12〉 수원시에서 시행중인 청년정책사업의 필요성(복지·문화 분야)	75
〈표 4-13〉 수원시에서 시행중인 청년정책사업의 필요성(교육 분야)	76
〈표 4-14〉 수원시에서 시행중인 청년정책사업의 필요성(참여·권리 분야)	77
〈표 4-15〉 추후 수원시 청년정책이 주력할 분야(1순위) 연령구간별 비교	79

〈표 4-16〉 추후 수원시 청년정책이 주력할 분야(2순위) 연령구간별 비교	79
〈표 4-17〉 인터뷰 내용	80
〈표 4-18〉 인터뷰 참여자 정보	80
〈표 4-19〉 청년 FGI - 수원에서의 일상생활	81
〈표 4-20〉 청년 FGI - 코로나로 인한 변화	82
〈표 4-21〉 청년 FGI - 코로나 이후 사회 전망	83
〈표 4-22〉 청년 FGI -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84
〈표 4-23〉 청년 FGI - 청년에 대한 인식 및 청년세대의 어려움	85
〈표 4-24〉 청년 FGI - 청년정책 참여 경험 및 사례	86
〈표 4-25〉 청년 FGI - 청년정책 개선방향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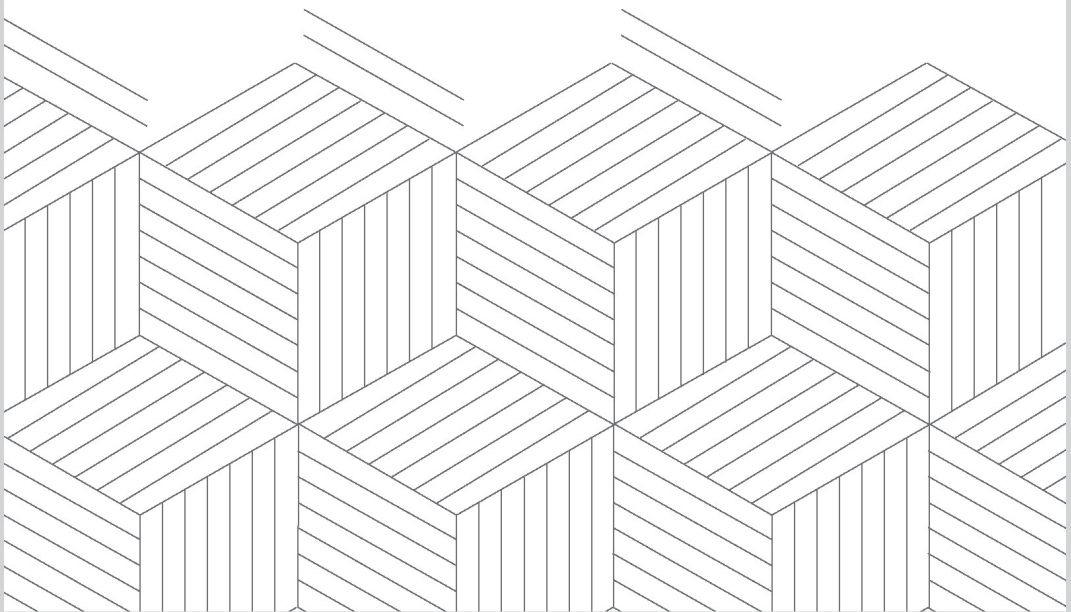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 배경	3
〈그림 1-2〉 연구추진체계	6
〈그림 2-1〉 해외 주요국 청년법률 및 기본계획, 정책 연령 규정	14
〈그림 2-2〉 청년정책 추진체계	19
〈그림 2-3〉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체계도	20
〈그림 2-4〉 서울특별시 청년정책 목표(2022)	23
〈그림 2-5〉 대전광역시 청년정책 체계도	25
〈그림 3-1〉 경기도 청년인구 비율 상·하위 5개 지역(2021)	33
〈그림 3-2〉 수원시 청년 연령대별 출생지 유형 비교(2020)	35
〈그림 3-3〉 수원시 청년 전입·전출건수 변화(2000~2020)	36
〈그림 3-4〉 수원시 청년 연령대별 통근·통학지 유형 비교(2020)	37
〈그림 3-5〉 수원시 청년 연령대별 통근·통학 교통수단 비교(2020)	39
〈그림 3-6〉 수원시 혼인건수 변화(2000~2020)	42
〈그림 3-7〉 수원시 평균 초혼연령 변화(2000~2020)	43
〈그림 3-8〉 수원시 출생아 수 변화(2000~2020)	44
〈그림 3-9〉 수원시 청년고용률(2013~2021)	45
〈그림 3-10〉 수원시 청년정책 분야별 예산(2021)	56
〈그림 3-11〉 수원시 청년정책 부서별 예산(2021)	57
〈그림 4-1〉 응답자 가구형태	63
〈그림 4-2〉 응답자 주택유형	63
〈그림 4-3〉 응답자 일자리 종사상지위	64
〈그림 4-4〉 응답자 개인 월 평균 소득	64
〈그림 4-5〉 코로나로 인한 일상생활 변화	65
〈그림 4-6〉 코로나 이후 삶에 대한 전망	66
〈그림 4-7〉 청년이 겪는 사회적 어려움	67
〈그림 4-8〉 청년정책의 필요성	67

〈그림 4-9〉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교육 분야)	68
〈그림 4-10〉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일자리 분야)	69
〈그림 4-11〉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주거 분야)	70
〈그림 4-12〉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복지 및 생활 분야)	71
〈그림 4-13〉 수원시 청년정책에 대한 태도	72
〈그림 4-14〉 수원시에서 시행중인 청년정책사업의 필요성(일자리 분야)	73
〈그림 4-15〉 수원시에서 시행중인 청년정책사업의 필요성(주거 분야)	74
〈그림 4-16〉 수원시에서 시행중인 청년정책사업의 필요성(복지·문화 분야)	75
〈그림 4-17〉 수원시에서 시행중인 청년정책사업의 필요성(교육 분야)	76
〈그림 4-18〉 수원시에서 시행중인 청년정책사업의 필요성(참여·권리 분야)	77
〈그림 4-19〉 수원시에서 시행중인 청년정책사업의 만족도	78
〈그림 4-20〉 추후 수원시 청년정책이 주력할 분야(1·2순위)	79
〈그림 5-1〉 수원시 청년정책 비전 및 목표	96
〈그림 5-2〉 수원시 청년정책 추진 프레임워크	96
〈그림 5-3〉 국가 기본계획과 수원시 정책 영역 상관도	97
〈그림 5-4〉 청년지원센터 조직 운영 방향(안)	109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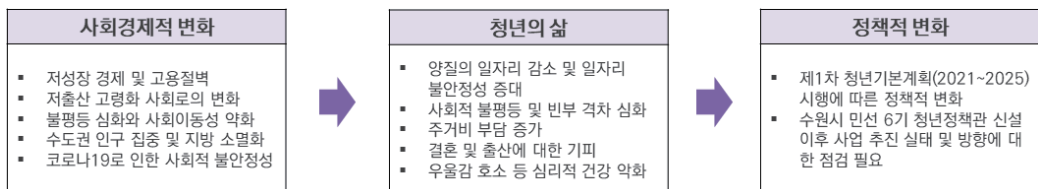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한국 사회는 저성장 경제 및 고용절벽,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 불평등 심화와 사회이동성 약화, 수도권 인구 집중 및 지방 소멸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성 심화 등이 사회경제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청년세대는 양질의 일자리 감소 및 일자리 불안정성 증대, 주거비 부담 증가, 자산 형성의 어려움,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기피, 사회적 고립감 및 우울감 등의 심리적 어려움까지 호소하고 있음
 - 청년문제는 88만원 세대,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 더 나아가 내 집 마련·인관관계·꿈과 희망 등을 포기하는 N포세대, 수저계급론, 캥거루족 등의 용어가 등장하면서 부각되어 왔음
- 국가적으로는 청년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청년기본법 제정과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책적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음
 -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사업과 함께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때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음

〈그림 1-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 수원시는 민선 6기 청년정책관 부서 신설 이후 2016년부터 추진해 온 청년정책 사업과 관련하여 청년의 니즈(needs) 반영 및 추진여부를 점검하고 청년정책 사업 진단 및 종합적 분석을 하고자 함
 - 2016년 수원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이후 정책추진 현황에 대한 점검이 부재했음
 - 그간의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만족도와 변화한 청년들의 정책수요 욕구를 반영 필요
- 국가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수원시만의 특화된 청년정책의 미래 비전 제시
 - 2020년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의해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 2021년 1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수원시의 청년정책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경기도 수원시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1년
- 내용적 범위
 -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연령을 「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 및 정리하였고, 35세~39세 연령대의 자료는 참고로 활용함
 -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내외 청년정책 동향 파악
 - 수원시 청년정책 현황(2016~2021) 및 수요 파악
 - 수원시 청년정책 방향 제시

2.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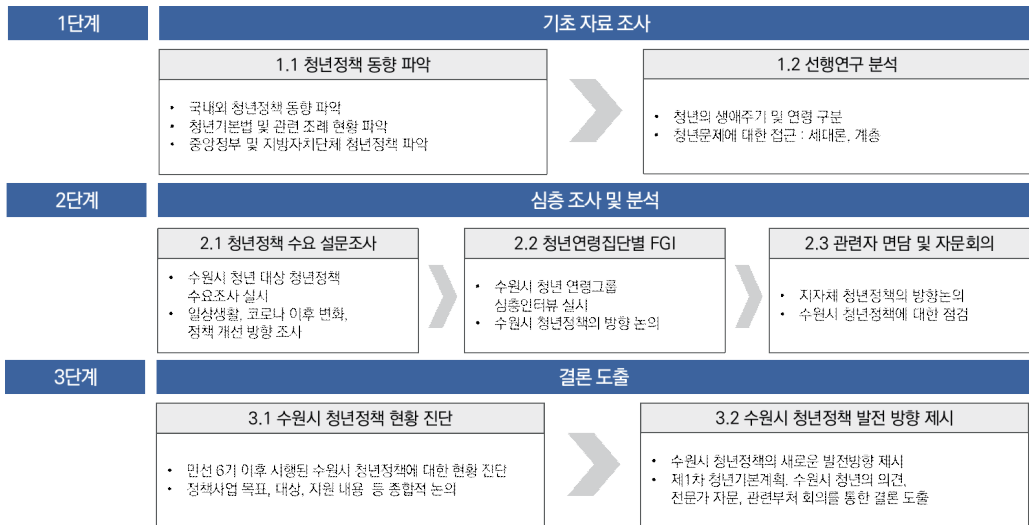
- 문헌연구 : 청년정책 동향 파악, 청년의 개념 및 연령범주, 청년 담론
- 설문조사 : 수원시 청년 대상 정책 수요 조사
- FGI(Focus Group Interview) : 수원시 청년 연령 그룹별 인터뷰 실시
- 관계자 인터뷰 : 수원시 청년정책 현황 점검 및 발전 방향 논의, 청년정책관·청년지원센터·수원시 청년들과의 거버넌스 체계 논의
- 자문회의 :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추진 계획 및 수원시 청년정책의 개선 방향

〈표 1-1〉 연구방법

구분	내용	연구방법
청년정책 동향 파악	- 국내외 청년정책 동향 파악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현황	문헌연구
선행연구 분석	- 청년의 개념 및 청년 연령 범주 - 청년 담론	문헌연구
수원시 청년정책 수요조사	- 수원시 청년 대상 청년정책 수요 조사 실시 - 일상생활, 코로나 이후 변화, 정책 개선사항 파악	설문조사, FGI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의 방향 논의 - 수원시 청년정책 현황 점검 및 발전 방향 논의	인터뷰, 자문회의
종합논의(최종보고회)	- 수원시 청년정책 추진 방향 및 사업 논의	자문회의
결론 및 제언	- 수원시 청년정책의 발전 방향 제시	종합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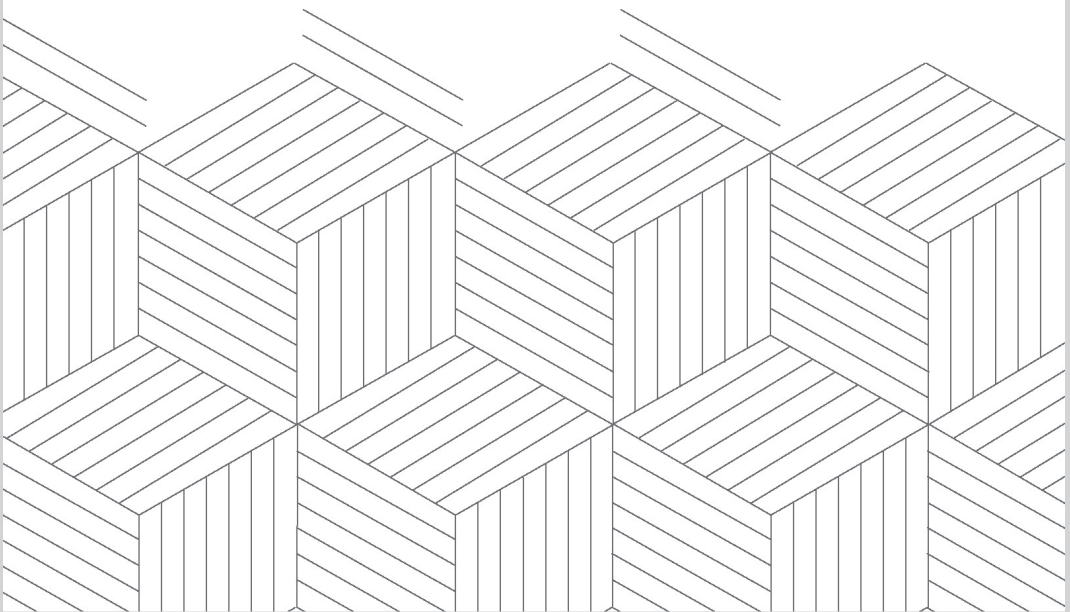
- 연구추진체계는 기초자료조사, 심층조사 및 분석, 결론 도출로 구분됨
 - 1단계 기초자료조사
 - 청년정책 동향 파악, 선행연구 분석
 - 2단계 심층조사 및 분석
 - 청년정책 수요 설문조사, 청년연령집단별 FGI, 관계자 면담 및 자문회의
 - 3단계 결론 도출
 - 수원시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발전방향 제시

〈그림 1-2〉 연구추진체계



제2장 청년의 개념 및 청년정책 동향

제1절 청년의 개념 및 범위
제2절 청년정책 동향



제2장 청년의 개념 및 청년정책 동향

제1절 청년의 개념 및 범위

1. 청년의 개념

1) 성인기 이행 관점에서의 청년

- Arnett(2000)는 청소년기가 끝났음에도 성인기 과업을 수행하지 않는 유예하는 기간을 통틀어 발현성인기(Emerging Adulthood)라고 정의함
 - 연령대로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 가량이고 인간의 발달단계 상으로는 청소년기, 성인기와 구분되는 특성을 지님
 - Tanner&Arnett(2009)는 발현성인기가 등장한 역사 문화적 배경으로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발전하면서 보다 높은 지식과 기술수준을 요구하게 되면서 학교교육 기간이 길어진 점, 여성의 교육 및 사회진출이 증가하며 결혼 및 출산 보다는 개인이 커리어에 투자하는 경향이 높아진 점,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혼전 성관계와 동거를 용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유로운 성생활이 가능해진 점에 주목(안선영 외, 2011 재인용)
 - 이와 함께 Arnett(2011)에 따르면 개인의 신념(beliefs)도 변화하여 경제적 자립을 포함하여 독립을 이룬 후에 결혼과 출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 결혼은 가족 혹은 가문 간의 결합이 아닌 개인의 낭만적 사랑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 일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개인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통로로 인식되기 시작(안선영 외, 2011)
- 발현성인기(Emerging Adulthood)의 특성은 정체성 탐색(identify exploration), 실험 및 가능성(experimentation&possibilities), 불안정성(negative&instability), 스스로에 대한 집중(self-focused), 어중간한 정체성(feeling 'in-between')이 있음 (Arnett, 2004)

- 발현성인기는 모든 사회 동일한 연령대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 학교교육 기간이 길고 성인기 과업 수행 시기가 지연되는 현상을 보이는 산업화된 사회에 국한하여 나타남(Arnett, 2000)
 -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산업화된 사회에서 청소년기(adolescence)의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연령대가 점차 앞당겨지고 있는데 반해 취업, 결혼, 출산 등의 성인기 과업을 성취하는 연령대는 점차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 국내 기업의 신입사원 평균 연령은 1998년 25.1세에서 2020년 31세로 약 20년 사이 6세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이 26세(1998년)에서 32.5세(2020년), 여성이 23.5세에서 30.6세(2020년)로 증가함²⁾
 - 통계청 2020년 자료 기준으로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2.2세, 여성 30.8세로 10년 전과 비교해 남성은 1.4세, 여성은 1.9세 높아졌음³⁾
 - 통계청 2020년 자료 기준으로 결혼 후 첫 아이 출생까지의 시기가 2.34년으로 집계되어 10년 전과 비교해 0.59년 증가함⁴⁾
- Arnett(2001)는 성인기 이행의 주요 요건으로 독립(independence), 상호의존(interdependence), 역할이행(role-transition), 규범준수(norm compliance), 가족형성능력(family capacity)이라는 기준을 설정함

〈표 2-1〉 Arnett(2001)의 분류에 의한 성인기 이행의 기준

구분	내용
독립(Independence)	- 부모와의 동등한 관계/부모로부터의 경제적·심리적 독립 -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 - 부모나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 결정
상호의존(Interdependence)	- 신뢰 있는 애정관계 형성/결혼상대자 결정 - 감정 통제/자기중심에서 벗어나 타인배려하기
역할이행(Role-Transition)	- 학교교육 종결(성인기 이행시 바람직한 교육 수준) - 결혼 및 첫아이 출산 - 정규직 취업/장기적 진로 및 직업결정/주택 구입
규범준수(Norm Compliance)	- 과음하지 않기/마약/도박하지 않기/음주운전 하지 않기 - 절도, 기물파손 등 범죄 저지르지 않기/건전한 성관계
가족형성능력(Family Capacity)	- 가족은 안전하게 지키며,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 자녀를 보살필 수 있는 능력

자료 : 안선영 외(2011), 재인용

2) 신입사원 평균연령 1998년 25.1세→2018년 30.9세로 증가(쿠키뉴스, 2020.4.22.)

3) 2020년 혼인&이혼통계(대한민국 정책프리핑, 2021.03.18.)

4) 결혼 후 첫째 아이 낳을 때까지 평균 2.34년 걸렸다(중앙일보, 2020.05.27.)

- 학문별로 성인의 조건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을 갖고 있는데 인류학에서는 성인기 이행의 가장 중요한 지표를 결혼으로 여겨왔고, 사회학 에서는 결혼 뿐 아니라 학교 교육의 종결, 취업, 출산 등의 기준도 성인기 이행의 조건으로 삼아서 각 과업의 수행 여부 및 수행 기간과 관련성 등에 대하여 연구를 실시했으며, 심리학에서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스스로에 책임감과 자기조절 능력 등에 대한 특성에 주목함(안선영 외, 2011)

2) 청년세대 담론

- ‘세대’란 어떤 사회 내에서 다소간 동일한 연령에 있는 개인들의 모음을 뜻하며, 공통의 체험을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의식이나 풍속을 전개하는 일정 폭(幅)의 연령층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님
- 청년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로는 86세대(1951~1969년생), X세대(1970~1980년생), 밀레니얼세대(1981~1995년생), Z세대(1996~2010년대 초반생) 등이 사용되어 왔음
 - 최근에는 청년들을 밀레니얼세대(M세대)와 Z세대를 합한 MZ세대라고 통칭하며, 이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며 단순히 상품을 소비하기 보다는 가치와 개인 중심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특성을 지녔다고 평가함

〈표 2-2〉 청년 세대의 구분 및 특징

구분	86세대	X세대	밀레니얼세대(M세대)		Z세대
			전기	후기	
출생연도	1961~1969년	1970~1980년	1981~1988년	1989~1995년	1996~2010년대 초반
시대상	정치적 격변기·고도성장	문화적 격변기·급성장 부작용	디지털 격변기·글로벌 시대 돌입·저성장		양적 성장 멈춤·SI보편화
집단 vs 개인	집단주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공존	개인주의 심화		경계 없는 초개인주의·무소속 공동체
경쟁의 목적	우리 집단의 성장과 성공	본인의 행복감	본인의 평균적인 삶을 지키기 위함		본인의 재능과 개성을 인정받기 원함
삶의 태도	하면된다	자유·개성	보신주의·평균지향		디지털 근본·능력 지향
추구하는 가치	진보	다양성, 개방성 (개인존중)	글로벌 스탠다드 (선진화, 표준화)		인류의 보편적 가치·지속가능성
국가에 대한 태도	애국심	애국심	자긍심		일종의 플랫폼

자료 : 대학내일20대연구소(2021), 밀레니얼-Z세대 트렌드 2022, 위즈덤하우스

- 밀레니얼 세대(1981~1995년 생)의 코호트적 경험으로는 핵가족 일반화 사회, 1인 가구 증가, 불황 정착(저성장·저고용·저금리), 4차 산업혁명 시작, 수시 입학제도 확대, 2002월드컵, 미투 운동의 확산 등이 있음

〈표 2-3〉 밀레니얼 세대의 코호트적 경험

구분	내용
인구	핵가족 일반화, 초저출산시대 진입, 혼인율 감소, 1인 가구 증가
경제	3차 불황정착 (저성장, 저고용, 저금리), 취업난 가속화 및 88만원 세대 등장, 9대 스펙 등장, 인기 직업 1위 공무원, 글로벌 금융위기, 불평등 심화 및 수저계급론 등장, 4차 산업혁명 시작
교육	학력 인플레이, 반공교육·교련교육 축소 및 소멸, 수시 입학제도 확대, 입학사정관제 등장, 해외 어학연수 확대
문화	e스포츠 인기 및 프로그래머 등장, 온라인 커뮤니티 문화 시작 및 정착, 2002 월드컵, 한류 열풍, 싸이 강남스타일, 김연아, 해외 문화 콘텐츠 접근 확대 및 일상화
기술	1인 1휴대폰 시대, 인터넷 보급, 1인 미디어 시대 돌입(싸이월드, 블로그 등) 스마트폰 시대 개막, SNS 보편화
사회 및 정치	군복무 기간 단축, 중국 G2 등극, 세월호 침몰 사고, 대통령 탄핵, 미국 동성결혼 합헌, 갑질사건 다수 발발, 미투운동 확산

자료 : 대학내일20대연구소(2021), 밀레니얼-Z세대 트렌드 2022, 위즈덤하우스

- Z세대(1996~2010년대 초반생)의 코호트적 경험으로는 총 인구의 감소,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 투자 유행,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불황, 원격교육 보편화, 영상 기반 콘텐츠의 대세화, AI 및 IoT 상용화, 환경문제의 대두 등이 있음

〈표 2-4〉 Z세대의 코호트적 경험

구분	내용
인구	총 인구 감소
경제	3저 불황 만성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 유행, 코로나19로 전 세계적 불황
교육	대안 교육·홈스쿨링 등장 및 증가, 원격 교육, 온라인 교육 보편화
문화	방탄소년단 빌보드 1위 및 UN 연설, 기생충 국제영화제 석권, 텍스트→영상 기반 SNS 및 콘텐츠 대세, 숏폼 콘텐츠 대세, 스타 인플루언서 등장 및 보편화
기술	알파고와 이세돌 대결, AI 및 IoT 상용화, 암호화폐 기술 등장, 스트리밍 및 클라우드 보편화, 메타버스 대중화
사회 및 정치	일본과 역사·외교적 갈등 심화, 젠더 평등 이슈 및 젠더 갈등 심화. 플라스틱 규제 및 환경 문제 대두, 팬데믹 발발

자료 : 대학내일20대연구소(2021), 밀레니얼-Z세대 트렌드 2022, 위즈덤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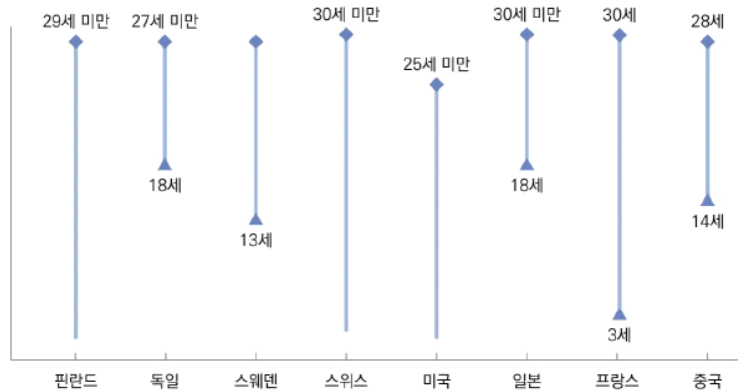
- 한편 청년의 문제를 단순한 세대의 특성으로 환원시켜 해석하는 것은 한국사회가 지닌 구조적 문제(계급 불평등, 노동시장의 양극화 등)를 간과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 이철승(2019)은 청년세대의 문제가 세대 간 불평등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현재 기성세대인 386세대가 기업조직의 최상층 리더십과 상층 노동시장의 자리를 불균등하게 점유함으로써 시장에서 '세대 권력'을 구축했다고 평가함
- 신광영(2009)은 청년문제를 세대 간 불평등의 문제뿐이 아니라 세대 내 불평등의 문제로 접근하였으며, 이는 곧 계급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비판함
- 그밖에 청년 내부의 다양성에 대한 부각의 필요성, 정책 대상으로서 청년을 타자화하는 것에 따른 청년의 주체성 상실의 문제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 정성조(2019)는 청년세대 담론이 주로 경제적 어려움과 재생상적 시간 사용에 주목한 것과 달리 실제 청년들에게서는 경제와 문화, 분배와 인정의 경계를 초월하며 국가와 권력, 법과 제도, 시민권과 주체성 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등 담론과 실제의 간극에 주목함

2. 청년의 연령 범위

1) 국제

- OECD와 EU는 청년(young people)의 범위를 15~29세로 규정
- 국제노동기구(ILO)와 UN은 청년의 기준은 15~24세로 규정

〈그림 2-1〉 해외 주요국 청년법률 및 기본계획, 정책 연령 규정



자료 : 변금선 외(2019) 재인용

2) 국내

(1) 시민인식

- 다년간의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결과를 비교한 결과 청년이라 생각하는 하한연령과 상한연령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2016) 결과 청년 하한연령 19.3세, 상한연령 29.5세
 -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2017) 결과 청년 하한연령 19.4세, 상한연령 31.2세
 -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2018) 결과 청년 하한연령 19.8세, 상한연령 31.4세
 -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2019) 결과 청년 하한연령 19.5세, 상한연령 32.5세

(2) 사회적 역할에 따른 구분

- 의무교육이 마무리되는 시기 : 15~16세
- 무상교육이 마무리되는 시기(2020년 이후) : 18~19세
- 평균 초혼연령(2019년) : 31세

(3) 법률 및 조례상 기준

-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제1호에서 청년의 연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의미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연령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함
-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년농업인의 나이를 만 40세 미만으로 규정함
-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 예외 허용함
-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에서는 청년을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표 2-5〉 법률상 청년의 연령기준 - 17개 광역 시도별

구분	내용
18세 이상 34세 이하	부산광역시
18세 이상 39세 이하	전라남도, 전라북도, 강원도, 대전광역시
19세 이상 34세 이하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19세 이상 39세 이하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각 시도별 청년 기본 조례 기준(2022)

〈표 2-6〉 법률상 청년의 연령기준 - 법령별

법령(재·개정일)	연령기준	세부내용
청년기본법 (2021.08.17.)	19세 이상 34세 이하	제3조(정의)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2022.02.17.)	15세 이상 29세 이하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2021.04.20.)	15세 이상 34세 이하	제2조(정의 5의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란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사업상 필요하여 신규채용하는 근로자로서 채용 시점의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고용보험 시행령 (2022.02.17.)		제3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임금피크제 도입 또는 그 밖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2015년 7월 1일 이후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12.28.)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202.02.28)	19세 이상 39세 이하	부칙 제3조(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등의 입주자 자격에 관한 경과 조치) 19세 이상 39세 이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2019.07.30.)	45세 이하	제4조(위원의 위촉) ② 사무처장이 위원 위촉을 제청하거나 법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을 추천하는 자가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여성인 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 청년(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인 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 성별, 세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05.18.)	40세 미만	제3조(청년농어업인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에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나이가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1.12.16.)	39세 이하	제6조의2(청년상인의 기준) 법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각 법령 규정(2022)

제2절 청년정책 동향

1. 국제기구 청년정책⁵⁾

1) UN, YOUTH 2030

- 2018년 9월 24일 UN 총회에서는 <Youth 2030: Working with and for Young People>이라는 새로운 UN의 청년 전략이 발표함
- <Youth 2030>의 비전은 ‘모든 청년의 인권이 실현되고 모든 청년들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변화의 주체(agents of change)로서 청년들의 주체성(agency), 탄력성(resilience), 긍정적 기여(positive contribution)를 인식하는 세상’으로 제시함
- <Youth 2030>은 청년 정책의 우선순위 영역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선정함

〈표 2-7〉 UN, YOUTH 2030의 우선순위 영역

구분	우선순위 영역	내용
1	참여, 참여 및 옹호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청년의 목소리 확대
2	교육 및 보건기반	양질의 교육과 보건에 대한 청년의 접근 확대 지원
3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권한 강화	양질의 일자리 및 생산적 고용에 대한 청년의 접근 확대 지원
4	청년과 인권	청년의 인권을 보호 및 증진하여 청년의 시민 및 정치적 참여 지원
5	평화 및 탄력성 구축	평화와 안보 및 인도주의적 행동을 위한 촉매제로서 청년 지원

자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20), 재인용

2) EU, Youth Strategy

- 유럽연합은 2002년 이후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회균등의 원칙에 기반 하여 청년 정책을 수립해왔으며 이에 유럽 연합과 27개 회원국은 청년정책의 수립과 내용 공유, 정책 실행을 통하여 유럽에서 청년들이 직면한 과제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대응을 하고자 함

5)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20), UN YOUTH2030 전략과 한국청년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

- 유럽연합의 〈Youth Strategy 2010~2018〉은 15~25세의 청년에게 교육과 노동시장에서 보다 많은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적극적인 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이러한 목표를 설정한 이유는 유럽 내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년 세대의 고용 및 취업·창업을 제고하는 동시에 유럽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미래 세대의 시민성 함양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임

〈표 2-8〉 EU, Youth Strategy(2010~2018)의 8개 분야

구분	분야	내용
1	교육과 훈련	청년들에게 모든 수준에서 양질의 교육과 훈련, 평생학습 기회 제공
2	고용 및 기업가 정신	피고용인 또는 사업가로서 청년을 노동시장에 통합 지원
3	건강과 웰빙	청년의 건강과 웰빙 촉진
4	참여	대의민주주의와 시민사회에서 청년의 참여 촉진
5	자원봉사 활동	청년 자원 봉사 활동의 가치 인정 및 지원
6	사회통합	청년 빈곤과 사회적 배제 타파
7	청년과 세계	전 지구적 이슈에 대한 정치결정과정에 청년 참여
8	창의성과 문화	창의적 역량과 기회, 그리고 문화에 대한 청년들의 접근 기회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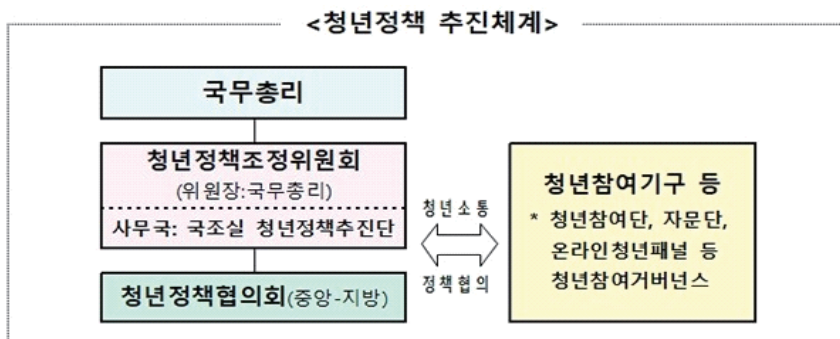
자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20)

- 유럽연합의 〈Youth Strategy 2019~2027〉은 2018년 11월 26일 채택되었으며, 주된 목적은 민주적 삶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으로 청년들의 사회 및 시민 참여를 지원하고 청년이 사회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Youth Strategy 2019~2027〉은 청년의 참여(engage), 연계(connect), 역량 강화(empower) 등 세 가지 핵심 행동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참여(engage)란 민주적 삶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민주적 생활에서도 청년에게 참여 경로를 제공 하는 전략을 의미함
 - 연계(connect)는 청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이동성, 연대성, 문화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것임
 - 역량 강화(empower)는 청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기 위한 목적임

2. 중앙정부 청년정책

- 지금까지의 청년정책은 청년의 고용확대에 초점을 맞춘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정책 대상으로서 청년은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사회로(직업세계)로 진출하는 연령대에 속하는 사람들로 여겨왔음(김도형 외, 2017)
- 그러나 최근 청년문제 심각성을 논의 하며 일자리 외에 주거, 복지, 문화 등의 청년정책의 필요성이 논의되면서 다양한 정책적 제안과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청년 문제의 핵심을 일자리 확보 및 고용 안정성에 놓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음
 - 일자리 영역 : 청년고용의무제 확대, 블라인드 채용 확대, 추가고용장려금 신설,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청년일자리 기본권 보장
 - 특수직(과학자, 창농) : 연구 환경 개선, 청년 과학기술인 육성, 영농창업활성화
 - 주거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주거비용 지원 강화, 청년임대주택 공급
-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제 1차 청년정책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하는 등 청년정책의 체계화 및 제도화를 노력

〈그림 2-2〉 청년정책 추진체계



자료 : 관계부처합동(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이를 관장하는 주체에 대하여 정의하며 정책의 영역(시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 청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청년 정책의 영역(시책)은 ①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② 청년 창업지원 ③ 청년 능력개발 지원 ④ 청년 주거지원 ⑤ 청년 복지증진 ⑥ 청년 금융생활지원 ⑦ 청년 문화 활동 지원 ⑧ 청년 국제협력지원으로 구성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기본법」 제 2조에 근거하여 수립되었으며, 청년의 삶을 ‘기회와 위기의 공존’으로 진단하고 정책 방향 및 중점 과제를 설정
 - 청년의 삶은 인적우수성·다양한 잠재력·미래투자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기회가 있고, 코로나로 인한 피해·성인기 이행 지체의 충격,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및 세대간·세대내 차이로 인한 위기도 공존한다고 평가(관계부처합동, 2020)
 - 계획의 비전은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이고 방향으로는 제도적 기반 마련, 삶의 공간,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설정

〈그림 2-3〉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체계도



자료 : 관계부처합동(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3.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 「청년기본법」 등의 주요 법령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각 지역청년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자치법규(규칙, 조례)를 재정비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청년 관련 조례의 유형으로는 청년기본조례, 일자리 확충, 농업인 육성, 기본소득 지원, 창업지원, 공간 마련, 지원금 제공, 청년단체 조성, 주거지원 등이 있음

〈표 2-9〉 청년관련 조례 지역별 현황(2021)

(단위 : 개)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광역	9	1	2	2	6	7	2	3	7	2	2	3	3	5	4	3	6
기초	46	24	13	11	14	9	10	-	96	26	16	28	25	33	23	23	-

주석 : 전국 광역자치단체 17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기준(2021년)

자료 :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표 2-10〉 청년관련 조례 유형별 현황(2021)

(단위 : 개)

구분	청년 기본 조례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농업인 육성	기본 소득 지원	창업 지원	청년 공간 마련	지원금 제공	청년 단체 조성	주거 지원	취약 계층 지원	기업 지원	문화 발전	기타
광역	18	15	9	1	8	2	4	2	4	2	0	1	1
기초	181	92	24	28	12	14	11	10	6	4	4	2	10

주석 : 전국 광역자치단체 17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기준(2021년)

자료 :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 송수종 외(2001)는 청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정책의 유형을 고용 촉진 및 일자리의 질, 창업지원, 능력개발 지원, 주거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지원, 문화 활동지원, 참여 및 권리 총 8가지로 구분하여 사업 현황을 비교
 - 분석 결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광역) 모두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과 관련된 사업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중앙 :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50.77% > 금융생활지원 17.35% > 능력개발지원 10.71% 등
 - 광역 :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34.60% > 창업지원 22.04% > 복지증진 11.25% 등

- 또한 청년정책의 수단에 따라 직접 정책수단과 간접 정책수단으로 구분하여 사업 현황 비교를 실시(송수중 외, 2001)
 - 분석 결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광역시) 모두 간접 정책수단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이 많았으며, 특히 보조금의 비율이 높았음
 - 중앙 : 보조금 43.2% > 공공기관 19.49% > 정부직접공급(프로그램) 13.56% > 계약(위탁운영) 11.36% 등
 - 광역 : 보조금 36.42% > 정부직접공급(프로그램) 33.19% > 계약(위탁운영) 22.90% 등

〈표 2-11〉 청년기본법 분류체계에 따른 정책 현황 비교

(단위 : 개, %)

구분	고용촉진/ 일자리 질	창업지원	능력개발 지원	주거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 지원	문화활동 지원	참여 및 권리	합계	
										개수
중앙	개수	199	34	42	16	12	68	7	14	392
	비율	50.77	8.67	10.71	4.08	3.06	17.35	1.79	3.57	100
광역시	개수	975	621	193	142	317	230	186	154	2818
	비율	34.60	22.04	6.85	5.04	11.25	8.16	6.60	5.46	100

자료 : 송수중 외(2021), 2020년 청년정책 연구총서 3권 청년정책 현황분석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표 2-12〉 청년정책 수단별 비교 - 중앙부처

(단위 : 개, %)

구분	직접 정책수단				간접 정책수단							합계
	정부직 접공급 (인프라)	정부직 접공급 (프로그램)	직접 대출	공공 기관	계약 (위탁 운영)	보조금	대출 보증	공적 보험	조세 지출	바우처	정부 제공	
개수	15	80	27	115	67	255	5	3	8	9	6	590
비율	2.54	13.56	4.58	19.49	11.36	43.22	0.85	0.51	1.36	1.53	1.02	100

자료 : 송수중 외(2021), 2020년 청년정책 연구총서 3권 청년정책 현황분석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표 2-13〉 청년정책 수단별 비교 - 지방자치단체(광역시)

(단위 : 개, %)

구분	직접 정책수단		간접 정책수단								합계
	정부직 접공급 (인프라)	정부직 접공급 (프로그램)	계약 (위탁 운영)	보조금	대출 보증	공적 보험	조세 지출	바우처	정부 제공	경제적 규제	
개수	240	1435	990	1575	4	1	15	60	3	1	4324
비율	5.55	33.19	22.90	36.42	0.09	0.02	0.35	1.39	0.07	0.02	100

자료 : 송수중 외(2021), 2020년 청년정책 연구총서 3권 청년정책 현황분석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4. 청년정책 추진 사례

1) 서울특별시 청년정책

- 서울특별시의 청년정책은 청년의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자 함

〈그림 2-4〉 서울특별시 청년정책 목표(2022)



자료 : 서울청년포털

- 조직 : 1청 7팀 45명⁶⁾
- 정책 비전 및 목표(2021)
 - 비전 : 청년이 만드는 더 넓은 참여, 더 많은 변화, 더 나은 미래
 - 목표 : 미래혁신, 청년자치, 세대공존
- 팀별 담당 업무
 - 청년정책팀 :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서울청년시민회의 운영, 청년자율예산편성, 자치구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서울시 청년정책홍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서울 청년포털 고도화
 - 청년센터팀 :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조성·운영,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지도 감독, 서울시 청년쿱비즈니스센터 설치·운영,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조성

6) 시간선택 임기제 18명 포함, 21.2.15.기준임

- 청년공간팀 : 청년활력공간 무중력지대 운영·지도 감독, 서울시 청년허브 운영·지도 감독,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운영, 청년교류공간 운영·지도 감독
- 청년지원팀 : 서울 청년수당 운영, 청년활력 프로그램 운영, 청년 마음건강 지원, 청년 생활운동 지원, 고립청년 종합서비스 지원, 서울 전입 1인 가구 청년 웰컴박스 지원
- 청년금융팀 :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긴급생활 안정자금 지원, 청년 미래투자 금융생활 지원
- 청년인재팀 : 서울시 위원회 청년위원 15% 목표제 추진, 청년정책기획자 양성 과정 운영, 서울청년학회 기획, 청년프로젝트 사업 운영, 청년기업-못난이 농산물 상생프로젝트 운영
- 청년교육팀 :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 추진, 청년지역교류 지원, 청년인생설계학교 추진·관리, 청년 교류회, 포럼, 세미나 등 청년관련 행사 주관·운영(서울청년포털·서울시, 2021)

〈표 2-14〉 서울특별시 청년정책 주요사업(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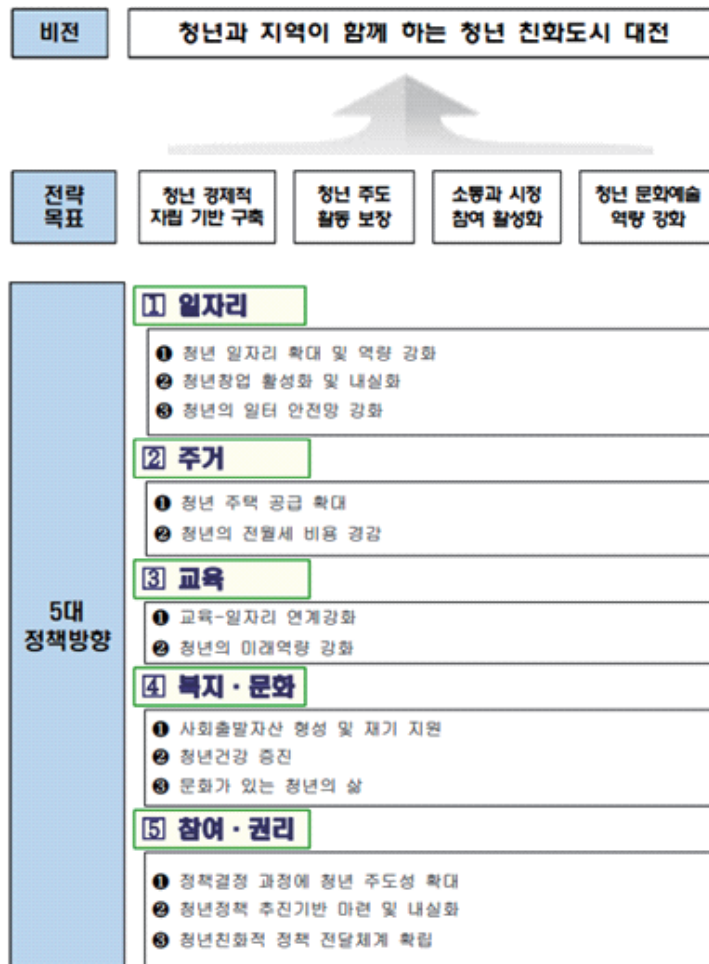
구분	주요사업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계획하는 '미래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세대균형 시정을 위한 서울미래인재 양성 · 지원 -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청년프로젝트 지원 - 지속가능한 청년활동을 위한 청년허브 운영 강화
참여와 속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청년 자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턱낮은 청년참여에 기반한 청년거버넌스 운영 - 현장성 있는 의제 중심의 청년자율예산 편성 · 집행 -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내실화 - 다양한 청년 활력 공간 조성·운영
분배와 다양성으로 균형을 살피는 '세대 공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청년수당과 청년활력프로그램 운영 - 청년 마음건강 단계별 지원체계 강화 -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과 직무역량 강화 - 청년 대상별 맞춤형 사업 강화 - 청년 부채경감과 금융복지 지원 - 서울-지역 교류를 통한 지속가능 공존기반 구축

자료 : 서울시(2021), 주요업무보고(청년청)

2) 대전광역시 청년정책

- 정책의 비전 : 청년과 지역이 함께하는 청년친화도시 대전
- 전략 목표 : 청년 경제적 지원 기반 구축, 청년 주도 활동 보장, 소통과 시장 참여 활성화, 청년 문화예술 역량 강화

〈그림 2-5〉 대전광역시 청년정책 체계도



■ 우수사례

대전광역시 청년 의회 개최

- 추진배경
 - 청년문제를 해결하고자 활동해 온 청년들의 정책제안의 장으로서 행정부(시), 시의회, 청년 등 민·관 협치로 청년정책의 공감대 형성사업개요
- 사업내용
 - 일 정 : '19. 8. 28(수) 14:00~16:00
 - 장 소 : 시의회 본회의장
 - 참석자 : 100여명 / 대청넷 청년, 시장, 의장, 시의원, 공무원 등
 - 내 용 : 1일 청년의원 위촉, 정책제안, 시정질의 등
 - 주 관 : 대청넷(대전 청년정책 네트워크)
 - 예 산 : 7,450천원
- 주요내용
 - 청년의원 위촉 : 22명(1일 청년의원으로 대청넷 팀장 및 청년정책 연구자 중 선정)
 - 제안내용 : 7건 / 시정 질의 및 정책제안 5건, 5분 발언 2건(대청넷 팀활동 및 연구과제(24건) 중 청년 다수의견에 의한 발표내용 선정, 시장이 제안내용에 대한 답변 및 의지 표명)
- 성과 및 기대효과
 - 정책반영 : 7건 중 수용 5건
 - 기대효과 : 대청넷 및 청년정책연구자들의 활동과 정책제안에 대해 행정과 의회가 공감하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청년들의 정책참여 효능감 제고 및 정책만족도 향상

자료 : 국무조정실(2020), 지자체 청년정책 우수사례



자료 : 대전청년내일센터 홈페이지

3) 경기도 시흥시 청년정책

■ 주요 사업

〈표 2-15〉 경기도 시흥시 청년정책 주요사업

구분	주요사업
일자리	시흥 디지털 청년 JOB GO(만 39세 이하 미취업청년 인건비 지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 (시흥 거주 대학생들에게 시정업무 경험과 학비마련 기회 제공)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청년취업 디딤돌'(사회적 경제조직 및 비영리단체 일자리 지원) 시흥청년해피기업(친화기업) 조성 체육청년 사회첫걸음 지원 시흥시 종합일자리센터 시흥고용복지플러스센터 청년중이 일하기 좋은 직장 문화만들기 사업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경기도청년일자리매칭사업 숙련건설 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럭키데이 비대면 채용박람회 꿈날개(경기도 여성 특화 경력개발)
창업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청년창업자 씨앗프로그램 시흥 청년 CEO 육성 프로젝트 시흥창업센터 가상오피스 지원
주거 문화 교육	신혼부부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 경기도 기숙사, 경기행복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년 문화예술기반 조성 청년 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시흥시 평생학습포털
지원금 장학금	청년마음건강 시흥시 관내 대학생 지원금 시흥사랑 청년 복지포인트 시흥사랑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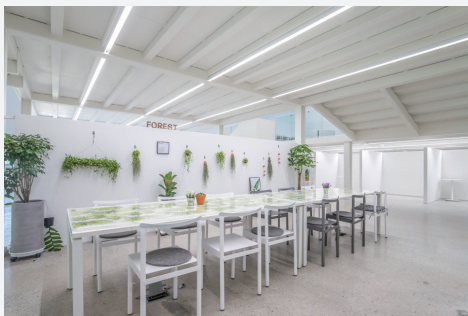
자료 : 시흥시(2021)

■ 우수 사례

시흥시 청년 커뮤니티 공간 확충

- 추진배경
 - 청년들의 소통과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공간부족
 - 취·창업 프로그램 등 청년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시스템 필요
- 사업내용
 - 사업명 : 청년 커뮤니티 공간확충
 - 위치 : 시흥시 정왕동 1799-4
 - 사업기간 : '18 ~ '19년
 - 사업비 : 1,491백만 원
- 주요내용
 - 청년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커뮤니티 공간조성
 - 청년학교 및 리빙랩 운영으로 지역 청년의 수요에 맞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성과 및 기대효과
 - 성과 : 취·창업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69개 강좌, 1,653명 수강), 홍보 활성화, 공간구성 조성완료
 - 기대효과 : 청년들의 소통 및 커뮤니티 공간구축을 통한 청년 네트워크 강화, 취·창업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 취·창업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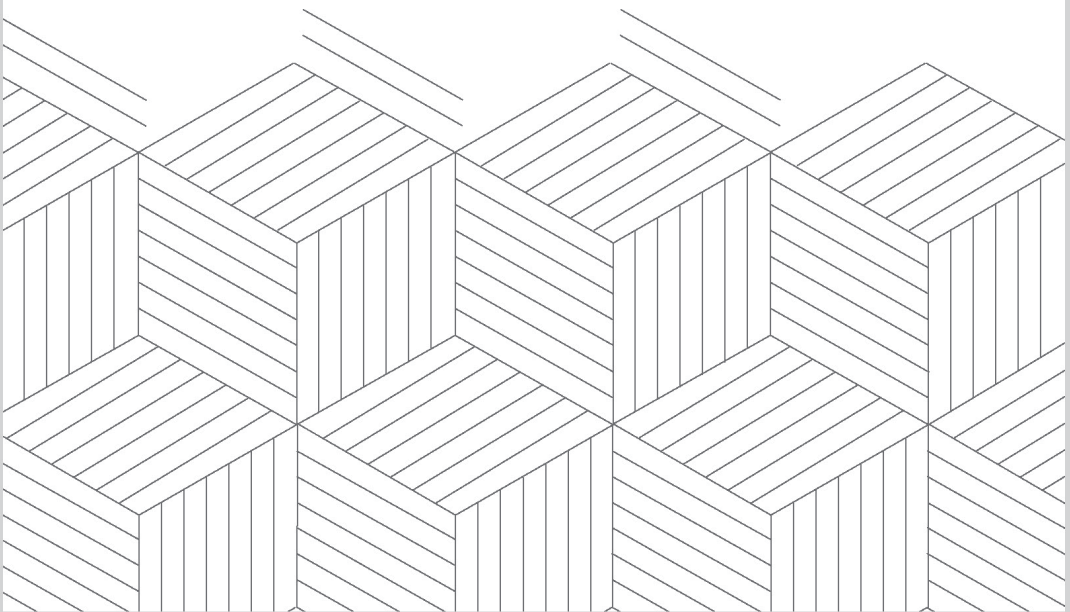
자료 : 국무조정실(2020), 지자체 청년정책 우수사례



자료 : 시흥시 청년스테이션 블로그, 시흥시청 홈페이지

제3장 수원시 현황

제1절 인구사회학적 특성
제2절 청년정책 현황



제3장 수원시 현황

제1절 인구사회학적 특성

1. 인구 및 가구 현황

1) 수원시 전체 인구

- 2021년 기준 수원시 총 인구수는 1,183,714명, 세대 수는 517,822세대로 나타남
- 세대 당 인구수는 2010년 2.61명에서 2021년 2.29명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임
-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는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148,234명(12.5%), 15세 이상 64세 이하 청장년인구 896,405명(75.7%), 65세 이상 고령인구 139,075명(11.7%)의 분포를 보임

〈표 3-1〉 수원시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현황

(단위 : 명, 세대)

구분		2010	2015	2020	2021
총 인구수		1,077,535	1,184,624	1,186,078	1,183,714
세대 수		412,253	463,154	506,950	517,822
세대 당 인구수		2.61	2.56	2.34	2.29
성별	남성	543,233	596,508	597,076	595,933
	여성	534,302	588,116	589,002	587,781
연령대별	14세 이하	190,907	180,842	154,487	148,234
	15세 이상~ 64세 이하	811,775	904,032	899,655	896,405
	65세 이상	74,853	99,750	131,936	139,075
지역별	장안구	293,692	299,016	273,661	273,835
	권선구	306,783	351,053	368,645	364,136
	팔달구	216,503	199,180	174,930	182,132
	영통구	260,557	335,375	368,842	363,422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 수원시 청년 인구

(1) 지역별

- 수원시 청년인구(19~34세)는 285,508명으로 수원시 전체 인구의 24.1%를 차지함
 - 참고로 수원시 35~39세 인구는 88,282명으로 나타남
- 지역별 청년인구는 영통구가 91,89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권선구(83,756명), 장안구(63,273명), 팔달구(46,587명)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표 3-2〉 수원시 지역별 청년 인구(2021)

(단위 : 명)

구분	청년인구 (19~34세)	19~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수원시	285,508	95,507	101,078	88,923	88,282
장안구	63,273	24,781	21,924	16,568	16,500
권선구	83,756	26,474	29,806	27,476	28,996
팔달구	46,587	14,302	17,727	14,558	12,505
영통구	91,892	29,950	31,621	30,321	30,281

자료 : 통계로 보는 수원(2021년 12월 기준), 외국인 제외

(2) 성별

- 수원시 청년인구(19~34세)를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 150,431명, 여성 135,077명으로 성비는 111.4로 나타남
- 청년의 연령대별로는 상대적으로 30~34세 그룹의 성비가 113.8로 높고, 19~24세 그룹의 성비가 106.8로 낮음

〈표 3-3〉 수원시 성별 청년 인구(2021)

(단위 : 명)

구분	청년인구 (19~34세)	19~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수원시	285,508	95,507	101,078	88,923	88,282
남(A)	150,431	49,327	53,771	47,333	45,684
여(B)	135,077	46,180	47,307	41,590	42,598
성비 (A/B*100)	111.4	106.8	113.7	113.8	10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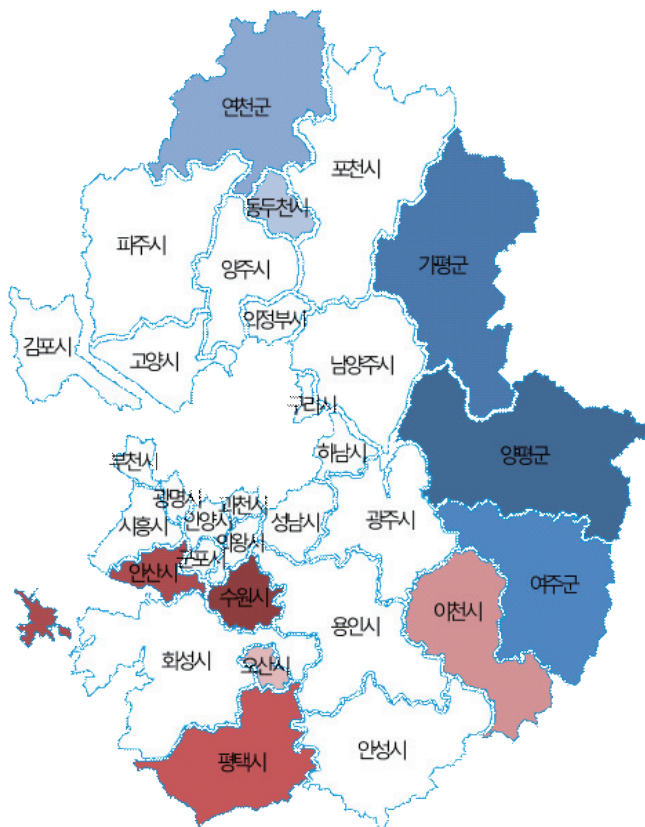
주석 : 남녀성비란 인구의 성별구조를 나타내는 지표로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를 나타남(통계청)

자료 : 통계로 보는 수원(2021년 12월 기준), 외국인 제외

(3) 경기도 타 시군구 비교

- 전국 청년인구(19~34세)는 10,365,440명으로 전국 전체 인구의 20.07%를 차지함
- 경기도 청년인구 비율은 20.89%로 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 경기도 지역 내 청년인구 비율 상·하위 5개 지역
 - 상위 5개 지역 : 수원시, 안산시, 평택시, 이천시, 오산시
 - 하위 5개 지역 : 양평군, 가평군, 여주시, 연천군, 동두천시
- 수원시 청년인구 비율은 24.12%로 전국 및 경기도와 비교했을 때 청년 인구수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 경기도 청년인구 비율 상·하위 5개 지역(2021)



주석 : 붉은색이 진할수록 청년인구 비율이 높은 곳이며, 푸른색이 진할수록 청년인구 비율이 낮은 곳에 해당함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2021년 12월 기준)

〈표 3-4〉 경기도 지역별 청년인구 수와 비율(2021)

(단위 : 명, %)

지역	총인구수 (전 연령, 명)	청년인구수 (19~34세, 명)	지역 내 청년인구비율(%)
전국	51,638,809	10,365,440	20.07
경기도	13,565,450	2,833,437	20.89
수원시	1,183,714	285,508	24.12
안산시	652,726	156,654	24.00
평택시	564,288	124,922	22.14
이천시	223,177	48,861	21.89
오산시	229,983	50,350	21.89
의왕시	163,356	35,707	21.86
성남시	930,948	203,463	21.86
안양시	547,178	119,316	21.81
부천시	806,067	175,135	21.73
군포시	268,535	58,253	21.69
시흥시	512,030	109,636	21.41
과천시	73,345	15,694	21.40
의정부시	463,661	97,773	21.09
고양시	1,079,353	226,936	21.03
화성시	887,015	185,990	20.97
구리시	191,948	39,599	20.63
하남시	320,087	65,116	20.34
광명시	292,893	58,688	20.04
파주시	483,245	95,744	19.81
용인시	1,077,508	212,508	19.72
광주시	387,289	72,916	18.83
안성시	189,534	35,641	18.80
양주시	236,368	42,973	18.18
남양주시	733,798	133,007	18.13
포천시	148,939	26,993	18.12
김포시	486,508	88,089	18.11
동두천시	93,592	16,678	17.82
연천군	42,721	7,611	17.82
여주시	112,150	18,138	16.17
가평군	62,264	9,266	14.88
양평군	121,230	16,272	13.42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2021년 12월 기준)

3) 수원시 청년 인구이동

(1) 출생지 유형

- 2020년 통계청 인구총조사(표본조사) 결과 수원시 청년(20~34세)의 출생지는 다른 시군구 159,836명(62.0%), 수원시 93,269명(36.1%), 기타 4,833명(1.9%)등으로 나타남
 - 다른 시군구의 경우 경기도 외 지역 출신 113,855명, 경기도 내 출신 45,981명으로 수원시 청년은 다른 시군구(경기도 외)에서 출생이 가장 많았음
 - 수원시 출생의 경우 수원시 내 다른 집 79,835명, 현재 살고 있는 집 13,434명임
 -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30대로 갈수록 다른 시군구(경기도 외) 출신 비율이 증가함

〈표 3-5〉 수원시 청년 출생지 유형(2020)

(단위 : 명)

구분	수원시		다른 시군구		기타 (북한, 외국)	계
	현재 살고 있는 집	같은 시군구 내 다른 집	같은 시도 (경기도)	다른 시도 (경기도 외)		
전체인구 (전 연령)	71,186	267,387	187,967	605,851	22,039	1,154,430
청년인구 (20~34세)	13,434	79,835	45,981	113,855	4,833	257,938
20~24세	6,055	28,387	14,377	26,683	982	76,484
25~29세	5,063	31,605	17,330	42,387	1,454	97,839
30~34세	2,316	19,843	14,274	44,785	2,397	83,615
35~39세	1,369	17,314	13,917	57,893	2,393	92,8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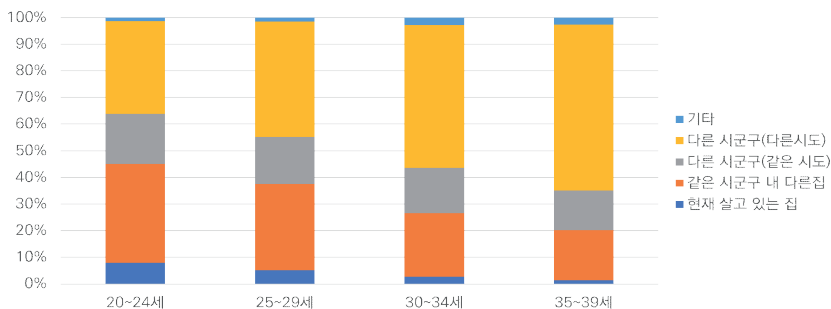
주석 : 일반가구, 집단가구, 집단시설가구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집계

(외국인 가구 및 특별조사구 제외, 일반가구, 집단가구, 집단시설가구 내에 내국인과 함께 사는 외국인 포함)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전국 가구의 20% 표본조사)

〈그림 3-2〉 수원시 청년 연령대별 출생지 유형 비교(2020)

(단위 : %)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전국 가구의 20% 표본조사) 재구성

(2) 전입·전출

- 2021년 수원시 청년(20~34세)의 총 전입자 수는 72,186명, 총 전출자 수는 68,202명으로 순이동(전입-전출)은 3,984명으로 나타남
 - 수원시 전체인구의 순이동은 전출이 전입보다 많아 -2,097명인 반면 청년인구의 순이동은 3,984명으로 전입이 전출보다 많음
- 지난 20년 동안 수원시는 대체로 청년인구의 전입이 전출보다 많았으나, 최근 들어 그 차이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

〈표 3-6〉 수원시 청년 전입·전출자 수(2021)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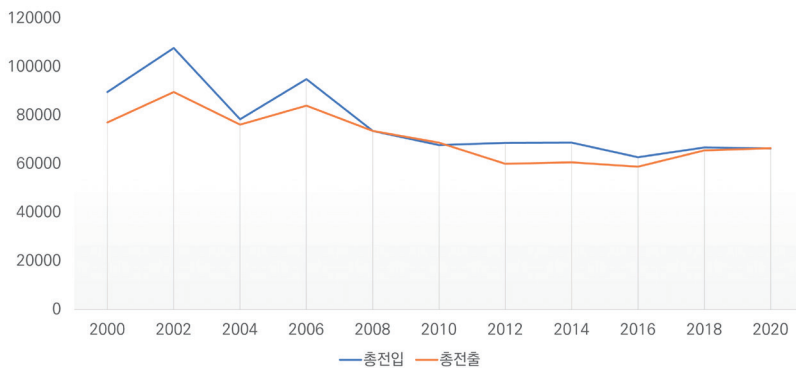
구분	총 전입	총 전출	순이동	경기도 수원시 내	경기도 시군구간 전입	경기도 시군구간 전출	경기도 외 전입	경기도 외 전출
전체인구 (전 연령)	183,258	185,355	-2,097	85,925	51,202	60,481	46,131	38,949
청년인구 (20~34세)	72,186	68,202	3,984	28,214	20,682	22,009	23,290	17,979
20~24세	19,014	16,312	2,702	6,449	4,804	4,651	7,761	5,212
25~29세	29,165	28,241	924	11,279	8,536	9,005	9,350	7,957
30~34세	24,007	23,649	358	10,486	7,342	8,353	6,179	4,810
35~39세	17,465	17,934	-469	8,376	5,228	6,277	3,861	3,281

주석 : 순이동=전입-전출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그림 3-3〉 수원시 청년 전입·전출건수 변화(2000~2020)

(단위 : 명)



주석 : 수원시 20세~34세 청년인구를 기준으로 정리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재구성

(3) 통근·통학 유형

- 2020년 통계청 인구총조사(표본조사) 결과 수원시 청년(20~34세)의 73.2%인 188,781명이 통근 및 통학을 하고 있음
 - 통근·통학지의 유형으로는 현재 살고 있는 읍면동 77,907명, 같은 시도 내 다른 시군구 54,237명, 같은 시군구 내 다른 읍면동 28,427명, 다른 시도 28,210명으로 나타남

〈표 3-7〉 수원시 청년 통근·통학 유형별 인구(2020)

(단위 : 명)

구분	통근·통학 안함	통근·통학함					계
		현재 살고있는 읍면동	같은 시군구 내 다른 읍면동	같은 시도 내 다른 시군구	다른 시도	소계	
전체인구 (12세 이상)	351,184	313,466	102,809	191,154	77,312	684,741	1,035,925
청년인구 (20~34세)	69,157	77,907	28,427	54,237	28,210	188,781	257,938
20~24세	25,747	24,464	6,142	12,932	7,199	50,737	76,484
25~29세	24,288	30,710	11,541	20,248	11,052	73,551	97,839
30~34세	19,122	22,733	10,744	21,057	9,959	64,493	83,615
35~39세	24,242	23,768	11,263	22,915	10,698	68,644	92,886

주 1 : 12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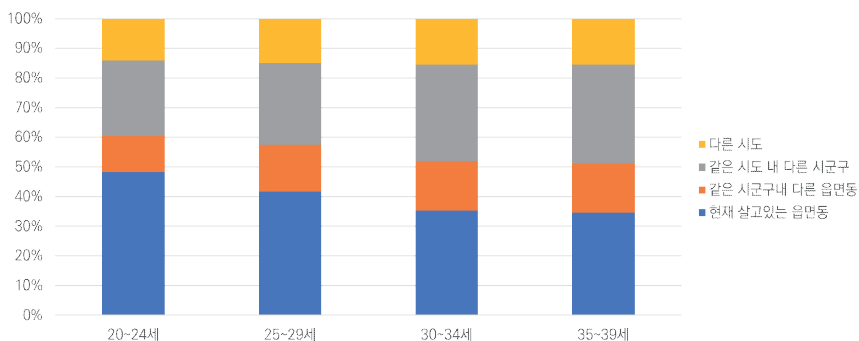
주 2 : 일반가구, 집단가구, 집단시설가구를 대상으로 집계

(외국인 가구 및 특별조사구 제외, 일반가구, 집단가구, 집단시설가구 내에 내국인과 함께 사는 외국인 포함)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전국 가구의 20% 표본조사)

〈그림 3-4〉 수원시 청년 연령대별 통근·통학지 유형 비교(2020)

(단위 : %)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전국 가구의 20% 표본조사) 재구성

(4) 통근·통학 교통수단

- 2020년 통계청 인구총조사(표본조사) 결과 수원시 청년(20~34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통근·통학 교통수단은 승용·승합차 56,937명(30.2%), 시내·좌석·마을버스 40,268명(21.3%), 걸어서 30,086명(15.9%), 전철·지하철 23,321명(12.4%), 복합수단 19,335명(10.2%), 통근·통학차량 11,465명(6.1%) 등의 순서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이용하는 통근·통학 교통수단이 달랐는데 20대 초반의 경우 대중교통 및 도보 이용자가 많았으며, 30대 후반으로 갈수록 승용차 이용자 수가 증가함

〈표 3-8〉 수원시 청년 교통수단별 통근·통학 인구(2020)

(단위 : 명)

구분	전체인구 (12세 이상)	청년인구 (20~34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단 일 수 단	걸어서	124,332	30,086	11,131	11,761	7,194	6,478
	자전거	9,057	2,009	466	955	588	605
	승용차· 승합차(벤)	287,617	56,937	5,420	21,734	29,783	38,052
	트럭	8,528	655	53	277	325	652
	시내·좌석· 마을버스	110,323	40,268	15,427	15,940	8,901	7,174
	통근·통학 차량	41,748	11,465	2,602	4,798	4,065	3,399
	고속·시의 버스	5,822	2,998	1,007	1,207	784	660
	전철· 지하철	47,255	23,321	8,282	9,106	5,933	5,003
	기차	859	298	36	176	86	171
	택시	1,263	465	131	190	144	172
	기타	2,982	944	248	410	286	341
복합수단	44,955	19,335	5,934	6,997	6,404	5,937	
계	684,741	188,781	50,737	73,551	64,493	68,644	

주 1 : 12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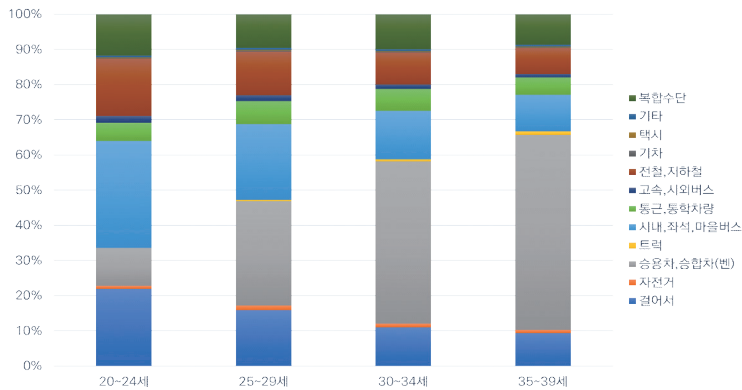
주 2 : 일반가구, 집단가구, 집단시설가구를 대상으로 집계

(외국인 가구 및 특별조사구 제외, 일반가구, 집단가구, 집단시설가구 내에 내국인과 함께 사는 외국인 포함)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전국 가구의 20% 표본조사)

〈그림 3-5〉 수원시 청년 연령대별 통근·통학 교통수단 비교(2020)

(단위 : %)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전국 가구의 20% 표본조사) 재구성

(5) 상주·주간인구

- 2020년 통계청 인구총조사(표본조사) 결과 수원시에서 낮 시간 동안 활동하는 청년(20~34세)의 수는 225,508명이고 주간인구지수는 87.4로 나타남
 - 수원시에서 주간인구지수가 높은 청년의 연령대는 20~24세(95.0)이며, 가장 낮은 연령대는 30~34세(83.0)임

〈표 3-9〉 수원시 청년 상주·주간인구(2020)

(단위 : 명)

구분	상주인구	유입인구			유출인구			주간인구	주간인구 지수
		통근	통학	계	통근	통학	계		
총인구 (전 연령)	1,154,430	144,993	23,555	168,548	247,552	20,914	268,466	1,054,512	91.3
청년인구 (20~34세)	257,938	35,061	14,956	50,017	67,938	14,509	82,447	225,508	87.4
20~24세	76,484	4,460	11,811	16,271	8,267	11,864	20,131	72,624	95.0
25~29세	97,839	14,114	2,814	16,928	29,013	2,287	31,300	83,467	85.3
30~34세	83,615	16,487	331	16,818	30,658	358	31,016	69,417	83.0
35~39세	92,886	22,192	129	22,321	33,462	151	33,613	81,594	87.8

주 1 : 상주인구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인구

주 2 : 주간인구는 거주지와 통근·통학지를 기준(상주인구+유입인구-유출인구)으로 파악하는 인구

주 3 : 주간인구지수=(상주인구+유입인구-유출인구)/상주인구×100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전국 가구의 20% 표본조사)

7) 주간인구지수란 상주인구의 대비 그 지역에서 낮 시간 동안 활동하는 주간인구의 비율을 나타낸 지표로 주간인구지수가 100 이상이면 주간에 인구가 집중되는 업무지역의 성격이 강하고 100 이하인 경우 주거지(베드타운)의 성격이 강함

4) 수원시 청년 1인 가구

- 수원시 전체 일반가구 가운데 1인가구는 146,572가구이며, 이 가운데 청년(20~34세) 1인 가구는 55,125가구로 나타남
 - 전체 1인 가구 대비 청년 1인 가구 비율은 전국 28.4%, 경기도 27.3%, 수원시 37.6%로 수원시의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수원시 청년 1인가구수는 영통구에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권선구, 팔달구, 장안구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3-10〉 수원시 청년 1인 가구 현황(2020)

(단위 : 가구, %)

구분	전체 일반가구수 (A)	1인가구 수 (B)	1인가구 비율 (B/A*100)	청년 1인가구 수 (C)	청년1인 가구 비율 (C/B*100)	노인 1인가구 수 (D)	노인 1인가구 비율 (D/B*100)
전국	20,926,710	6,643,354	31.7	1,889,545	28.4	1,660,711	25.0
경기도	50,98,431	1,406,010	31.4	384,492	27.3	296,821	21.1
수원시	466,089	146,572	27.6	55,125	37.6	24,010	16.4
장안구	104,418	30,264	29.0	9,550	31.6	6,736	22.3
권선구	143,231	41,517	29.0	12,210	29.4	7,123	17.2
팔달구	76,086	30,497	40.1	10,676	35.0	5,666	18.6
영통구	142,354	44,294	31.1	22,689	51.2	4,485	10.1

주석 : 청년(20~34세), 노인(65세 이상)으로 집계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전수조사)

5) 수원시 대학생 수

- 수원시에는 4개의 대학교가 있고, 2021년 기준 학생 수는 40,190명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하였음

〈표 3-11〉 경기도 지역별 대학교 및 대학생 수(2010~2021)

(단위 : 개, 명)

지역	대학교 수 (2021)	대학생 수			
		2010	2015	2020	2021
전국	336	2,951,282	2,894,405	2,633,787	2,544,243
경기도	61	502,722	471,130	433,276	416,739
수원시	4	43,893	42,942	40,660	40,190
성남시	3	44,137	50,665	48,021	47,474
의정부시	1	19,341	14,826	13,515	13,620
안양시	4	40,247	37,921	33,693	33,508
부천시	4	33,965	33,812	30,706	30,102
평택시	3	12,583	13,142	11,694	10,727
동두천시	1	1,284	2,281	1,868	1,863
안산시	4	31,176	30,355	29,835	28,603
고양시	2	7,061	6,761	6,337	6,244
남양주시	1	45	8,672	8,100	7,942
오산시	2	16,030	16,258	15,238	14,747
시흥시	2	17,133	18,170	17,531	17,301
군포시	1	3,721	3,646	3,370	3,318
의왕시	1	5,112	4,541	4,221	4,046
용인시	7	85,263	54,285	50,144	48,009
파주시	1	2,446	3,061	1,979	1,547
이천시	2	9,862	8,222	7,817	7,579
안성시	3	37,394	33,699	26,031	24,190
김포시	2	5,935	5,416	5,181	4,235
화성시	6	42,311	42,068	35,937	32,534
광주시	2	7,898	6,933	6,058	5,281
양주시	1	5,281	9,894	13,613	13,310
포천시	2	20,306	13,322	13,067	12,928
여주시	1	-	9,185	7,814	6,716
양평군	1	9,191	-	-	-

주 1 : 대학교는 일반대, 전문대, 교육대, 산업대를 포함함(분교 제외)

주 2 : 여주시 2010년 자료는 당시 여주군으로 분류·집계되었던 내용임

자료 : 통계청(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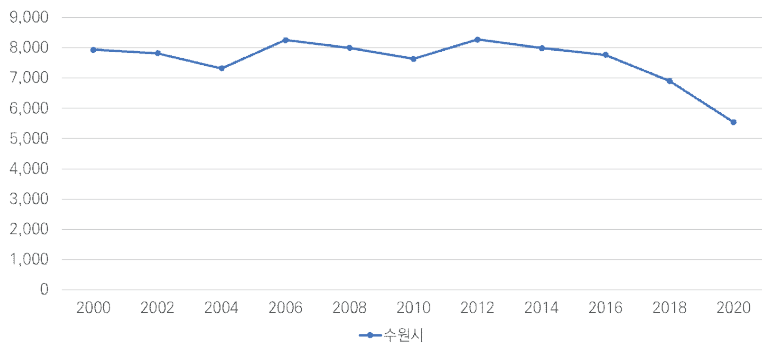
2. 결혼 및 고용 현황

1) 혼인 건수

- 수원시 2020년 혼인 건수는 5,539건으로 2019년 대비 -8.1% 감소함
 - 최근 들어 혼인 건수는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혼인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증가함

〈그림 3-6〉 수원시 혼인건수 변화(2000~2020)

(단위 : 건)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표 3-12〉 수원시 혼인건수 변화(2000~2020)

(단위 : 건)

연도	전국	경기도	수원시
2000	332,090	69,160	7,935
2002	304,877	68,330	7,820
2004	308,598	70,236	7,318
2006	330,634	77,231	8,251
2008	327,715	78,004	7,997
2010	326,104	78,471	7,632
2012	327,073	79,449	8,277
2014	305,507	74,306	7,986
2016	281,635	70,052	7,765
2018	257,622	66,877	6,902
2020	213,502	57,814	5,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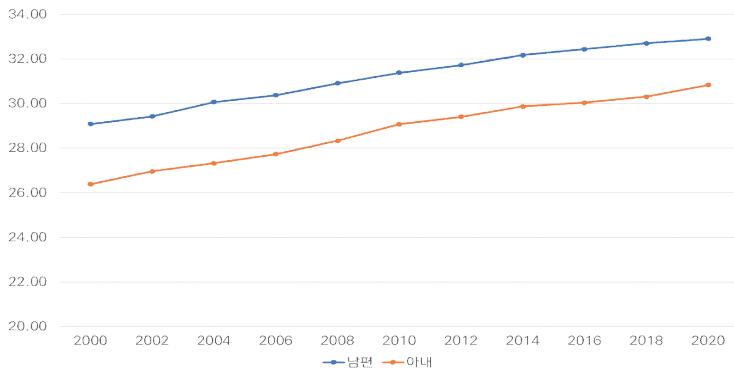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 평균 초혼연령

- 수원시 2020년 평균 초혼연령은 남편 32.9세, 아내 30.83세로 나타남
 - 수원시 평균 초혼연령은 2000년 남편 29.08세, 아내 26.38세에서 2022년까지 각각 3.82세, 4.45세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3-7〉 수원시 평균 초혼연령 변화(2000~2020)

(단위 : 세)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표 3-13〉 수원시 평균 초혼연령 변화(2000~2020)

(단위 : 세)

연도	전국		경기도		수원시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2000	29.28	26.49	29.29	26.51	29.08	26.38
2002	29.77	27.01	29.76	27.02	29.42	26.96
2004	30.53	27.52	30.47	27.56	30.07	27.32
2006	30.96	27.79	30.78	28.00	30.37	27.73
2008	31.38	28.32	31.30	28.56	30.91	28.33
2010	31.84	28.91	31.84	29.25	31.38	29.07
2012	32.13	29.41	32.13	29.59	31.72	29.41
2014	32.42	29.81	32.42	29.89	32.17	29.87
2016	32.79	30.11	32.77	30.21	32.44	30.04
2018	33.15	30.40	33.10	30.52	32.70	30.31
2020	33.23	30.78	33.19	30.83	32.90	30.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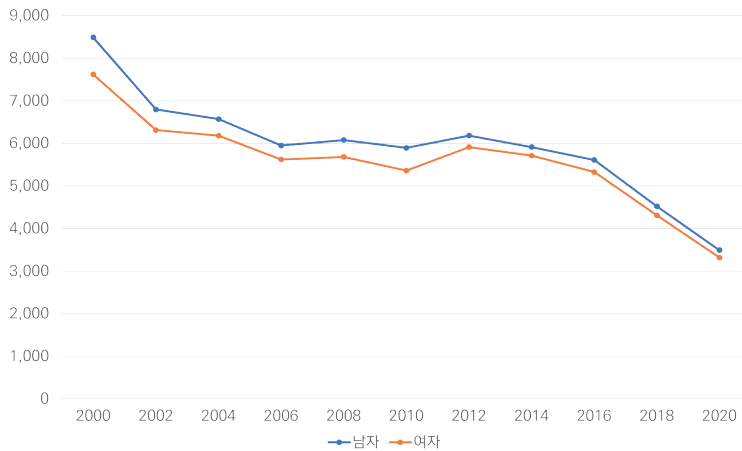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3) 출생아 수

- 수원시 2020년 출생아 수는 총 6,814명이고,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3,494명, 여자 3,320명이 출생함
- 수원시 출생아수는 2000년 16,111명에서 2020년 6,814명으로 약 1만 명 감소

〈그림 3-8〉 수원시 출생아 수 변화(2000~2020)

(단위 : 명)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표 3-14〉 수원시 출생아 수 변화(2000~2020)

(단위 : 명)

연도	전국			경기도			수원시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2000	335,433	304,656	640,089	74,021	67,683	141,704	8,490	7,621	16,111
2002	260,228	236,683	496,911	60,856	55,998	116,854	6,797	6,314	13,111
2004	247,835	229,123	476,958	60,853	56,959	117,812	6,572	6,181	12,753
2006	234,110	217,649	451,759	59,525	55,586	115,111	5,951	5,622	11,573
2008	240,119	225,773	465,892	61,380	58,017	119,397	6,079	5,684	11,763
2010	242,901	227,270	470,171	62,728	59,025	121,753	5,894	5,360	11,254
2012	248,958	235,592	484,550	64,072	60,674	124,746	6,183	5,915	12,098
2014	223,356	212,079	435,435	57,186	54,983	112,169	5,915	5,713	11,628
2016	208,064	198,179	406,243	54,070	51,573	105,643	5,611	5,329	10,940
2018	167,686	159,136	326,822	45,112	43,063	88,175	4,523	4,309	8,832
2020	139,362	132,975	272,337	39,623	38,114	77,737	3,494	3,320	6,814

주석 : 국내 거주 출생아 수만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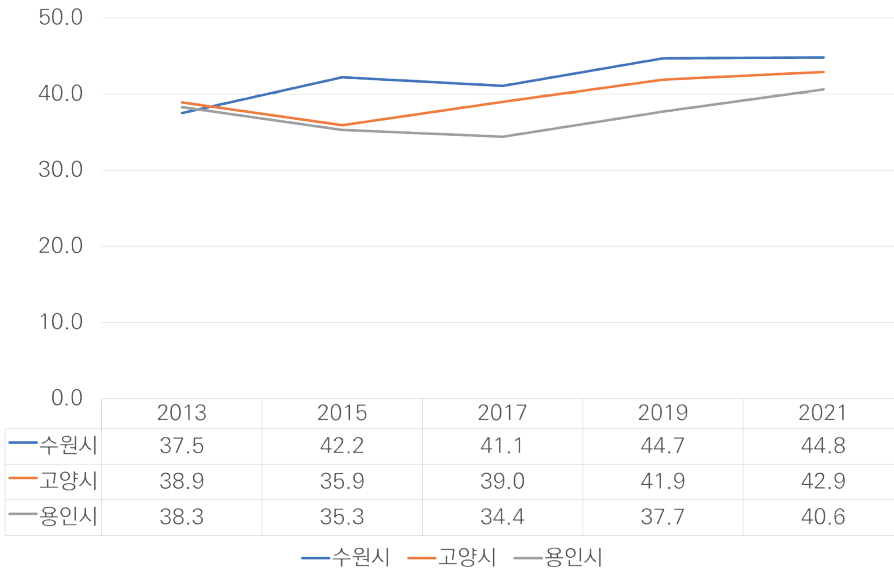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4) 청년고용률

- 2021년 전국 청년고용률(15~29세)⁸⁾은 45.1%로 나타남
 - 전국 시도별로 비교하면 서울특별시의 청년고용률이 51.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48.0%, 경기도 47.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세종특별자치시의 청년고용률 30.2%로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가장 낮았음
- 경기도 청년고용률은 47.3%이고, 수원시는 이보다 조금 낮은 44.8%로 나타남
 - 경기도 내에서 청년고용률이 높은 지역은 이천시(51.5%), 여주시(50.0%)였고, 청년고용률이 낮은 지역은 양평군(32.7%), 과천시(33.2%)였음
 - 수원시(44.8%)는 총 인구수가 비슷한 고양시(42.9%), 용인시(40.6%)와 비교하면 청년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3-9〉 수원시 청년고용률(2013~2021)

(단위 : %)



주석 : 해당 년도 2/2분기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8)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에 청년의 연령은 15~29세로 규정되어 있어 통상적으로 청년고용률 통계도 이 기준에 따라 자료를 집계·발표함

제2절 청년정책 현황

1. 조례

〈표 3-15〉 수원시 청년 관련 조례 현황

조례명	제정일(개정일)	관리책임부서
청년기본조례	2016.04.08.(2021.05.12.)	청년정책관
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	2016.04.08.(2021.11.05.)	청년정책관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2016.04.08.(2021.05.12.)	일자리정책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2016.09.28.(2021.05.12.)	청년정책관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18.04.02.(2021.05.12.)	청년정책관

1) 청년기본조례

- 관리책임부서 : 청년정책관
- 제정일(개정일) : 2016.04.08. (2021.05.12.)
- 목적 : 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
- 관련법 : 청년기본법
- 청년정의 : 19세 이상~34세 이하, 단, 개별 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 주요내용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수원시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 청년지원센터 운영, 청년권익증진 시책

2) 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

- 관리책임부서 : 청년정책관
- 제정일(개정일) : 2016.04.08. (2021.11.05.)
- 목적 : 수원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
- 관련법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청년정의 : 만 19세 이상~24세 이하
- 주요내용 :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급액 및 시행방법, 지급신청 및 지급 절차

3)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관리책임부서 : 일자리정책과
- 제정일(개정일) : 2016.04.08. (2021.05.12.)
- 목적 : 수원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기여함
- 관련법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청년정의 : 15세 이상~29세 이하, 단, 개별 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주요내용 :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실태조사, 추진·지원 사업,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청년고용확대

4)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관리책임부서 : 청년정책관
- 제정일(개정일) : 2016.09.28. (2021.05.12.)
- 목적 : 수원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고, 고등교육기관에 진학을 촉진하기 위함
- 관련법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청년정의 :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으로서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주요내용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의 수립, 대상 및 지원, 업무의 위탁, 심의위원회 설치, 중복지원 금지 및 지급중지

5)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관리책임부서 : 청년정책관
- 제정일(개정일) : 2018.04.02. (2021.05.12.)
- 목적 : 수원 소재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퇴소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함
- 관련법 :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 청년정의 : 만 18세 이상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퇴소청년'의정의)
- 주요내용 : 보호기간 연장, 청년자립지원협의회 설치 및 협의회 구성

2. 조직 및 인력

1) 수원시 청년정책관

- 수원시 청년정책관은 1담당관 2팀으로, 정원 9명에 현원 9명으로 구성
- 각 팀별 업무 분배는 다음과 같음
 - 청년정책팀 : 기본(실행)계획 수립, 정책 및 지원사업 발굴 시행,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청년협의체 구성·운영, 청년기본소득 지급
 - 청년지원팀 : 청년문화·소통 공간 조성, 수원청년지원센터 운영·관리, 관련 공모사업

〈표 3-16〉 수원시 청년정책관 인력 현황

구분	계	일반직							기타
		소계	2~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시간선택
청년정책관	9/9	9/9	-	1/1	2/2	2/3	2/1	2/2	1

자료 : 수원시(2022년 1월 기준)

2) 수원시청년지원센터, 청년바람지대

- 수원시청년지원센터 청년바람지대는 수원도시재단 소속으로 1센터 6명 근무하며 업무 분배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청년바람지대 개방 공간은 지하 1층 모여모여실, 지상 2층 세상을 바꾸는 재료방 등이 있으며 사전 예약 후에 사용 가능

〈표 3-17〉 수원시청년지원센터 업무 구분

구분	담당 업무
센터장	청년지원센터 업무 총괄
차장	일자리 진입지원(청년학교), 청년생활안정 지원(사회초년생 역량강화),
대리	청년공동체 참여 및 권리 증진(포럼워크숍), 대외협력사업
대리	청년지원센터 운영(예산, 회계, 차량관리 등)청년생활안정(물품대여)역량강화 및 문화지원(전시회, 프리마켓 등)
주임	청년공동체 참여 및 권리 증진(공모사업), 역량강화 및 문화여가지원
주임	일자리 진입지원(진로설계), 청년공동체 참여 및 권리 증진(공모사업), 청년생활안정(고민상담소),

3. 정책 사업

1) 청년정책방향

(1) 2017년, 수원시 청년정책의 방향 설정

- 비전 : 수원 청년 움(WU:M) 트다 - 시민과 함께 만드는 청년도시 희망 수원
 - With you : 청년과 함께
 - Understanding youth : 청년을 이해하고
 - nor Meddle : 간섭하지 않는
- 4대 추진 전략 : 청년다움, 발돋움, 비움채움, 즐거움
 - 청년다움 : 청년 권리 보장 및 인권보호, 사회적 이동성이 높은 탄탄한 사회구현
 - 발돋움 : 청년들이 자유로운 열정과 끼 발산, 꿈과 비전을 실현하는 사회관계망 형성
 - 비움채움 : 안정된 청년 자립기반 강화, 효율성 있는 맞춤형 청년주거 지원
 - 즐거움 : 청년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소통과 교류 강화 및 청년 네트워크 확대
- 단계별 주요 계획
 - 2016년(영역 다변화) : 초기 인프라 구축, 청년정책 이슈 대응, 시민 의식 계몽
 - 2017년(선택과 집중) : 삶의 안정 역량 결집, 단계적 청년정책, 청년+시민공동체
 - 미래(희망과 결실) : 청년다움, 발돋움, 비움채움, 즐거움의 실현

(2) 2021년, 중앙정부 청년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정책의 재구성

- 비전 : 청년! 신나고 호감가는 더 큰 수원
- 정책목표 : 수원 청년 움(WU:M) 트다 - 시민과 함께 만드는 청년도시 희망 수원
- 전략과제 :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 일자리 : 청년 취업역량 및 구직활동 지원 강화와 일자리 확충
 - 주거 : 청년 맞춤형 주거, 금융 지원을 통한 안정된 삶 기반 조성
 - 교육 : 교육기회 확대 및 청년 인재 양성을 통한 미래 역량 강화
 - 복지·문화 : 안정적 생활 영위와 일상 속 문화 향유
 - 참여·권리 : 청년의 사회참여 생태계 조성 등 참여 및 권리 보장
- 수원시 청년정책 추진방향
 - 일자리, 주거, 건강과 문화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지원정책
 - 지역에서 행복을 찾고, 도전하며, 안정된 자립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 청년의 수요와 필요에 기반한 청년주도 정책 추진 체계 확립

2) 분야별 추진사업 현황(2021)

■ 일자리(11개)

〈표 3-18〉 수원시 청년정책 추진 사업-일자리 분야(2021)

사업명	사업 목표 및 내용
면접정장 무료대여 「청나래」운영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하여 구직 비용 부담경감과 사회진출의 편의 도모
취업준비청년 교통비 지원 「청년교통카드」	취업준비 청년의 생활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수원 청년 내일로 사업)	수원시 청년이 관내기업에서 일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관내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지역 기반의 청년 일자리 발굴
수원시 대·소규모 일자리박람회	계층별 규모별 맞춤형 채용행사 개최로 구인기업에게는 적합한 인재 채용의 기회를 구직자에게는 면접의 기회를 제공하여 고용 창출 제고 기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근무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 및 대기업과의 격차 해소를 위한 채용장려금 지원
대학생 인턴사업	예비 취업준비생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정 현장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적성 탐색과 취업준비를 지원
해외 취업 프로그램 운영(K-move스쿨)	고학력 미취업 청년층 글로벌 IT인재육성을 통한 일본 IT기업 취업연계
해외 취업 프로그램 운영 (청년해외취업희망드림 아카데미)	고학력 미취업 청년층 글로벌 인재육성을 통한 해외취업 기회제공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는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
한·중 청년 창업포럼 개최	한 중 청년의 공동 관심사인 일자리 창업 등에 대한 공감대 조성 및 교류 증진과 상생 발전 도모
열정페이(임금체불) 근절대책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캠페인 전개 및 상담 노동교육 실시로 청년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노동복지 향상 및 삶의 질 향상

자료 : 수원시

■ 주거(5개)

〈표 3-19〉 수원시 청년정책 추진 사업-주거 분야(2021)

사업명	사업 목표 및 내용
수원청년 마을사랑방 운영	청년 예비 창업기업 자 들의 사무용 공간 지원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가구원(중위소득 45% 이하) 중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대 미혼 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
청년 월세 지원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주거수준 향상으로 생활안정 및 인구 유입 유도
신규공무원 생활관 지원	신규공무원 주거 안정화를 위한 생활관 지원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청년특구조성	도시재생 사업지 내 청년문화 프로그램 및 청년활력랩을 운영

자료 : 수원시

■ 교육(6개)

〈표 3-20〉 수원시 청년정책 추진 사업-교육 분야(2021)

사업명	사업 목표 및 내용
대학생 장학금 지원	수원 대학생들의 학업 증진을 위한 장학금 지원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학자금 대출을 받은 수원 대학생들의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이자상환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 경감
청년 UP클라우드	청년 기업 대학 간 네트워크를 통한 초연결 시대 동반성장 모색
청년 아이디어톤 대회	관-학 연계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의 시각에서 비춰지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 및 정책 제안
NCS 인적성 프로그램	국가직무능력표준 강의를 제공하여 직무 능력 향상 및 취업 역량 강화

자료 : 수원시

■ 복지 및 문화(14개)

〈표 3-21〉 수원시 청년정책 추진 사업-복지 및 문화 분야(2021)

사업명	사업 목표 및 내용
청년희망키움통장	일하는 청년 생계수급자의 가처분 소득 감소 없이 근로인센티브형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자립 및 자활 지원
청년저축계좌	일하는 주거·교육급여수급 및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
청년의 마음을 돌보는 마음건강상담실 운영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함께하는 내소상담실 운영, 전문의와 함께 하는 열린 상담실 및 온라인 카카오톡 플러스를 통한 상담 진행
청년 마인드링크	최근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청년들의 심리 정서 문제에 조기개입 적절한 치료 서비스 제공(1인 36만원/연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비 등 지원)
청년고민상담소	취업난 등 여러 문제로 인한 청년의 심리를 치유하고 생활안정 도모
보호종료청년 자립수당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 수당 지급
보호종료청년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주거가 불안정한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들의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여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청년기본소득 지급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연 100만원 지급(분기별 25만원)
슬기로운 자취생활(1인 가구)	1인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탐지기 전동드릴 등 대여
청년의 날 축하행사	수원시 청년 간 소통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진행
사회초년생 스킬업 프로그램	사회초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재무 주거 등 다양한 강좌 운영
수원청년터전(展)	청년 예술인을 대상으로 전시 기회 제공 및 예술 역량 강화
대학생 문화기획단 (문화센터, 지역센터)	청소년 및 청년 주도의 기획 활동과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및 청소년을 대표하는 문화기획자 양성 및 활동 지원

자료 : 수원시

■ 참여 및 권리(14개)

〈표 3-22〉 수원시 청년정책 추진 사업-참여 및 권리 분야(2021)

사업명	사업 목표 및 내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수원시가 수립한 청년정책 실행계획을 심의·조정·의결하는 위원회 운영
청년협의체 운영	수원시에서는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제안, 청년정책 모니터링 등 다양한 청년활동 지원
청년정책 실행계획 수립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된 제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실행계획 수립
각 지역구 청년정책(각 1개)	각 구별(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청년 지원 정책 수행
청년정책 온라인 플랫폼 운영	청년이 접근하기 용이한 청년정책 홈페이지 유지관리
오프라인 청년공간 운영(청년바람지대, 청누리)	청년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공간 여건 조성 및 대관 운영
청년활동 공모사업 (소소한 일상, 거창한 상상)	청년 소모임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청년 공동체 활성화
청년과 함께하는 성과보고회 워크숍	청년들과 함께 한해의 사업 결과를 돌아보며 개선 및 발전 방향 논의
대학생 서포터즈 (권선청소년수련관, 천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활동 멘토링과 프로그램 지원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으로 청소년과의 협업 증진 및 예비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역량 강화
한중 대학생 문화교류	민간교류활동을 통해 양국 청년인재들의 우호 증진 (2020, 2021년 코로나로 인한 사업 미운영)

자료 : 수원시

3) 역대 추진사업 변화(2018~2020)

〈표 3-23〉 수원시 역대 청년정책 추진사업(2018)

구분	2018
일자리	취업준비청년 면접정장 대여 사업 미취업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JOB 아 YOU 일자리 박람회 대학생 인턴 및 수원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해외취업 프로그램 운영 열정페이(임금체불) 근절대책 청년창업 푸드트럭 사업추진 세대융합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 청년 장애인 1:1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 수원 창업아이디어 오디션 도서관에서 찾는 미래 그리고 내~일(JOB)
주거	수원청년 마을사랑방 운영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청년특구 조성 「수원의 宿」 장학관 운영
교육	2018년도 대학생 장학금 지원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학교밖 청년 맞춤형 영상 교육 2018 수원청년 아카데미
복지 · 문화	청년의 마음을 돌보는 마음건강상담실 운영 이주배경(다문화)청년 기술력 향상 및 전문가 양성 함께 만드는 청년밥상 수원 청년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 · 권리	청년이 참여하는 「소통과 협치」 장안 청년자문단 운영 『(가칭)권선 청년정책단』 구성 및 운영 팔달구 청년 창의지기 구성운영 영(Young)통 '청년씨앗' 추진단 운영 청년공간 '청년바람지대' 활성화 수원화성문화제 시민추진위원회 참여 찾아가는 「청년 무료 인권·법률 상담」 2018 수원한국지역도서전 청년기획자 운영

〈표 3-24〉 수원시 역대 청년정책 추진사업(2019)

구분	2019
일자리	면접정장 무료대여 「청나래」운영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청년교통카드」 수원 청년 내일로 사업 수원시 대·소규모 일자리 박람회 수원형 청년내일채움공제 대학생 인턴사업 청년 해외취업 프로그램 운영 한·중 청년 포럼 열정페이(임금체불) 근절대책 청년창업 푸드트럭 사업추진 세대융합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 청년 장애인 1:1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 수원 창업 오디션
주거	수원청년 마을사랑방 운영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청년특구 조성 「수원의 宿」 장학관 운영
교육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학교밖 청년 맞춤형 영상 교육 청년학교
복지 · 문화	청년이 참여하는 「소통과 협치」 장안 청년자문단 운영 『(가칭)권선 청년정책단』 구성 및 운영 팔달구 청년 창의지기 구성·운영 영(Young)통 '청년씨앗' 추진단 운영 청년공간 '청년바람지대' 활성화 수원화성문화제 시민추진위원회 참여 찾아가는 「청년 무료 인권·법률 상담」 2018 수원한국지역도서전 청년기획자 운영
참여 · 권리	수원청년네트워크 장안구 청년정책(청년과 함께하는 장안구 만들기) 권선구 청년정책(권선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팔달구 청년정책(청년, 희망을 노래하다) 영통구 청년정책(영통 청년씨앗단 운영) 온라인플랫폼 활성화 청년스럽게~ '청년바람지대' 청년활동지원 공모사업 통합 홍보 및 홍보 서포터즈 운영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 청년 참여

〈표 3-25〉 수원시 역대 청년정책 추진사업(2020)

구분	2020
일자리	면접정장 무료대여 「청나래」운영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청년교통카드」 수원 청년 내일로 사업 수원시 대·소규모 일자리 박람회 수원형 청년내일채움공제 대학생 인턴사업 청년 해외취업 프로그램 운영 한·중 청년 포럼 열정페이(임금체불) 근절대책 청년창업 푸드트럭 사업추진 초기창업패키지 운영사업 청년 장애인 1:1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
주거	수원청년 마을사랑방 운영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청년특구 조성 「수원의 宿」 장학관 운영
교육	대학생 장학금 지원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UP클라우드 수원 대학생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 방문 학교밖 청년 맞춤형 영상 교육 청년학교
복지 · 문화	청년의 마음을 돌보는 마음건강상담실 운영 청년기본소득 이주배경(다문화)청년 기술력 향상 및 전문가 양성 슬기로운 자취생활 수원청년터전 대학생 문화기획단 [틈] 수원청년축제 청년! 공유 경험 심화 프로젝트 수원큐어(고민상담 프로그램)
참여 · 권리	장안구 청년정책(청년과 함께하는 장안구 만들기) 권선구 청년정책(밀리네얼 정책자문단 운영) 팔달구 청년정책(공공job 체험교실 운영) 영통구 청년정책(배움 그리고 채움, 영통 청년씨앗단 운영) 온라인플랫폼 활성화 청년스럽게~ '청년바람지대' 청년활동지원 공모사업 권선청소년수련관 대학생 서포터즈 'Y.E.S' 천천청소년문화의집 대학생 서포터즈 한중 대학생 문화교류 통합 홍보 및 홍보 서포터즈 운영 매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청년기살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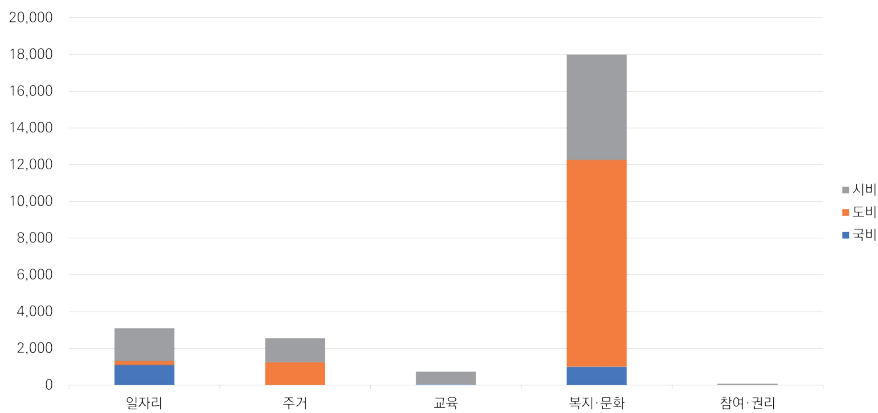
4. 예산

1) 분야별

- 수원시 청년정책 예산은 24,522백 만 원으로 수원시 예산의 약 1%에 해당함
 - 국비 2,160백 만 원, 도비 12,737백 만 원, 시비 9,625백 만 원으로 구성됨
- 분야별로는 복지·문화 분야 예산이 18,017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61.6%인 11,111백 만 원이 도비를 통한 청년기본소득지급 사업에 사용됨

〈그림 3-10〉 수원시 청년정책 분야별 예산(2021)

(단위 : 백만 원)



자료 : 수원시

〈표 3-26〉 수원시 청년정책 분야별 사업 및 예산

(단위 : 개, 백만 원)

분야	사업수	2021년 예산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총계	51	24,522	2,160	12,737	9,625	수원시 전체 예산의 약 1%
일자리	11	3,101	1,105	216	1,780	
주거	5	2,561	5	1,251	1,305	
교육	6	753	47		706	재단수입 일부포함
복지·문화	15	18,017	1,003	11,270	5,744	
참여·권리	14	90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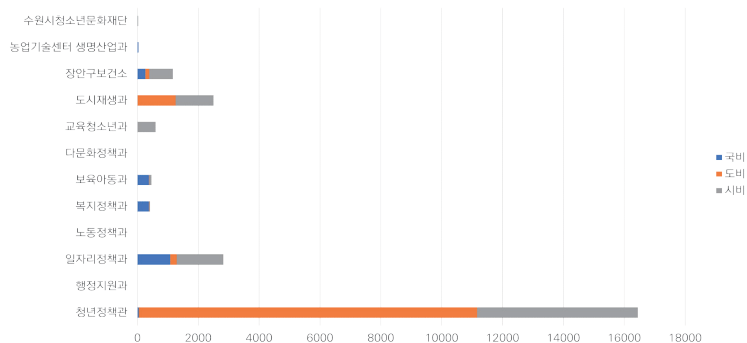
자료 : 수원시

2) 부서별

- 2021년 수원시에서는 7개 부서에서 42개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함
- 부서별 예산은 청년정책관이 16,451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나, 이 가운데 도비가 11,111백 만 원(67.5%)으로 가장 많았고, 시비 5,293백 만 원(32.2%), 국비 47백만 원(0.3%)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 3-11〉 수원시 청년정책 부서별 예산(2021)

(단위 : 백만 원)



자료 : 수원시

〈표 4-27〉 수원시 청년정책 부서별 사업 및 예산(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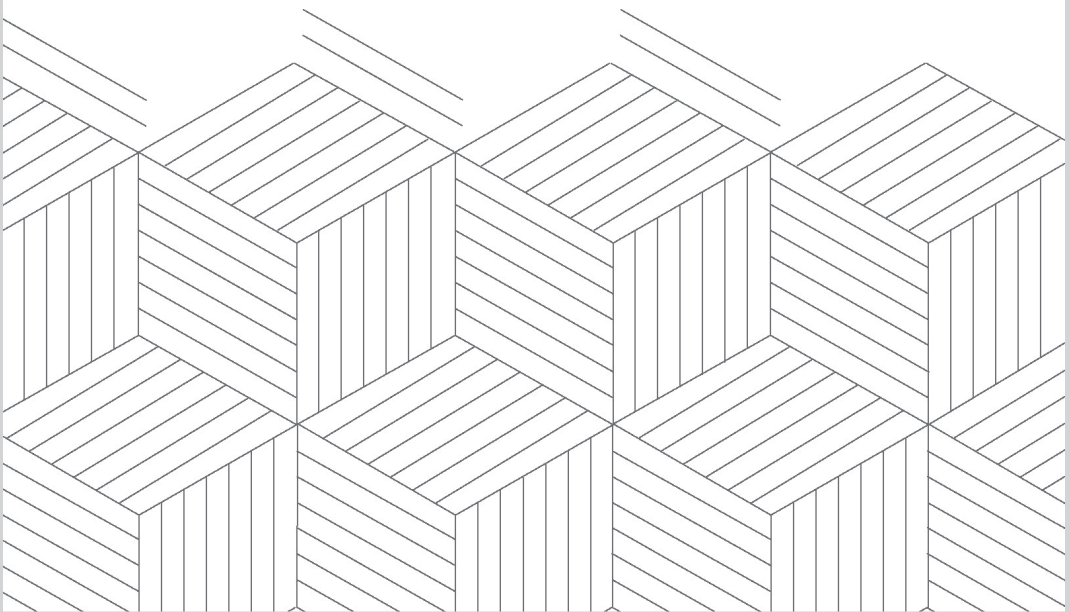
(단위 : 개, 백만 원)

분야	사업수	2021년 예산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총계	51	24,522	2,160	12,737	9,625	
청년정책관	22	16,451	47	11,111	5,293	
행정지원과	1	5			5	
일자리정책과	6	2,830	1,075	216	1,539	
노동정책과	1	3			3	
복지정책과	2	416	374	13	29	
보육아동과	1	468	374	14	80	
다문화정책과	1					법인후원금 운영
교육청소년과	1	600			600	재단수입 일부 포함
도시재생과	4	2,506	5	1,251	1,250	
장안구보건소	2	1,168	255	132	781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1	43	30		13	
장안/권선/팔달/영통 행정지원과	4 (각 1개)					비예산 사업
수원시청소년문화재단	5	32			32	

자료 : 수원시

제4장 수원시 청년 의견 수렴

제1절 수원시 청년정책 수요 설문조사
제2절 수원시 청년 연령대별 FGI



제4장 수원시 청년 의견 수렴

제1절 수원시 청년정책 수요 설문조사

1. 조사개요

- 조사명 : 수원시 청년정책 수요조사
- 조사대상 : 수원시 거주 만 19~39세 청년
- 조사기간 : 2021.12.3.~2021.12.5. / 2022.1.21~2022.2.4.(남성 응답자 추가 모집)
- 조사규모 : 총 622명
- 조사목적 : 수원시 청년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청년들의 인식과 정책 수요 파악
- 조사방법 : 수원시정연구원 패널 활용 및 수원시 청년협의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의 홍보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 설문내용 : 응답자 일반 특성, 코로나로 인한 변화,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

〈표 4-1〉 설문조사 문항

구분		설문내용
응답자 일반 특성		만 나이, 성별, 수원시 거주여부, 거주지역, 수원시 소재 직장/학교 재직/재학 여부, 직업, 최종 학력, 가구형태, 가구구성원, 혼인여부, 주택유형, 주택 점유 형태, 일자리 여부, 일자리 형태, 종사상지위, 개인 월 평균 소득, 생활비 마련 경로
코로나로 인한 변화		코로나로 일상생활 변화, 코로나 이후 삶에 대한 전망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	청년정책 일반	청년들이 겪는 사회적 어려움, 청년정책의 필요성, 분야별로 가장 필요한 청년정책(교육, 일자리, 주거, 생활·복지), 청년정책 정보습득경로, 청년기본계획에 대한 인지도
	수원시 정책	수원시 청년정책에 대한 태도, 수원시 청년공간 인지여부, 수원시 청년정책 사업 필요도, 수원시 청년정책사업 만족도, 수원시 청년정책이 주력할 분야(1,2위), 자유의견 ⁹⁾

9) 자유의견은 FGI 결과와 중복되어 별도의 항목으로 나열하지 않음

〈표 4-2〉 응답자 일반 현황

구분		사례수(명)	비율(%)
연령대 (만 나이)	19~24세	118	19.0
	25~29세	232	37.3
	30~34세	155	24.9
	35~39세	117	18.8
성별	남성	248	39.9
	여성	374	60.1
거주지	장안구	145	23.3
	권선구	172	27.7
	팔달구	120	19.3
	영통구	185	29.7
수원 소재 직장·학교 재직·재학 여부	예	415	66.7
	아니오	207	33.3
직업	기능직 및 생산직 근로자	26	4.2
	단순 노무자	3	0.5
	사무직, 공무원	223	35.9
	서비스직 종사자 및 판매, 영업직 종사자	107	17.2
	자영업	20	3.2
	전문직	42	6.8
	주부	24	3.9
	학생	111	17.8
	기타	66	10.6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1	5.0
	대학교 재학(휴학)	114	18.3
	대학교 졸업	421	67.7
	대학원 재학(휴학) 이상	56	9.0
혼인여부	기혼	195	31.4
	미혼	427	68.6
총계		622	100.0

2.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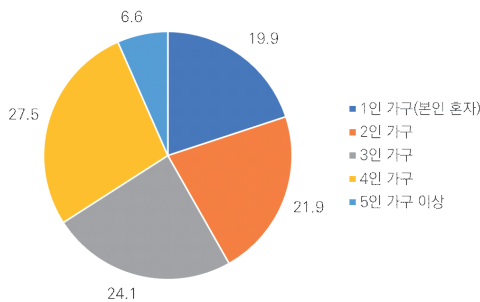
1) 응답자 특성

(1) 가구형태, 주택유형, 점유형태

- 응답자의 가구형태는 4인 가구(27.5%)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인 가구(24.1%), 2인 가구(21.9%), 1인 가구(19.9%), 5인 가구 이상(6.6%)의 순으로 나타남
- 주택유형은 아파트(56.3%), 다가구 및 연립다세대주택(24.6%), 오피스텔(13.3%), 단독주택(3.1%), 기타(1.3%), 고시원·고시텔(0.8%), 기숙사(0.6%)로 나타남
- 주택점유형태¹⁰⁾는 자가(47.1%), 전세(28.8%), 월세(23.6%), 무상(0.3%), 사글세·연세·일세(0.2%)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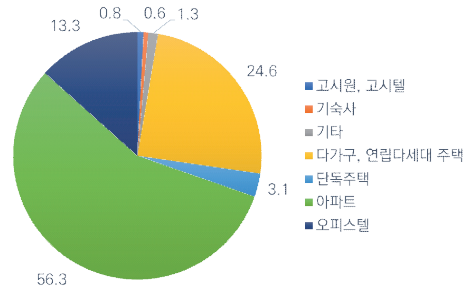
〈그림 4-1〉 응답자 가구형태

(단위 : %)



〈그림 4-2〉 응답자 주택유형

(단위 : %)



(2) 일자리 여부, 일자리 형태, 종사상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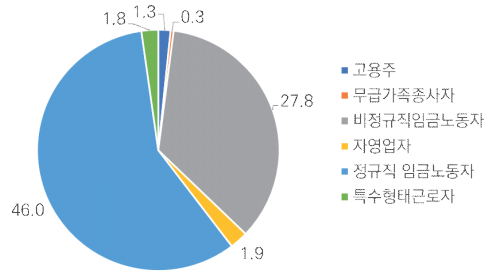
- 일자리¹¹⁾(직장·사업·아르바이트 포함) 종사여부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79.1%는 일자리가 있다고 하였고, 20.9%는 없다고 응답함
- 일자리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주된 일자리의 형태를 조사한 결과 민간회사 또는 사업체(58.8%), 공무원(5.0%),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기업(11.6%), 법인단체(1.0%), 외국계기업(0.6%) 등으로 나타남

10) 주택점유형태의 경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 집을 기준으로 응답함

11) 일자리(직장, 사업)는 고용되어 보수(임금)를 받고 일하는 임금근로자, 개인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 1주일에 18시간 이상 가족(친척)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로 정의함

- 일자리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한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는 정규직 임금근로자(46.0%)가 가장 많았으나, 그 외에 비정규직임금근로자(27.8%), 자영업자(1.9%), 특수형태근로자(1.8%) 등의 비율도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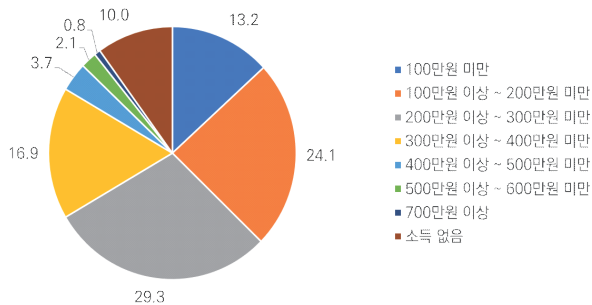
〈그림 4-3〉 응답자 일자리 종사상지위 (단위 : %)



(3) 개인 월 평균 소득, 생활비 마련 경로

- 응답자 개인의 월 평균 소득¹²⁾은 100만 원 미만(13.2%),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24.1%),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29.3%),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16.9%),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3.7%), 500만 원 이상~600만 원 미만(2.1%), 700만원 이상(0.8%) 등이며, 반면 개인 소득이 없다고 응답 사람의 비율은 10.0%로 나타남
- 생활비 마련 경로(복수응답)로는 본인 급여(52.1%), 본인 급여+배우자 급여(12.4%), 본인 급여+부모님 지원(8.7%), 부모님 지원(8.7%), 배우자 급여(4.3%), 저축 등의 기존 재산 처분(1.9%) 등으로 나타남

〈그림 4-4〉 응답자 개인 월 평균 소득 (단위 : %)



12) 소득은 일이나 경제활동의 대가로 얻은 돈으로 정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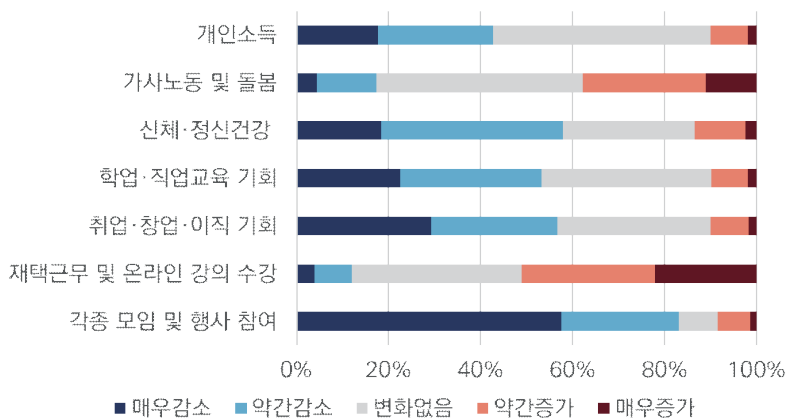
2) 코로나로 인한 변화

(1) 일상생활 변화

- 코로나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로 각종 모임 및 행사참여의 감소하였다는 응답이 83.2%로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남
- 부정적 변화율이 높은 항목으로는 신체 및 정신 건강의 악화(57.8%), 취업·창업·이직 기회 감소(56.6%), 학업·직업교육 기회 감소(53.2%)가 있음
- 개인소득은 변화없음(47.4%), 감소(42.6%)의 비율이 높았으며, 가사노동 및 돌봄은 변화없음(44.9%), 증가(37.8%)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긍정적 변화율이 높은 항목은 재택근무 및 온라인 강의 수강은 증가(51.1%)가 있음

〈그림 4-5〉 코로나로 인한 일상생활 변화

(단위 : %)



〈표 4-3〉 코로나로 인한 일상생활 변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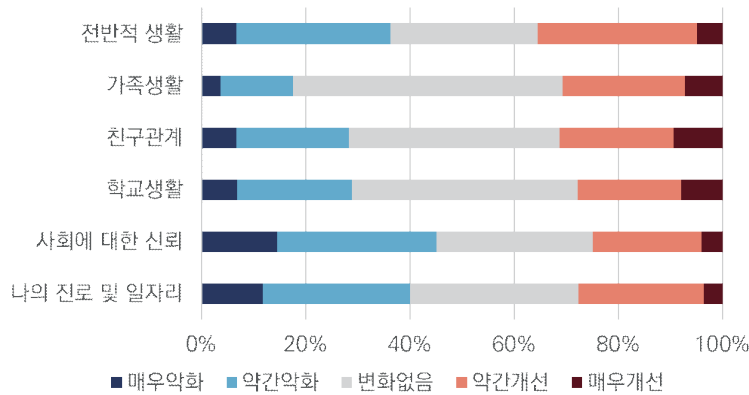
구분	매우감소	약간감소	변화없음	약간증가	매우증가
개인소득	17.7	24.9	47.4	8.0	1.9
가사노동 및 돌봄	4.3	13	44.9	26.7	11.1
신체·정신건강	18.3	39.5	28.6	11.1	2.4
학업·직업교육 기회	22.5	30.7	37.0	7.9	1.9
취업·창업·이직 기회	29.3	27.3	33.4	8.2	1.8
재택근무 및 온라인 강의 수강	3.9	8.0	37.0	28.9	22.2
각종 모임 및 행사 참여	57.6	25.6	8.4	7.1	1.4

(2) 코로나 이후 삶에 대한 전망

- 코로나 이후 삶에 대한 전망은 전반적 생활에 대해서는 악화 36.4%, 개선 35.5%, 변화없음 28.1%로 나타나 추후 상황에 대하여 반신반의 하는 모습을 보임
- 각 항목별로는 가족관계는 변화없음 51.8%, 개선 30.7% 등으로 응답하여 현재와 큰 차이가 없거나 좋아진다고 예상했으며, 친구관계와 학교생활도 가족관계 만큼은 아니지만 변화없거나 좋아진다고 답한 비율이 높음
- 반면 사회에 대한 신뢰 악화 45.2%, 나의 진로 및 일자리 악화 40.0%에 대해서는 악화 될 것으로 전망함

〈그림 4-6〉 코로나 이후 삶에 대한 전망

(단위 : %)



〈표 4-4〉 코로나 이후 삶에 대한 전망

(단위 : %)

구분	매우악화	약간악화	변화없음	약간개선	매우개선
전반적 생활	6.8	29.6	28.1	30.7	4.8
가족생활	3.7	13.8	51.8	23.5	7.2
친구관계	6.8	21.5	40.5	21.9	9.3
학교생활 ¹³⁾	6.9	22.0	43.2	19.9	7.9
사회에 대한 신뢰	14.5	30.7	29.9	20.9	4.0
나의 진로 및 일자리	11.7	28.3	32.3	24.1	3.5

13) 해당되는 항목이 없는 경우 '변화없음'을 선택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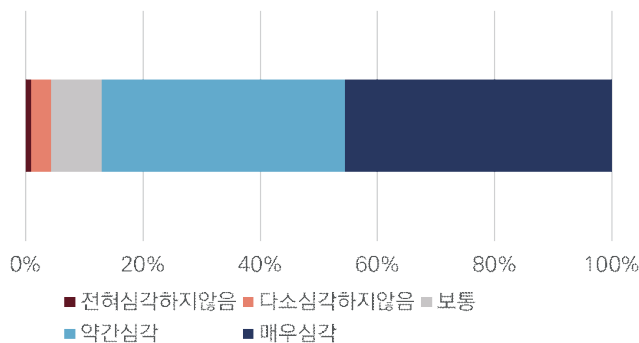
3)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 - 청년정책 일반

(1) 청년이 겪는 사회적 어려움, 청년정책의 필요성

- 응답자의 87.0%가 청년이 겪는 사회적 어려움 정도를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전혀심각하지 않음 6명(1.0%), 다소심각하지 않음 21명(3.4%), 보통 54명(8.7%), 약간심각 258명(41.5%), 매우심각 283명(45.5%)으로 나타남
- 또한 응답자의 86.0%가 청년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세부적으로는 전혀필요없음 9명(1.4%), 거의필요없음 20명(3.2%), 보통 58명(9.3%), 약간필요 237명(38.1%), 매우필요 298명(47.9%)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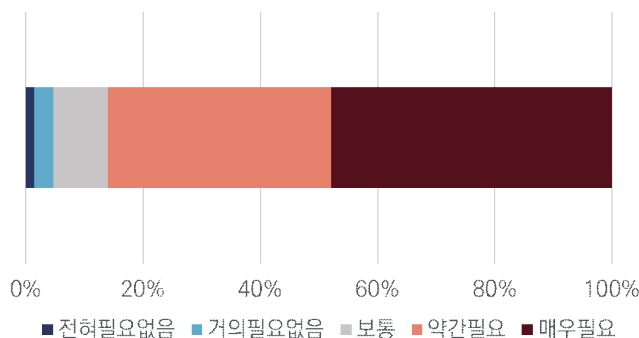
〈그림 4-7〉 청년이 겪는 사회적 어려움

(단위 : %)



〈그림 4-8〉 청년정책의 필요성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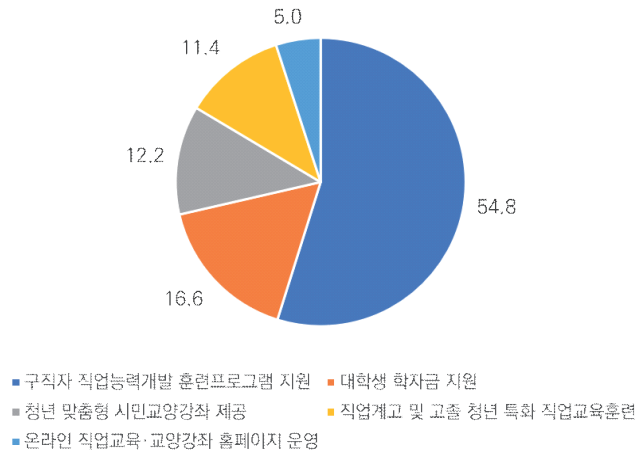


(2)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 - 교육 분야

-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 분야 정책은 구직자 직업능력 개발 훈련프로그램 지원 54.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그 다음으로는 대학생 학자금 지원 16.6%, 청년 맞춤형 시민교양강좌 제공 12.2%, 직업계고 및 고졸 청년 특화 직업교육훈련 11.4%, 온라인 직업교육 및 교양강좌 홈페이지운영 5.0%의 순서로 나타남

〈그림 4-9〉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교육 분야)

(단위 : %)



〈표 4-5〉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교육 분야) 연령구간별 비교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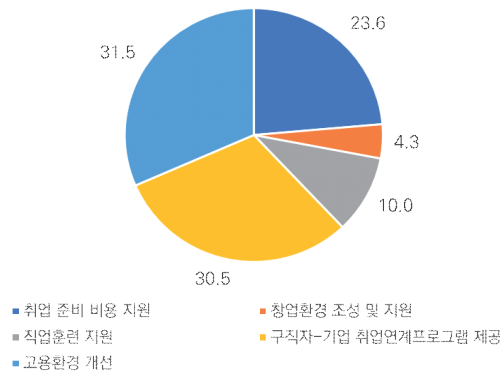
구분	19~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개수	연령 내%	개수	연령 내%	개수	연령 내%	개수	연령 내%
구직자 직업능력개발 훈련프로그램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업성공패키지 등)	61	51.7	144	62.1	77	49.7	59	50.4
대학생 학자금 지원 (국가장학금 등)	27	22.9	25	10.8	30	19.4	21	17.9
온라인 직업교육·교양강좌 홈페이지 운영 (대학공개강의 KOCW 등)	5	4.2	12	5.2	6	3.9	8	6.8
직업계고 및 고졸 청년 특화 직업교육훈련	8	6.8	26	11.2	23	14.8	14	12.0
청년 맞춤형 시민교양강좌 제공 (재테크, 노동인권, 인문학 강의 등)	17	14.4	25	10.8	19	12.3	15	12.8
총계	118	100.0	232	100.0	155	100.0	117	100.0

(3)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 - 일자리 분야

-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일자리 분야 정책으로는 고용환경 개선 31.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구직자·기업 취업연계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30.5%로 높게 나타남
 - 고용환경개선은 20대 보다는 30대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구직자·기업 취업연계프로그램 제공은 20대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았음
- 그 다음으로는 취업준비 비용 지원 23.6%, 창업환경 조성 및 지원 4.3%의 필요성에 대하여 응답함

〈그림 4-10〉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일자리 분야)

(단위 : %)



〈표 4-6〉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일자리 분야) 연령구간별 비교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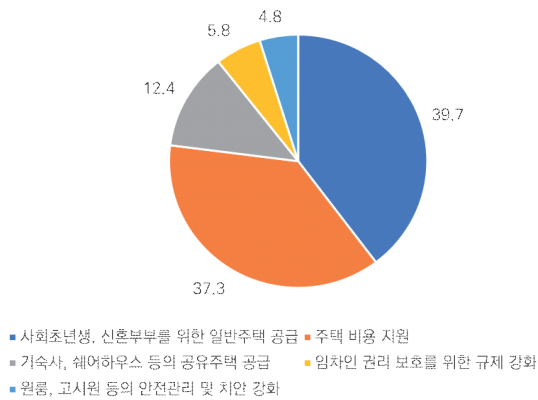
구분	19~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개수	연령 내%	개수	연령 내%	개수	연령 내%	개수	연령 내%
고용환경 개선 (근무환경 개선, 채용비리 근절 등)	32	27.1	61	26.3	55	35.5	48	41.0
구직자·기업 취업연계프로그램 제공 (직무캠프, 인턴십 프로그램 등)	40	33.9	79	34.1	43	27.7	28	23.9
직업훈련 지원 (직무 교육, 자격증 교육 등)	8	6.8	23	9.9	16	10.3	15	12.8
창업환경 조성 및 지원 (창업 자본조달, 사무실 임대 지원 등)	7	5.9	11	4.7	6	3.9	3	2.6
취업준비 비용 지원 (구직활동수당, 자격시험응시료, 면접비 등)	31	26.3	58	25.0	35	22.6	23	19.7
총계	118	100.0	232	100.0	155	100.0	117	100.0

(4)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 - 주거 분야

-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 분야 정책으로는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를 위한 일반주택 공급 39.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주택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37.3%로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는 기숙사 및 쉼어하우스 등의 공유주택 공급 12.4%,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5.8%, 원룸, 고시원 등의 안전관리 및 치안 강화 4.8%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11〉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주거 분야)

(단위 : %)



〈표 4-7〉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주거 분야) 연령구간별 비교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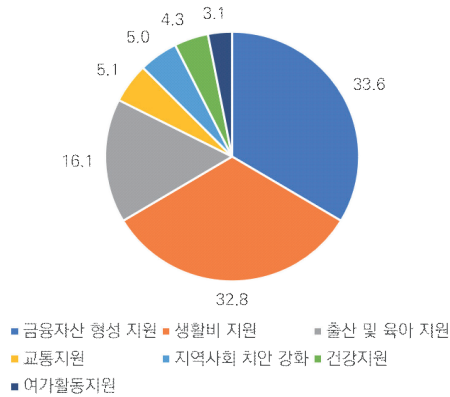
구분	19~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개수	연령 내%	개수	연령 내%	개수	연령 내%	개수	연령 내%
기숙사, 쉼어하우스 등의 공유주택 공급	21	17.8	24	10.3	18	11.6	14	12.0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위한 일반주택 공급	41	34.7	89	38.4	66	42.6	51	43.6
원룸, 고시원 등의 안전관리 및 치안 강화	7	5.9	10	4.3	7	4.5	6	5.1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6	5.1	11	4.7	6	3.9	13	11.1
주택 비용 지원 (월세 지원, 전세금/보증금 대출 및 이자 지원)	43	36.4	98	42.2	58	37.4	33	28.2
총계	118	100.0	232	100.0	155	100.0	117	100.0

(5)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 - 복지 및 생활 분야

-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 및 생활 분야 정책은 금융자산형성지원 33.6%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음
- 그 다음으로는 생활비 지원 32.8%, 출산 및 육아 지원 16.1%, 교통지원 5.1%, 지역사회 치안 강화 5.0%, 건강지원 4.3%, 여가활동지원 3.1%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12〉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복지 및 생활 분야)

(단위 : %)



〈표 4-8〉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복지 및 생활 분야) 연령구간별 비교

(단위 : 명, %)

구분	19~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개수	연령 내%	개수	연령 내%	개수	연령 내%	개수	연령 내%
건강지원 (심리상담, 신체단련 프로그램 등)	6	5.1	9	3.9	7	4.5	5	4.3
교통지원 (공공자전거, 교통비 지원 등)	12	10.2	8	3.4	9	5.8	3	2.6
금융자산 형성 지원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43	36.4	87	37.5	45	29.0	34	29.1
생활비 지원	50	42.4	83	35.8	45	29.0	26	22.2
여가활동지원 (공연·전시 관람료 지원 등)	0	0.0	12	5.2	6	3.9	1	0.9
지역사회 치안 강화 (가정폭력, 성폭력 등 범죄에 대한 대응)	2	1.7	13	5.6	8	5.2	8	6.8
출산 및 육아 지원	5	4.2	20	8.6	35	22.6	40	34.2
총계	118	100.0	232	100.0	155	100.0	11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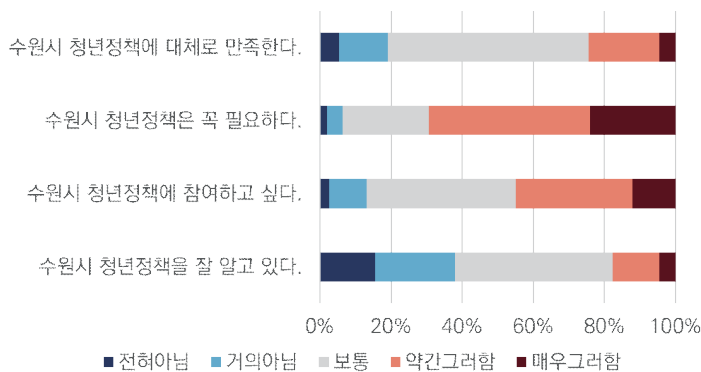
4)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 - 수원시 정책

(1) 수원시 청년정책에 대한 태도 및 청년공간 인지여부

- ‘수원시 청년정책에 대체로 만족한다’는 문항에 대하여 보통 56.4%, 긍정응답 24.5%, 부정응답 19.1%로 응답함
- 응답자의 69.4%가 수원시 청년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수원시 청년 정책 참여 의사에 대해서는 긍정응답 44.8%, 보통 42.0%, 부정응답 13.2%로 답함
- ‘수원시 청년정책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는 문항에 보통 44.4%, 부정응답 37.9%, 긍정응답 17.7%로 나타남
- 수원시 청년공간(청년바람지대, 청누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3.3%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함¹⁴⁾

〈그림 4-13〉 수원시 청년정책에 대한 태도

(단위 : %)



〈표 4-9〉 수원시 청년정책에 대한 태도

(단위 : %)

구분	전혀아님	거의아님	보통	약간그려함	매우그려함
수원시 청년정책에 대체로 만족한다.	5.3	13.8	56.4	19.8	4.7
수원시 청년정책은 꼭 필요하다.	1.9	4.5	24.1	45.3	24.1
수원시 청년정책에 참여하고 싶다.	2.6	10.6	42.0	32.6	12.2
수원시 청년정책을 잘 알고 있다.	15.4	22.5	44.4	13.0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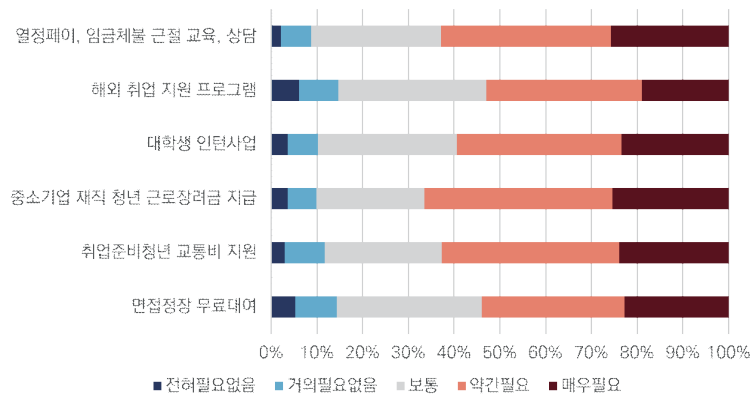
14) 설문조사 응답자 가운데 수원시 청년공간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수원시청년협의체, 수원시청년정책조정위원회 활동자가 포함되어 있어 자료 해석에 유의를 요함

(2) 수원시에서 시행중인 청년정책사업의 필요성 - 일자리 분야

- 수원시에서 시행중인 일자리 분야 청년정책 사업 가운데 수원형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 장려금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6.6%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4-14〉 수원시에서 시행중인 청년정책사업의 필요성(일자리 분야)

(단위 : %)



〈표 4-10〉 수원시에서 시행중인 청년정책사업의 필요성(일자리 분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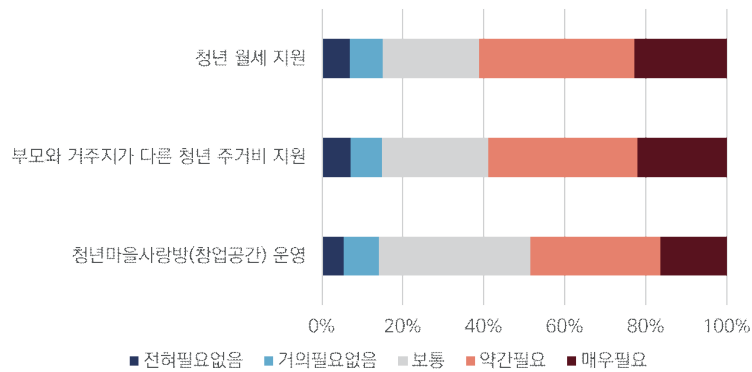
구분	전혀 필요없음	거의 필요없음	보통	약간 필요	매우 필요
열정페이, 임금체불 근절 교육, 상담	2.1	6.6	28.5	37.1	25.7
해외 취업 지원 프로그램	6.1	8.5	32.5	33.9	19
대학생 인턴사업	3.7	6.6	30.2	36	23.5
수원형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장려금 지급	3.7	6.1	23.6	41.2	25.4
취업준비청년 교통비 지원	2.9	8.8	25.6	38.7	24
면접정장 무료대여	5.3	9	31.7	31.2	22.8

(3) 수원시에서 시행중인 청년정책사업의 필요성 - 주거 분야

- 수원시에서 시행중인 주거 분야 청년정책 사업 가운데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6.6%로 가장 높았으며, 부모와 다거주지가 다른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의 필요성 또한 59% 긍정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4-15〉 수원시에서 시행중인 청년정책사업의 필요성(주거 분야)

(단위 : %)



〈표 4-11〉 수원시에서 시행중인 청년정책사업의 필요성(주거 분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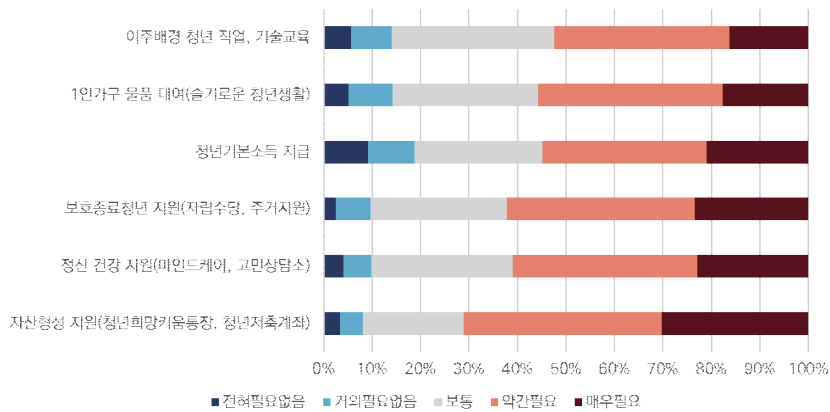
구분	전혀 필요없음	거의 필요없음	보통	약간 필요	매우 필요
청년마을사랑방(창업공간) 운영	5.5	8.5	37.5	32.2	16.4
부모와 거주지가 다른 청년 주거비 지원	7.1	7.7	26.2	37	22
청년 월세 지원	6.9	8	23.8	38.4	22.8

(4) 수원시에서 시행중인 청년정책사업의 필요성 - 복지·문화 분야

- 수원시에서 시행중인 복지·문화 분야 청년정책 사업 가운데 자산형성 지원(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사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1.0%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4-16〉 수원시에서 시행중인 청년정책사업의 필요성(복지·문화 분야)

(단위 : %)



〈표 4-12〉 수원시에서 시행중인 청년정책사업의 필요성(복지·문화 분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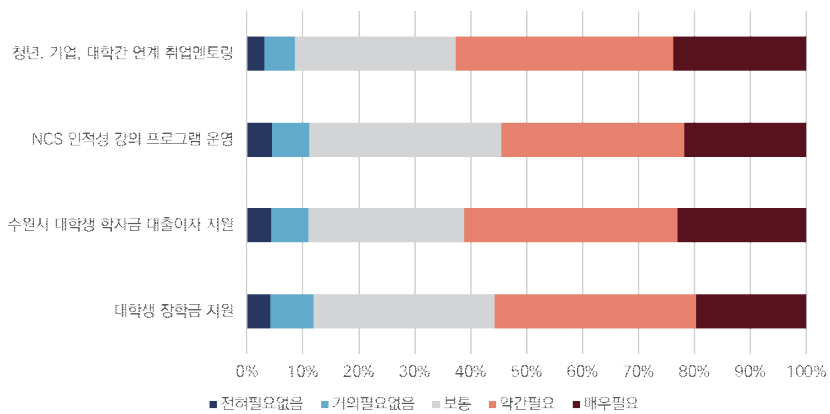
구분	전혀 필요없음	거의 필요없음	보통	약간 필요	매우 필요
자산형성 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3.4	4.7	20.9	40.8	30.2
정신 건강 지원 (마인드케어, 고민상담소)	4.2	5.6	29.3	37.9	23
보호종료청년 지원 (자립수당, 주거지원)	2.6	7.1	28.1	38.7	23.5
청년기본소득 지급	9.2	9.6	26.4	33.9	20.9
1인 가구 물품 대여 (슬기로운 청년생활)	5.1	9	30.1	38.1	17.7
이주배경 청년 직업, 기술교육	5.6	8.4	33.6	36.2	16.2

(5) 수원시에서 시행중인 청년정책사업의 필요성 - 교육 분야

- 수원시에서 시행중인 교육 분야 청년정책 사업 가운데 청년·기업·대학 간 연계 취업멘토링 사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2.7%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4-17> 수원시에서 시행중인 청년정책사업의 필요성(교육 분야)

(단위 : %)



<표 4-13> 수원시에서 시행중인 청년정책사업의 필요성(교육 분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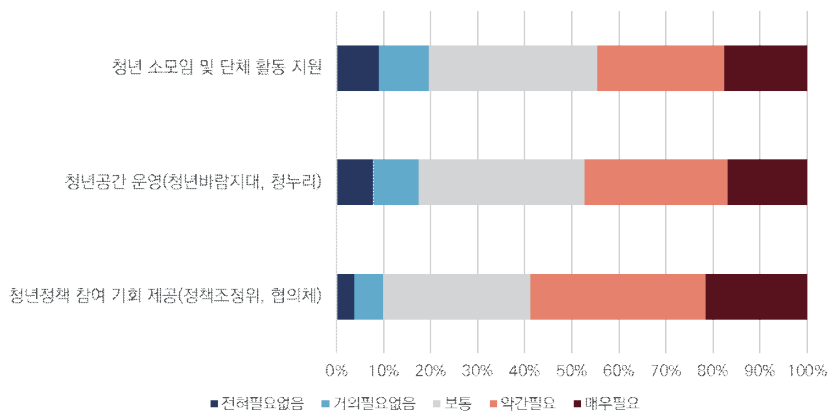
구분	전혀 필요없음	거의 필요없음	보통	약간 필요	매우 필요
대학생 장학금 지원	4.2	7.7	32.3	36.0	19.8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4.3	6.6	28.0	38.1	23.0
NCS 인적성 강의 프로그램 운영	4.5	6.6	34.4	32.6	21.9
청년, 기업, 대학간 연계 취업멘토링	3.1	5.5	28.8	38.9	23.8

(6) 수원시에서 시행중인 청년정책 사업의 필요성- 참여·권리 분야

- 수원시에서 시행중인 참여 및 권리 분야 청년정책 사업 가운데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 제공 사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8.8%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4-18〉 수원시에서 시행중인 청년정책사업의 필요성(참여·권리 분야)

(단위 : %)



〈표 4-14〉 수원시에서 시행중인 청년정책사업의 필요성(참여·권리 분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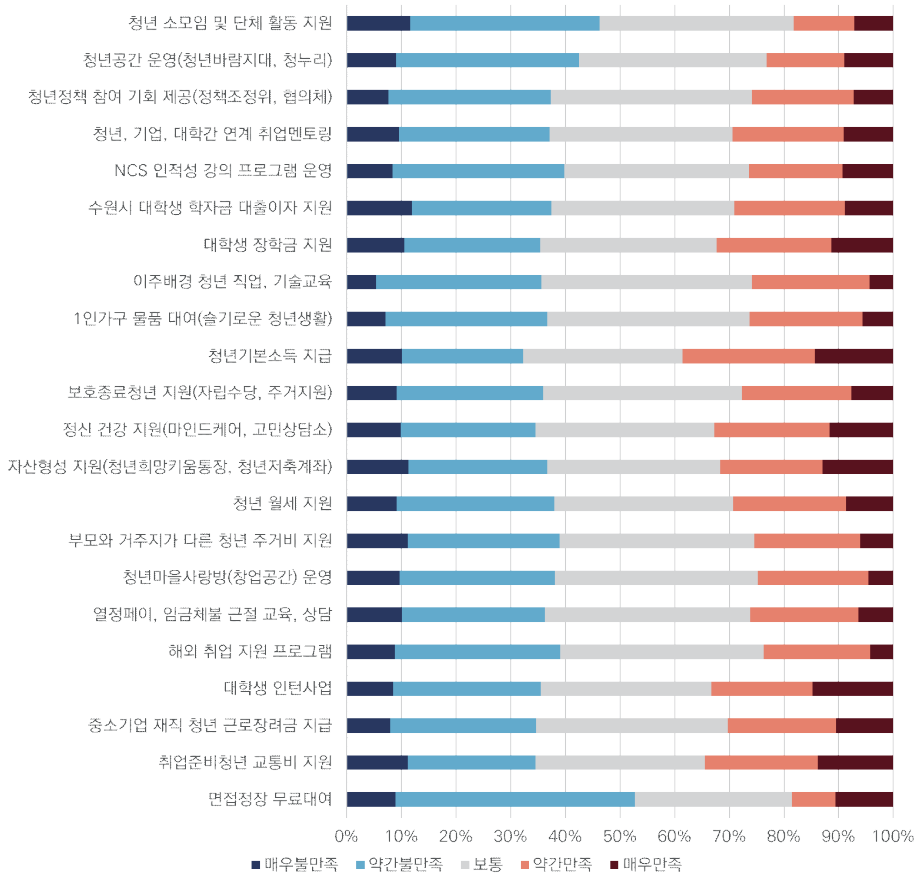
구분	전혀 필요없음	거의 필요없음	보통	약간 필요	매우 필요
청년정책 참여 기회 제공 (정책조정위원회, 협의체)	3.7	6.1	31.4	37.3	21.5
청년공간 운영 (청년바람지대, 청누리)	7.7	9.6	35.4	30.4	16.9
청년 소모임 및 단체 활동 지원	9.0	10.6	35.7	27.0	17.7

(7) 수원시 청년정책사업의 만족도

- 수원시에서 청년정책사업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청년기본소득 지급, 취업준비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등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사업은 면접정장 무료대여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 가운데 각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에 한하여 조사한 자료로 해석에 유의를 요함

〈그림 4-19〉 수원시에서 시행중인 청년정책사업의 만족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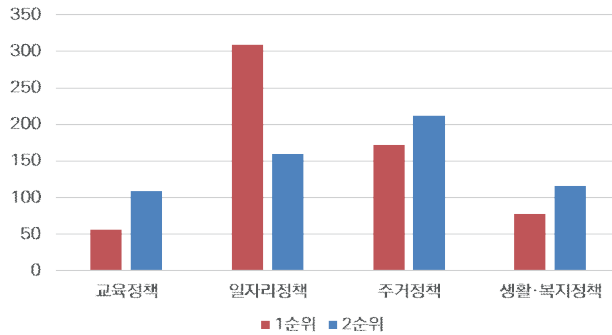
주석 : 각 사업별로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에 한하여 조사함

(8) 추후 수원시 청년정책이 주력할 분야

- 1순위 : 일자리정책 > 주거정책 > 생활·복지정책 > 교육정책
- 2순위 : 주거정책 > 일자리정책 > 생활·복지정책 > 교육정책

〈그림 4-20〉 추후 수원시 청년정책이 주력할 분야(1·2순위)

(단위 : 명)



〈표 4-15〉 추후 수원시 청년정책이 주력할 분야(1순위) 연령구간별 비교

(단위 : 명, %)

구분	19~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개수	연령 내%	개수	연령 내%	개수	연령 내%	개수	연령 내%
교육정책	8	6.8	21	9.1	14	9.1	13	11.2
일자리정책	65	55.6	112	48.9	70	45.8	62	53.4
주거정책	27	23.1	71	31.0	51	33.3	23	19.8
생활·복지정책	17	14.5	25	10.9	18	11.8	18	15.5
총계	117	100.0	229	100.0	153	100.0	116	100.0

주석 : 전체 응답자 622명 가운데 무응답자(7명) 제외

〈표 4-16〉 추후 수원시 청년정책이 주력할 분야(2순위) 연령구간별 비교

(단위 : 명, %)

구분	19~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개수	연령 내%	개수	연령 내%	개수	연령 내%	개수	연령 내%
교육정책	18	15.7	61	27.1	16	11.0	14	12.5
일자리정책	30	26.1	55	24.4	46	31.7	29	26.0
주거정책	49	42.6	72	32.0	46	31.7	45	40.2
생활·복지정책	18	15.7	37	16.4	37	25.5	24	21.4
총계	115	100.0	225	100.0	145	100.0	112	100.0

주석 : 전체 응답자 622명 가운데 무응답자(25명) 제외

제2절 청년 연령대별 FGI

1. 조사개요

- 조사 목적 : 설문조사 결과로 파악하기 어려운 수원시 청년들의 특성 파악 및 청년 정책에 대한 인식, 수요 파악
- 조사 대상 : 만 19~39세 수원시 거주 청년, 수원시 소재 직장인·학생(비거주자)
- 조사 기간 : 2022.01.10. ~ 2022.01.25.
- 조사 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회의 병행(설문조사 응답자 가운데 인터뷰 희망자 우선 모집)
- 조사 내용 : 기본인적사항, 일상생활 및 코로나로 인한 변화,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청년정책 참여 경험 및 개선사항 등

〈표 4-17〉 인터뷰 내용

구분	인터뷰 내용
응답자 일반 사항	성별, 연령, 거주지, 혼인여부, 경제활동상태, 자녀여부
수원에서의 일상생활과 코로나로 인한 변화 및 전망	수원시 활동지역, 수원 외 활동 지역 코로나로 인한 개인적인 변화(일상적, 경제적, 직업적 변화) 코로나 이후 사회 전망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청년세대가 인식하는 사회갈등 정도(세대, 빈부, 젠더, 지역 갈등 등) 청년세대에 대한 인식 및 청년세대가 체감하는 어려움
청년정책 참여 경험 및 개선점	청년정책 참여 경험 및 사례,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 및 정책제안, 자유의견

- 인터뷰 참여자 현황
 - 수원시 거주 청년 : 총 19명
 - 연령별로 만 19~24세, 만 25~29세, 만 30~34세, 만 35~39세 4개 그룹으로 구분
 - 수원 소재 직장인 학생 청년(비거주자) : 총 7명
 - 수원 인근지역(화성시, 안양시, 용인시, 안산시, 과천시)에 거주

〈표 4-18〉 인터뷰 참여자 정보

구분	계	성별		거주지					
		남성	여성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기타	
수원 거주	19~24세 그룹	4명	2	2	-	2	1	1	-
	25~29세 그룹	5명	3	2	1	1	1	2	-
	30~34세 그룹	5명	2	3	-	3	-	2	-
	35~39세 그룹	5명	3	2	1	1	3	-	-
수원 비거주	수원 소재 직장인, 학생	7명	3	4	-	-	-	-	7명 (화성 3명, 안양 1명, 용인 1명, 안산 1명, 과천 1명)

2. 조사결과

1) 수원에서의 일상생활

〈표 4-19〉 청년 FGI - 수원에서의 일상생활

구분		인터뷰 내용
수원 거주	19~24세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경기대, 아주대, 성균관대 등) 인근 원룸, 기숙사 등에 거주하며 생활 • 20대 초반 청년의 활동은 학업, 생업, 문화생활(취미활동, 지인 모임, 쇼핑 등) 등으로 성격이 구분됨 • 수원 내에서 활동 지역은 지인모임(행궁동, 인계동), 쇼핑 및 지인모임, 이동(광교중앙역 부근, 수원역 부근, 송죽동 한일타운 부근) 등으로 나타남 • 평소 수원 외 활동 지역은 서울, 경기도 타지역(성남, 용인, 일산 등)이라고 답했으며, 방문 목적은 직장 출퇴근, 학업, 본가(부모님 집) 방문, 문화생활 등이 있음 • 코로나로 인하여 타지역으로 이동을 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원 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했다는 의견이 다수
	25~29세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 졸업 이후에도 한동안 대학가 주변에 머무르며 취업 준비와 직장생활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음 • 대학가 인근은 청년이 필요로 하는 시설(도서관, 카페, 식당, 체육시설 등)이 모여 있고, 수원은 비교적 대중교통이 잘 발달해 개인 차량이 없는 청년이 생활하기 편리하기 때문임 • 개인 거주지와 직장소재지 인근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지역은 개별로 상이함
	30~34세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궁동(문화시설), 인계동, 수원역(출퇴근 및 쇼핑물), 매교동(개인사업), 청년활동, 영통역, 망포역(출퇴근) 등 주거지 및 직장 인근에서 주로 활동
	35~39세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을 제외하면 수원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고 답했으며, 그 외에 이동은 친정 혹은 시댁 방문, 관광지 방문이 있음 • 20대 청년과 비교하면 30대 후반 청년은 주거지 인근에서 주로 활동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 기혼자의 경우 가족단위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 물품 외에 대형마트에서 식료품, 공산품 등을 구매하고, 병원, 자녀의 학원 등이 위치한 한일타운 인근, 영통역 부근 활동을 선호
수원 비거주	수원 소재 직장인,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외에 수원에서 보내는 시간은 거의 없는 경우와 학교 및 직장이 위치한 수원을 중심으로 다른 활동을 이어가는 유형으로 구분되는 경향이 있음 • 수원과 인접한 화성, 용인, 안양, 안산, 과천시 등에 거주하며 수원에서 직장생활, 학업 활동을 함

2) 코로나로 인한 변화

〈표 4-20〉 청년 FGI - 코로나로 인한 변화

구분		인터뷰 내용
수원 거주	19~24세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경우 대외활동, 교환학생, 봉사활동 등의 경험의 기회 없음, 비대면 수업 증가를 이야기하며, 구직자의 경력 쌓기의 어려움을 호소 • 아르바이트 일자리 감소, 권고사직 사례가 있으며 취업준비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호소(채용 취소 및 규모 축소) • 가족구성원의 소득 감소로 인한 영향 (자영업자 가족, “코로나가 길어져서 IMF때보다 힘들다”)
	25~29세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인의 경우 출장 감소, 화상회의 증가, 재택근무 경험에 대하여 언급 • 외출·자신 약속 최소화, 움직임 감소, 혼자있는 시간 증가, 체중 증가 등에 따른 우울감 증가 • 온라인 장보기, 넷플릭스·유튜브 동영상 시청, 게임 등의 온라인 활동 증가 • 취미 및 여가활동 자제(여행, 생활체육시설 이용, 원데이클래스 등 자제) • 전반적인 생활반경 축소 및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경험, 생각의 기회 감소
	30~34세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증가 및 육아에 대한 부담 가중 • 우울감 및 불안감 증가 • 문화 및 체육시설 이용 자제로 인한 야외 공원 이용 증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활동 찾는 등의 변화 • 직장인은 재택근무 활성화, 자영업자는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이용방법, 마감시간 통제 등을 겪었다고 답함 •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 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대안으로는 온라인 판매 및 배달 활성화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함
	35~39세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적 변화로는 자녀의 학교활동(입학식, 졸업식, 수업)이 원활하지 않고 양육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 점 • 영화관 등의 밀폐된 실내 활동보다 야외활동 참여 • 생활패턴이 변화하고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이 증대 • 가구 전체 소득 감소로 인한 부담 증가
수원 비거주	수원 소재 직장인,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필요한 회식 등이 사라지며 개인만의 시간 증가 • 자가격리 등으로 인한 업무 정체 • 경제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경우와 어려움을 겪는 케이스가 섞여 있음

3) 코로나 이후 사회 전망

〈표 4-21〉 청년 FGI - 코로나 이후 사회 전망

구분		인터뷰 내용
수원 거주	19~24세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이전 생활로 돌아가기 어려우며 추가 백신접종과 마스크 착용이 당연하고, 개인위생에 보다 신경 쓸 것 같음 •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평생직장의 개념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
	25~29세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하던 활동들이 온라인과 접목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이며, 온라인 회의, 메타버스 등의 활용이 자연스러워질 것으로 전망 • 디지털화와 함께 개인주의가 심화되며 개인 간의 유대관계, 사회적인 공존 등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할 것이라는 의견 • 코로나가 종식(완화)되면 시민들의 지치고, 분열된 마음을 달래 줄 수 있는 문화·예술·스포츠 행사가 개최되기를 희망
	30~34세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내 재택근무 활성화, 화상회의 등의 일반화(사내 영상회의실 설치 완료) • 자영업 생태계의 경우 온라인, 배달 중심으로 성장하다 보니 서울·수도권·지방 간 편차가 심화되어 불균형 성장 우려 • 개인 활동 및 개인 시간에 대한 가치 반영으로 거주지의 위치와 거주 형태 등의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 • 일상생활의 문화와 관습 가운데 식사 시 개인접시 사용이 당연시 될 것
	35~39세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위생 및 청결 강화 • 자녀 언택트 교육으로 인한 학습 결손 우려 • 글로벌 상황에 민감한 일부 업종(무역 등)에 있어서 경제적 타격 장기화 우려 • 코로나 종식 이후 문화 활동, 여행 등의 활동은 급속도로 회복되리라 생각 • 일상생활의 문화와 관습 가운데 경조사 챙기기를 덜 할 것으로 예상 • 코로나 이전과 달리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됨
수원 비거주	수원 소재 직장인,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위생 및 청결 강화 • 화상회의 등 비대면 업무의 일상화 • 식사문화(개인접시 사용, 회식 자제) 변화 • 공연 형태 변화(소규모 콘서트, 비대면 콘서트) • 대학생들의 개인주의 가속화 및 학내 문화 약화

4)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표 4-22〉 청년 FGI -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구분		인터뷰 내용
수원 거주	19~24세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사회에서의 사회적인 갈등이 심하다고 인식 • 개인차가 있지만 특히 젠더갈등과 세대갈등이 심하다고 느끼며, 장기적으로 빈부갈등의 문제도 크다는 의견
	25~29세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인 갈등의 양상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더 심하게 나타난다는 의견이 다수 • 젠더갈등과 세대갈등은 직장생활, 친구사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고 밝힘 • 사회적인 갈등들이 개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 복합적으로 연결된 것 같다는 의견 • 그밖에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저출산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됨
	30~34세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갈등(MZ세대와 기성세대와의 갈등, MZ세대 내에서의 갈등), 빈부갈등이 심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다수 •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된 상태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본인이 겪은 갈등을 사회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갈등이 발생하는 양상으로는 온라인 댓글을 통한 갈등 표출된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온라인 이용자들이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인 만큼 갈등이 심화된 상태이지만 오프라인에서는 사회적 지위, 분위기 속에서 표현을 못하는 상태로 생각하기도 함
	35~39세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갈등, 빈부갈등, 젠더갈등이 심하다는 의견 • 지역갈등은 이전보다 악화되었으며, 인종갈등, 종교 갈등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적다고 인식
수원 비거주	수원 소재 직장인,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젠더갈등이 ‘일부 사람들’에게서 심화되었다고 인식 • 세대갈등까지는 아니지만 사회에 바람직한 어른상이 없다고 인식하며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여겨졌던 연장자 존중, 노인 공경의 가치가 변화했다고 인식

5) 청년에 대한 인식 및 청년세대의 어려움

〈표 4-23〉 청년 FGI - 청년에 대한 인식 및 청년세대의 어려움

구분		인터뷰 내용
수원 거주	19~24세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대 초반의 경우 취업의 어려움을 크게 인식했으며, 취업 준비 과정의 어려움 외에 양질의 일자리가 적어 "노력을 했음에도 취업의 문이 너무 좁다"고 느낌 • 취업 이후 소득이 생겨야 주거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갖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함 • 취업준비 기간 동안 금전적인 어려움도 함께 발생한다고 답함 • 코로나에서 취업 위한 대외활동, 인턴, 스터디가 정체되면 취업으로 나아갈 많은 발판들이 위축되었다고 느낌 • 청년이 안정적인 삶을 꾸리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과 그 속에서 심리적 위축감이 크다고 느낌
	25~29세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기 가운데 20대 중후반까지는 구직의 어려움이 크고, 30대 이후에는 주거안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임 • 특히 일자리와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 자녀출산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큼
	30~34세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대 초반의 경우 본인들을 청년이라고 인했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남성의 경우 군 생활이후 사회진출이 2~3년 늦어지는 만큼 30대 초반에도 사회초년생의 성격을 지닌 청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 • 청년세대의 어려움으로는 주거 문제와 일자리 문제라는 의견 •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 및 출산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
	35~39세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대 후반의 경우 본인을 청년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는 적었음 • 30대 후반 이후가 청년정책의 대상은 아닐지라도 자녀 양육, 내 집 마련 등으로 사회적 비용 지출이 큰 시기인 만큼 육아와 주거 관련 분야의 복지 정책의 대상에 포함되기를 바램 • 청년세대의 어려움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 일자리의 질 문제 등을 제시
수원 비거주	수원 소재 직장인,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은 청소년기를 지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시기까지의 연령대라고 생각함 • 생애주기상으로는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한 이후에는 청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됨 • 청년문제로는 저성장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는 상황에서의 노후 대비 문제, 일자리의 질, 결혼 및 출산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 등을 얘기함 • 최근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사회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청년들이 증가했다고 느낌

6) 청년정책 참여 경험 및 사례

〈표 4-24〉 청년 FGI - 청년정책 참여 경험 및 사례

구분		인터뷰 내용
수원 거주	19~24세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청년정책이 다양화되었다고 느꼈으나 아직 참여한 정책의 수는 적다고 답함 • 20대 초반 청년들이 인지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청년수당, 교통비 지원, 면접비 지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어학시험응시료 지원, 청년주택 등이 있음 • 특히 경기도 청년수당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으며, 우편물로 참여 방법을 안내해줘서 신청이 편하다는 의견 • 청년정책 인지 경로는 SNS(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언론(신문기사, 방송 등), 경기도 버스광고판 등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함 • 청년정책에 참여하지 않은(못한) 이유로는 복잡한 서류 및 인증 절차, 경쟁에서 탈락(예비자로 대기) 등이 있음 • 청년공간(수원시, 수원시 외 타지역 모두)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고, 청년공간을 소개하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검색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공간을 방문한 사람은 거의 없었음
	25~29세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인지한 정책으로는 경기도 청년수당, 행복주택, 면접정장대여, 어학응시료 지원, 학자금대출, 구직활동지원금, 내일채움공제, 복지포인트,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이 있음 • 경기도 청년수당을 받아본 사람의 경우 '취업 준비 기간에 생활비로 유용하게 사용했다'며 만족도가 높았음 • 참여했던 정책의 명칭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정책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있음 • 청년정책을 알고 있지만 참여하지 않은(못한) 이유로는 지원자격 부합(연령, 중위 소득, 거주조건 등), 해당정책이 필요로 했던 시기에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
	30~34세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일배움카드, 취업성공패키지, 면접정장 대여, 청년공간 대여 경험이 있으며, 관련 정책을 찾고 활용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참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책에 대한 인식도 적고 참여경험도 없는 경우가 대다수였음 • 청년정책은 아니지만 보육수당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있었으며 • 청년정책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로는 조건(소득분위, 거주지 조건, 연령기준, 선착순 등)이 맞지 않아서라는 의견이 제시됨
	35~39세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정책 참여 경험이 거의 없었고, 그 이유로는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의견 • 청년정책 외에 이 연령대에서 자주 이용하는 복지정책으로 신혼가구 정책, 육아 및 출산 정책 등이 있지만 수혜 조건이 안 되거나 혜택이 적었다는 의견이 있음 • 청년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개인이 나태해지는 상황을 우려했으며 육아를 하는 경우 청년정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여건(시간, 이동 등)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견 • 소득여건 등의 애매한 조건으로 인해 정책 이용이 어려웠다는 의견
수원 비거주	수원 소재 직장인,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수당, 면접수당, 교통비 지원,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 참여 경험자, 청년지원센터 공모사업 참여, 청년주택 등에 대한 지원 경험자가 있으나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 청년정책 홍보의 필요성을 이야기함

7) 청년정책 개선방향

〈표 4-25〉 청년 FGI - 청년정책 개선방향

구분		인터뷰 내용
수원 거주	19~24세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에게는 주거정책(주거비 지원, 주거 환경 개선 등)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이었음 • 적극적인 정책 홍보가 필요하며, 청년에게 익숙한 매체(영상 등)를 활용한 홍보를 선호 • 정책 제안으로 홍보 방법으로 청년이 수원시로 전입신고, 주민등록발급 신청 등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을 때 청년정책홍보 팸플릿을 제작하여 나누어 주는 것이 제시됨 • 수원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수원 소재 직장인 및 학교 재학생에게 청년정책에 참여할 권리는 주기 바란다는 의견
	25~29세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블루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 구직청년과 기업 간 인력매칭, 사회초년생 금융투자 및 자산관리 설계에 대한 컨설팅, 일자리 및 구직활동 관련 멘토링 • 청년에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기존에 국가와 경기도에서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예방접종 지원(예 : HPV 백신) • 청년정책 전문 사회복지사 양성 • 출퇴근·통학시간 대중교통 노선·배차간격 탄력적 운영 강화
	30~34세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제안으로는 육아 보육 지원, 전세대출 이차지원, 지역화폐의 온라인 사용, 1인 가구 지원의 다각화, 지역기반 정책의 경우 네이버 카페, 당근마켓 등 지역 단위 온라인 모임을 활용한 홍보 연계 등이 있음
	35~39세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제안으로는 지속될 수 있는 정책(청년몰 등에 대한 지적) • 세금 사용 상황에 대한 투명한 공개 등이 있었음
수원 비거주	수원 소재 직장인,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내부의 다양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일자리, 경제, 주거에 대한 정책 고민은 필수적이거나, 아직까지 지원이 부족한 심리 상담 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수원시에서 수원 소재 직장인, 학생(비거주)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뉨

8)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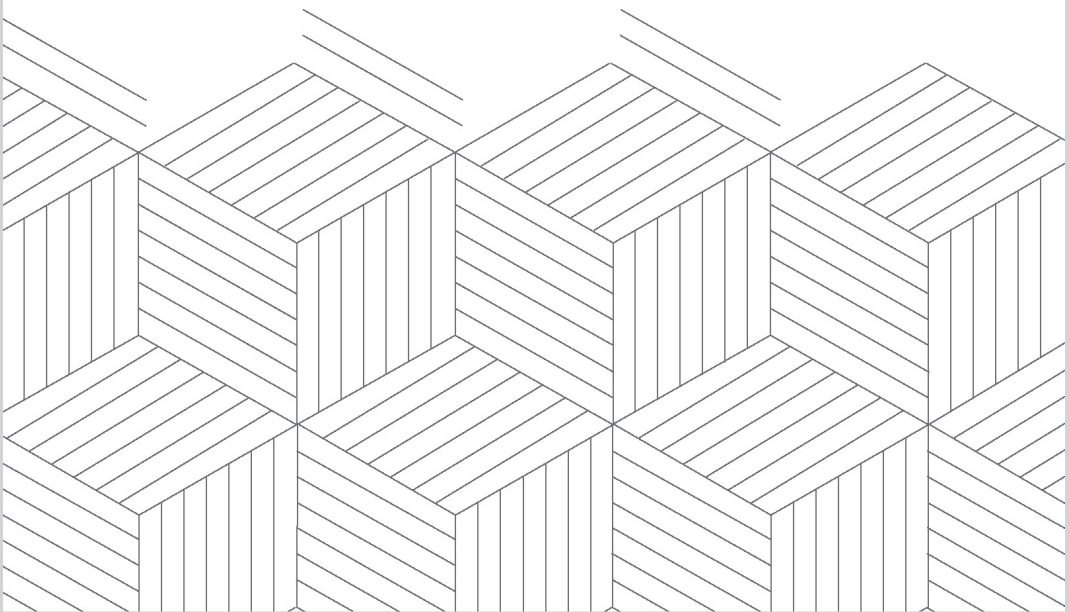
- 코로나로 인해 생활이 큰 폭으로 제한되면서 직장이나 필요 업무 외의 다른 활동이 줄어들다보니 이동지역이나 활동범위도 줄고 생활도 단순해지면서 심리적 우울감을 토로하였으며 코로나가 끝나도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변화는 그대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한국사회에서 젠더, 세대, 빈부, 지역 등 사회적 갈등을 인지하고 있으며 가장 심각하다고 여기는 갈등으로는 다수의 참여자가 젠더갈등과 세대갈등을 꼽고 있음
- 모든 그룹에서 청년이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인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으나 각 그룹별로 느끼는 어려움의 특성에는 차이가 나타남
 - 20대 초반 그룹은 주로 구직의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20대 후반 이후부터는 주거의 문제를 느꼈으며, 30대 후반 그룹은 스스로 청년은 아니라고 간주하지만 육아 및 주거 관련 정책 혜택을 필요로 함
- 최근 청년정책 사업이 다양화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 직접 경험해본 정책 사업의 수는 적다고 답함
 - 많이 알려져 있거나 경험해 본 경우가 많은 사업으로는 경기도 청년수당, 교통비 지원, 면접비 지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면접정장대여, 어학응시료 지원, 학자금 대출, 행복주택, 구직활동지원금, 내일채움공제, 내일배움카드 등이 있음
- 청년정책사업을 알고 있지만 참여하지 못한 이유로는 소득분위, 거주지, 연령기준, 선착순 등의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와 별도로 복잡한 서류 및 인증절차로 인해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함
-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으로는 전 연령 그룹에서 주거비 지원, 주거 환경 개선 등의 주거정책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타남

제5장 정책제언

제1절 수원시 청년정책 방향 설정

제2절 주요 전략 과제

제3절 조직 및 추진체계



제5장 정책제언

제1절 수원시 청년정책 방향 설정

1. 수원시 청년정책 점검

1) 청년정책 수립배경

- 사회정책의 대상으로 ‘청년’ 인식
 - 늘어난 생애주기로 인해 대두한 성인이행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 인식
 - 전통적으로 정책의 대상자였던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에 청년이 추가되기 시작했음
 - 청소년기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연령대는 어려워지는 반면 성인기 과업을 성취하는 연령대가 높아지면 성인기 이행단계 발생
 - 청년이 살아가기 힘든 한국사회 현실에 대한 공감대 형성
 - 급감하고 있는 청년인구에 비해 사회적 고령화로 인해 청년세대의 부담 가중
 - 낮은 고용률 등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움
 - 플랫폼 노동이나 프리랜서 등의 비정형 일자리로 진입이 늘어나며 사회적 취약지점이 되고 있음
 - 청년담론의 부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청년정책 수립
 - ‘88만원 세대’ 등 2000년대 후반부터 청년세대의 현실과 문제를 지적하는 사회적 담론들이 등장하면서 일자리나 주거, 복지 등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 추진
 - 2015년 서울시의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정책이 수립되고 2016년 20대 국회에서 청년기본법이 발의되면서 각 지자체 별로 청년정책 관련 조례들이 제정됨
- 수원시의 높은 청년인구 비율 및 청년 1인 가구 비율
 - 수원시 만19~34세 청년인구는 285,265명으로 전체 인구의 24.1%로 경기도 20.8%, 전국 20.0%에 비해 높으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청년비율 1위임
 - 수원시 전체 1인 가구 수에서 청년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37.6%로 전국 28.4%, 경기도 27.3%에 비해 높음

2) 수원시 청년정책 성과

-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선도적인 청년정책 수행
 - 비교적 초기인 2016년부터 청년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고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 2016년 청년기본조례를 제정, 2017년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청년정책 추진
 - 청년정책 전담부서인 2016년 청년정책관을 부시장 직속으로 신설하고 조례에 따른 청년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함
- 종합적인 접근
 - 특정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청년 삶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정책으로 접근
 - 2017년 기본계획에서 청년다움, 발돋움, 비움채움, 즐거움의 4대 추진 전략을 설정을 통해 삶의 전 영역에서 고르게 정책을 수립
 - 2021년 기존계획의 비전 아래 5개 분야로 정책을 재구성하여 좀 더 포괄적인 형태로 계획 정비
 - 2021년 현재 5대 과제로 총 예산 245억 원의 51개 사업(16개 부서)을 추진하고 있음

3) 한계

- 전략사업 부재 및 정책 컨트롤 역량 미흡
 -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조정 미흡
 - 전담 부서가 부시장 직속이긴 하나 전반적인 정책 조정보다는 개별 사업에 치중
 -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청년 관련 정책은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경향
 - 수원시 청년정책의 브랜드로 내세울만한 대표사업 부재
 - 초기부터 전 영역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추진하다보니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영역 미흡
 - 실질적인 사업예산 미흡
 - 청년정책 예산의 90% 이상이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할당되어 있어 실제 청년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은 부족함
- 실질적인 청년참여 미흡 및 당사자성의 부족
 - 청년들의 의견 반영 및 참여가 제한적
 - 2017년 종합적인 수원 청년생태계 조사 이후 청년들의 실태나 정책요구에 대한 조사가 시행되지 않았음
 - 청년참여를 위한 단체가 있지만 참여가 활발하지 않고 역할 또한 정책검토나 의견제시 정도로 제한적임

- 기성세대의 시각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청년 기구는 보조적 역할
 - 정책수립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보다 검토하고 제안하는 기능 중심
 - 참여하는 정책분야 또한 청년정책에 한정되어 있으며 수원시 정책 전반에 걸쳐 청년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이나 제도 미흡

4) 정책 환경의 변화

- 중앙정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본격화
 - 2017년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국정비전 포용국가 실현의 핵심대상으로 청년 상징
 - 2020년 1월 청년기본법 제정 및 12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정책 기반 조성 및 정책 추진
 - 2021년 말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100%, 기초자치단체의 64.1%가 기본조례 제정
 - 13개의 광역자치단체, 49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책 추진
 - 이 밖에 정책심의기구 설치, 청년참여기구 설치, 청년정책 관련 센터 설치, 청년활동 공간 설립 등 지자체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기반 조성
- 정책 대상인 청년들의 정책 수요 변화
 -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청년정책 실행으로 인해 정책 요구가 변화함
 - 저성장 경제로 인해 일자리는 여전히 청년들의 정책 수요의 일순위이지만 연령대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주거에 대한 정책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니즈를 보임
 - 청년 내부의 분화에 따른 정책 수요 차이 발생
 - 청년은 이행기라는 조건상 한두 가지의 특성으로 대표화시킬 수 없을 정도로 개별의 차이가 어느 세대보다 크게 부각됨
 - 연령별, 특성별 그룹화가 다양하게 나타나기에 그룹별 정책 요구들의 차이가 발생함
- 포스트코로나 상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 전반에 미칠 악영향은 상당기간 불가피한 상황임
 -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가 발생하며 고용위기가 심화
 - 코로나19 이후 소득과 소비 모든 면에서 하락하면서 소득계층간의 양극화 심화
 - 코로나19 장기화로 신체건강뿐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특히 청년세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

- 2020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코로나19가 청년층 고용과 교육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서 락다운(봉쇄) 세대(lockdown generation)가 나타날 우려를 포함
- 따라서 향후 5년간 '코로나 청년세대'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2. 정책방향

1) 실질적인 청년참여 강화

- 정책수립·실행·평가의 전 과정에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
 - 청년 스스로가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청년이 자신의 삶을 둘러싼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및 자율 활동 토대 구축
 - 이행 전주기에 걸쳐 모든 청년의 기본적 권리와 기회를 충실히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
 - 수원시정 전반에 걸쳐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
 - 청년정책만이 아니라 시정 전반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청년이 미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필요
 - 참여활동의 증진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교육 확대

2) 유형별, 집단별 청년계층에 따른 정책 다양화 및 정책 사각지대 해소

- 맞춤형 사업을 통한 중앙정부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 청년들의 연령대와 각자가 처한 상황 등에 따라 정책 수요의 차이 존재
 - 연령대별, 개인 상황별 차이에 기반하여 핵심 정책을 차별화하는 것 필요
 - 이를 위해 특성별 청년실태 파악 및 정책 개발과 시범적인 사업 추진 필요
- 청년은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세대라는 점을 고려한 단기성 회복 정책 필요
 - 단기 일자리 한시적 확대 등 코로나19 조기 극복 방안 필요
 - 경제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적 손상에 대한 회복대책 필요

3) 청년정책의 핵심영역 확보 및 부서간 협력 강화

- 수원시 청년정책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정책 사업 발굴
 - 특례시 승격에 맞춰 기초지자체에서 주도할 수 있는 정책 개발 선도
 - 수원시 청년정책의 위상 강화를 위한 집중 영역 확보
 - 실질적인 청년정책 강화를 예산확보 필요
- 청년정책 부서의 전문성 강화 및 역할 명확화
 - 청년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실효성 제고
 - 체계적인 정책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청년정책 전담부서의 전문성과 조정 역할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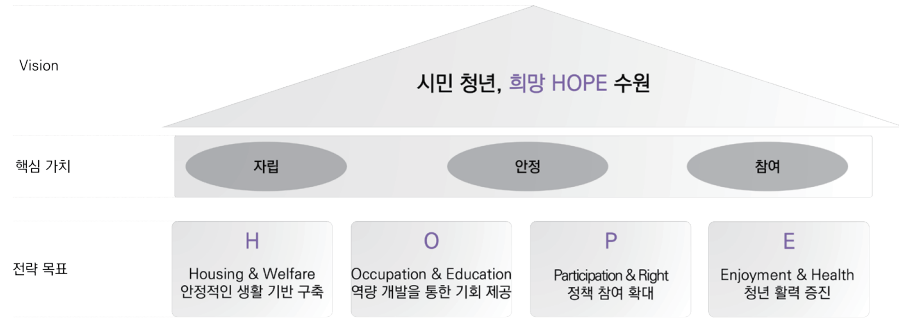
3. 수원시 청년정책

1) 청년정책 비전 설정 방향

- 수원시 청년정책의 다음 단계의 비전은 ‘시민 청년, 희망 HOPE 수원’으로 제안함
 - 청년은 시민성을 가진 성인이어야 하며 이러한 청년들이 미래 수원의 희망이라는 것을 의미
 - 시민성(citizenship)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 시민의 특성임
 - 따라서 ‘시민 청년’은 자연인 성인이 아닌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성인이어야 함을 내포하고 있음
- 수원시 청년정책의 핵심가치는 ‘자립’, ‘안정’, ‘참여’로 제안함
 - ‘자립’은 청년이 한 사람의 성인으로 독립적인 경제적·사회적 주체임을 의미
 - ‘안정’은 청년들의 삶과 활동이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을 의미
 - ‘참여’는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정책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
- 전략목표는 주거와 복지(Housing & Welfare), 일자리와 교육(Occupation & Education), 참여와 권리(Participation & Right), 여가·문화와 보건(Enjoyment & Health)의 4개 영역으로 제시
 - H(Housing & Welfare) : 주거와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 O(Occupation & Education) : 일자리 확충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기회가 제공되었을 때를 위한 청년들의 역량 개발

- P(Participation & Right) : 정책과정에서 실질적인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 권리를 증진
- E(Enjoyment & Health) :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돌아봄으로써 청년들의 활력을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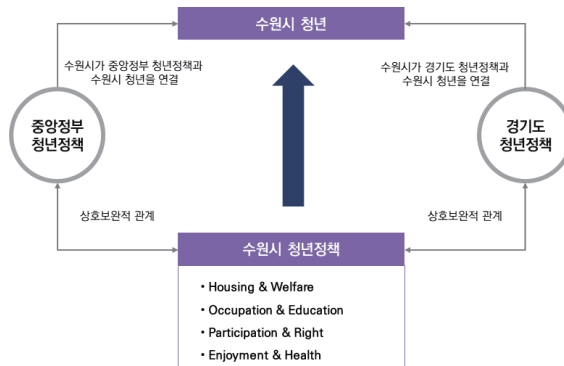
〈그림 5-1〉 수원시 청년정책 비전 및 목표



2) 정책 전달체계

- 수원시는 국가 및 경기도 정책을 수원 청년과 연결하는 역할 수행
 -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위와 기능상 모든 분야의 청년정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불가능함
 - 수원시는 국가 및 광역 단위 청년정책의 말단에서 직접적으로 수원 청년들과 만남으로 중앙정부나 경기도 청년정책 사업의 수혜자가 될 수 있게 정책적 지원을 연결
 - 국가 및 광역지방단체의 청년정책의 틈새를 찾아 보완할 수 있도록 정책 개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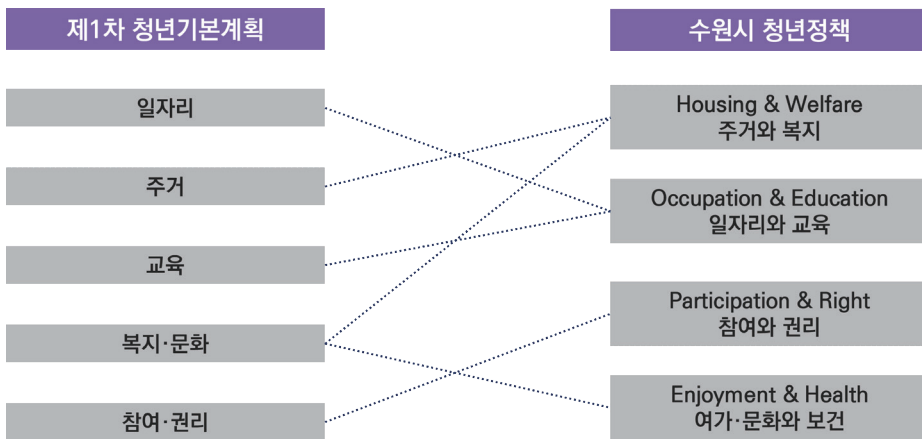
〈그림 5-2〉 수원시 청년정책 추진 프레임워크



자료 : 김은경 외(2020), 참고 재구성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5대 정책방향과 연결되나 수원시 상황에 맞게 조정
 - H(주거와 복지) 영역은 안정적인 생활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기에 기본계획의 복지·문화 분야에서 복지 분야를 분리해서 주거 분야와 통합하였음
 - O(일자리와 교육) 영역은 일자리를 위한 역량 개발에 중점을 두고 기본계획의 일자리 분야와 교육 분야를 연계하여 추진함
 - P(참여와 권리) 영역은 기본계획의 참여·권리 분야 정책을 포함하여 추진함
 - E(여가/문화와 건강) 영역은 청년들의 활력 증진을 목표로 하기에 기본계획의 건강 관련 정책을 확대하고 복지·문화 분야의 문화 분야와 함께 추진함

〈그림 5-3〉 국가 기본계획과 수원시 정책 영역 상관도



제2절 주요 전략과제

1. Housing & Welfare

1-1 청년특구 활성화

□ 추진 배경 및 현황

- 학업·취업 준비, 독립욕구 등으로 청년 1인 가구 지속 증가 불구, 취업난·주거비 상승으로 주거 안정성·여건 취약
 - 플랫폼 노동·프리랜서 등 비정형 일자리에 청년진입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취약지점 확대
- 일자리+주거+교육+문화가 어우러져서 청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지역 조성
 - 경기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취업률 상승
 - 청년특구 조성으로 스타트업의 테스트 베드 타운 조성
 - 청년특구 내 청년 밀집도 증가로 연애 가능성 상승 및 이를 통한 결혼, 출산율 상승 기대

□ 추진 내용

- 청년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특화거리를 조성
 - 개성, 독창성, 전문성, 특별함을 추구하는 청년들의 문화수요를 반영, 다양한 테마와 콘텐츠가 있는 청년 특화 거리 조성
 - 다양한 테마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해 자생적인 청년 문화공간을 활성화하고, 도심골목상권의 관광지화를 통해 도시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제고
 - 청년특구나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다면적인 검토 필요
 - 광고 지역의 경우 일자리(광고테크노밸리), 주거(행복주택), 교육(경기대, 아주대)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청년 활동 플랫폼 도입하여 특구 조성
 - 수원역 인근의 경우 매산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청년활동 공간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활용한 특구 조성 가능

청년친화 도심융합특구조성[일자리+주거+교육] 사업

- 국토교통부 도심융합특구 사업
 - 지방 대도시(광역시 5곳)의 도심에 기업,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판교2밸리'와 같이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 지방 광역시 중심지에 교육일자리주거문화가 어우러지는 융합특구 조성 : 청년의 지역 안착 + 국가균형발전 도모
 - 지방 광역시 도심에 개발(H/W), 기업지원(S/W)을 집적 : 산학연관이 유합된 혁신공간 플랫폼 조성
 - 선도사업지 선정('20.12~) → 범정부 인센티브 패키지 마련('21.上) → 본격 조성 및 확산('22~)



- 지방 광역시 5곳과 함께 협업체를 구성하고, 지방에서 배우고 성장한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청년 인재들이 선호하는 문화, 도시 편의시설 등을 두루 갖춘 도심융합특구 후보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
 - 2020년 12월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 선정
- 대구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업
 - 사업지구(약 98만㎡)는 경북도청 이전부지, 경북대학교, 삼성창조캠퍼스 3곳이며, KTX 동대구역과 접근성이 뛰어난 기존 대구 도심지 내에 위치
 - 경북도청 이전 부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상북도로부터 부지를 매입 중(2018~2022년)인 국·공유지로 대구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의 핵심 거점으로 역할 수행
 - 경북도청 이전 부지에 인접하고 있는 경북대학교와 삼성창조캠퍼스는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산·학·연 기능과 도심융합특구와의 연계
- 광주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업
 - 사업지구(약 85만㎡)는 시청이 위치한 상무지구 서편 지역으로 김대중컨벤션센터, 상무시민공원 등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부지(약 25만㎡)와 구 상무소각장, 농지 등 대규모 유휴부지(약 60만㎡)로 구성
 - 개발가능한 대규모 유휴부지의 절반 정도(약 29만㎡)를 시와 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어 신속한 도심융합특구 조성이 가능하며, 부지면적도 충분하여 광주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의 핵심 거점 역할 수행
 - 상무지구 일원은 지역 청년들이 즐겨 찾는 신도심으로 한국전력공사 및 에너지업계 기업들이 이전해 있는 나주혁신도시, 전남대학교 등 지역 대학과 연계한 지역혁신산업 육성과 같이 도심 융합특구와의 연계

자료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대구·광주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선정 발표」(2020.12.22.)

1-2 취약계층 청년 정책 개발

□ 추진 배경 및 현황

- 취약청년에 대한 관심은 청년정책에서 최근 부각되는 이슈이므로 수원시가 선도적으로 주도할 필요
 - 그간 정책들은 전체 청년, 청년 취업자, 청년 창업자 및 소상공인, 대학생 등의 일반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음
 - 정책 관심이 취약계층 청년들로 이동하고 있으며 맞춤형 정책에 대한 수요 증가
 - 취약계층 청년 : 미취업 청년,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청년 니트 및 고립청년, 단독가구 및 주거 취약 청년, 저소득 청년, 가족 돌봄 청년, 이주배경 및 북한이탈 청년, 미혼모·미혼부·한부모 청년, 장애를 가진 청년 등
- 현장밀착형 정책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선도해 가기 적합한 정책임
 -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파악도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황파악부터 시작해야 함
 - 이러한 현황파악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맞부딪히고 있는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임

□ 추진 내용

- 취업취약, 은둔, 보호 종료 등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취약계층의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 취약계층 청년 실태 파악 및 발굴 조사
 - 유형별 취약계층 청년 지원 사업 개발
 - 고립청년/은둔 청년 지원
 - 가족 돌봄 청년(young carer) 지원
 - 장애청년 자립 지원 등

일본 지역청년 서포트스테이션(서포스테)

- 목적
 - 지역이나 기업, NPO법인 등과 네트워킹하며 청년실업자나 사회적 히키코모리 상태에 있는 청년들의 사회 참여나 노동을 위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진행함으로써 사회적 자립, 직업적 자립을 도모함
- 대상
 - 15~49세 청년 및 그 가족(2020년 4월부터 49세까지 확대)
- 사업 내용
 - 직업적 자립을 위한 상담 (당사자, 보호자)
 - 임상심리사 등에 의한 개별상담
 - 세미나 ('재학습', '체력 키우기' 등), 체험 프로그램 진행
 - 학교와의 연계 추진
 - 직업 자격증 취득 촉진 (자격증 취득에 관한 경제적 지원 등)
- 주요 사례
 - 요코하마 청년 서포트스테이션(서구 기타사이와이 위치)
 - 쇼난·요코하마 청년 서포트스테이션(가마쿠라시 고부쿠로다니 위치)

자료 : 오오쿠사 미노루(2020), 해외의 은둔형외톨이 지원 현황, 「은둔형외톨이」 지원 방안 세미나」

2. Occupation & Education

2-1 청년도움달기학교 : 수원형 갭이어(Gap Year) 프로그램 제공

□ 추진 배경 및 현황

- 갭이어(Gap year)는 학업을 병행하거나 잠시 중단하고 봉사, 여행, 진로 탐색, 교육, 인턴, 창업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통해 향후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을 의미함
 - 서구 지역의 나라들은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1년간의 기간에 걸쳐 다양한 경험을 쌓는 갭이어(gap year)를 가지는 경우 많음
 - 요즘은 일반화되다 보니 직장파 직장 사이의 유예기간을 갭이어라 부르기도 함
- 한국에서 갭이어는 이제 시작단계임
 - 청년허브, 모두의학교, 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 등에서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불규칙한 단기 강좌의 형태
 - 민간에서 자유학교, 퇴사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역시 시작한 지 1~2년이 채 되지 않음
- 한국 사회에서는 맹목적 구직, 스펙 위주의 활동으로 청년들이 자신의 삶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가 부족한 상황임
 - 시험 준비나 스펙을 높이기 위한 취업 준비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반면 취직하고 나서도 직장이 맞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음
- 인생전환기를 맞이한 청년들에게 다양한 사유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진로를 탐색하고 자아를 성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계획할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들 스스로 마음 건강을 챙기고 안정적인 미래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함

□ 추진 내용

- 수원형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 수원시 주민등록 만19~34세 청년 대상
 - 청년들의 진로탐구를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이수자 활동비 지원

- 프로그램 이수자를 대상으로 진로탐색을 위한 여행 및 봉사활동 등을 위한 활동비 지원

국내 지자체 갭이어 프로그램

- 서울시 청년인생설계학교
 - 스펙 쌓기와 구직활동에 내몰린 청년들을 위해 자기 탐구와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
 - 모두를 위한 교육인 평생학습의 하나로 가능한 제한 조건을 두지 않고 청년 일반을 지원
 - 베이직 코스, 워크앤라이프 코스, 프로젝트 코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한 회 이상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니 갭이어를 운영
- 대구시 청년내일학교
 - (주) 일로이룸과 함께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로에 관한 교육과 청년수당을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진입을 지원
 - 청년내일학교는 2020년부터 시작하여 상·하반기 각각 100명씩 선발하여 프로그램 및 갭이어 활동비를 지원함
 - 청년내일학교 수료자만 갭이어 활동비를 1인당 1,500,000원 지급하며, 진로탐색을 위한 여행 및 봉사활동, 역량계발을 위한 학원 수강, 시험응시료, 도서구입비 등 자기계발을 위해 사용 가능
 - 주요 대상은 대구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만 19세에서 만 34세 사이의 청년이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속한 청년만 대상으로 소득제한을 둔 점이 특징임
 - 대구시는 청년내일학교 외에도 청년학교 탄길 등 진로와 새로운 삶의 방향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청년들의 삶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모색
- 2021 금천구 청년섬표교실
 - 지역기반 청년참여 교실 운영 및 청년층의 가치관을 반영한 학과개설을 통한 갭이어 활동
 - 청년의 진로탐색을 위한 기회 확대
 - 지역 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청년단체를 발굴하여, 청년의 관심사를 반영한 맞춤형 학과운영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멘토 컨설팅 지원
 - 3시간씩 8주간 / 25명씩 3개반 운영
- 제주도 청년자기탐구(Gap year) 프로그램
 - 제주청년들이 20일간 서울 등 도외에서 생활하며 자아 탐구 및 자기성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
 - 전문기관 컨설팅과 20일간의 도외 체류비(항공비+숙소+식비 정액)를 지원
 - 청년의 자아탐구 및 자기성장을 위한 교육, 맞춤 컨설팅 등 제공
 - 1~2주간 75명 운영

3. Participation & Right

3-1 청년주도정책 할당제

□ 추진 배경 및 현황

- 정책결정 및 추진과정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참여가 되도록 체제 마련
 - 주민참여예산제, 좋은시정위원회 등 주민들의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음에도 청년들의 참여는 극히 미흡
 - 시정 전반에 청년들의 적극적인 의사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통해 청년들의 정책 참여 확대
- 청년 스스로 자신들의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자신들의 의사와 권리가 정책을 통해 보장 받는 것이 필요
 - 청년 스스로 청년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참여하는 체제 마련
 - 청년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고 참여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청년정책 교육 확대 필요

□ 추진 내용

- 주민참여예산제의 청년부문 할당
 - 주민참여예산제에 청년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정책 수립 및 예산편성과정에 청년 수요 반영 및 시정 관심도 제고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청소년부문과 더불어 청년부문 할당
- 청년위원 할당제
 - 좋은시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청년위원을 일정 비율 이상 할당하여 청년들의 시정참여기회 확대
- 청년협의체의 역할 및 기능 강화
 - 현재 운영중인 청년협의체를 좀 더 실질적인 청년정책 실행기관으로 강화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

■ 사업개요

- ‘청년자율예산제’는 시장의 권한인 예산편성권한을 청년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양하여, 시민들이 약 500억 원 내외의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제도
- 당해연도 예산이 직접 교부되는 것이 아닌 차년도 서울시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사업을 제안하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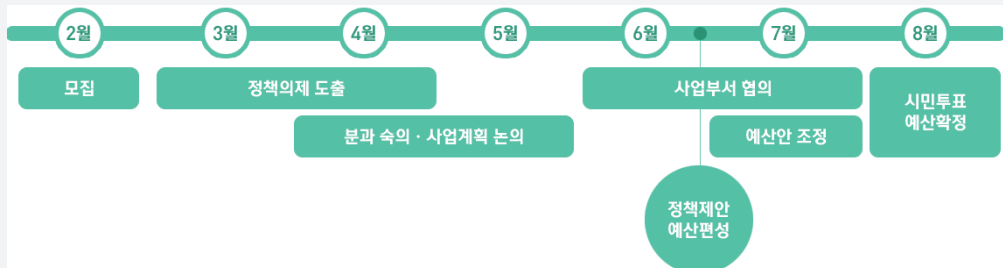
■ 유형

- 시정제안형

- 서울청년시민회의의 숙의과정을 통해 제안된 정책사업을 편성하는 것으로 분과숙의형과 특별기획형으로 구분
- 특별기획형은 분과구성을 넘어 광역적인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다룸

- 자치구제안형

- 청년자율예산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참여자치구 별 5억 원의 예산을 자치구 단위 개방적인 공론장을 통한 숙의과정을 거쳐 편성
- 이를 통해 청년들의 참여공간을 기존 서울시 광역단위에서 개별 자치구 단위로 확대하여 참여경로를 다변화하고, 생활밀착형 의제를 발굴



자료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홈페이지 주요사업 <https://youth.seoul.go.kr/site/youthnet/content/NET020-02>

4. Enjoyment & Health

4-1 상담센터 및 생활 컨설팅 운영

□ 추진 배경 및 현황

- 청년들의 생활과 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책정보와 자료들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
 - 취업, 주거 등에서 유용한 정책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음에도 정보 부족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쉽게 정보와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함
- 청년 FGI에서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호소가 많음
 - 청년들에게는 코로나19로 인한 친교활동 단절이 깊은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주고 있음
 - 또한 청년들은 그 어떤 세대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현실의 불안정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스트레스와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의 사회적 가치와 자아존중감을 회복할 수 있는 심리적 지원이 필요

□ 추진 내용

- 청년 컨설팅 운영
 -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
 - 카카오톡 채널 등 청년들에게 익숙한 온라인 미디어 활용한 상담센터 운영하며 온라인 상담 후 필요하면 오프라인 상담 진행
 - 실시간 청년정책, 전국 청년공간, 개인별 맞춤정보, 진로와 취업 등 상담 및 컨설팅
 - 전문적인 상담요원 확보 필요
 - 수원시뿐만 아니라 국가나 광역에서 시행하는 청년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
- 마음건강을 위한 심리상담 강화
 - 심리상담 전문가의 상담기회 제공
 - 일반적인 심리상담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위축과 우울에 대한 단기적인 프로그램을 별도로 도입

오산시 청년 마음사관학교

■ 목적

- 청년들의 불안과 우울 때문에 진로 활동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돌보고 치료하여 성공적인 취업 활동을 하도록 함
- 대인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진로활동에 나서지 못하는 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해 줌
- 부모와의 소통부재, 대인관계 스트레스, 진로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는 원리와 방법을 배우고 적용함으로써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게 함
- 말 못할 고민과 고통을 가진 청년들에게 심층적인 문제를 다루는 개인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 멘토로서 도와줌

■ 대상 및 인원 : 오산시 거주 만18~39세 청년 10명 내외(최대 15명)

■ 운영횟수 : 2020년부터 상하반기 각 1회씩 현재까지 총 4회 운영

■ 시간 : 총 20~26시간(2020년 26시간, 2021년 20시간)

- 집단상담 : 4시간씩 4회(총 16시간) / 4시간씩 2회(총 8시간)

- 개인상담 : 1시간씩 10회(총 10시간) / 2시간씩 6회(총 12시간)

■ 운영 방법 : 전문업체 위탁운영

■ 프로그램 내용

- 1:1 개인상담 : 개인 내의 불편한 감정을 상담을 통해 원인과 방법을 찾아보는 심층 상담으로 진행
- 집단상담 프로그램 : 불안을 다루는 방법과 개인별 심리검사 실시, 관계 문제에 해결법등의 개인 간 심리적 요인에 대해 탐색하고 감정을 다루는 방법 교육

	주차	핵심사항	비고
2020년	1주차	· 불안이란 무엇인가 및 발생원인 · 불안을 자신감으로 바꾸는 방법	집단상담 매회 4시간 강의, 워크숍 및 치료 작업 1:1 개인별 맞춤형 솔루션 제공
	2주차	· 관계가 소중한 이유 ·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및 해결 방법	
	3주차	·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 · 말과 행동이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지 확인하는 방법 · 조율되는 관계와 조율되지 않는 관계 다루기	
	4주차	· 30일 꿈은 천하장사 이야기 · 무력감과 우울이 발생하는 원인 및 극복 방법	
2021년	1~6 주차	· 1:1개인상담 : 개인별 맞춤형 솔루션 제공	12시간 (1일 2시간×6회)
	7주차	· 불안한 세상/마음의 균형 - 마음의 구조와 나를 이해하고 불안한 세상속에서 균형찾기 · 세상을 해석하는 방법 · IBPI 한국 대인관계 심리검사	집단상담 (매회 4시간 강의, 워크숍 및 치료 작업)
	8주차	· 건강한 관계, 행복한 인생 - 건강한 관계란 무엇인가? - 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제3절 조직 및 추진체계

1. 전담부서

■ 역할

- 부서 간 역할 분담 및 협력 유지하되 정책 허브 역할 담당
 - 국가나 광역 정책 전달체계의 중심에 위치해서 타 부서의 관련 정책들을 연계·조정하는 역할 담당
 - 청년정책 부서협의체(가칭) 등을 통해 부서 간 정책공조와 조정 수행
- 대표 주력사업 수행
 - 청년복지 및 주거 영역의 경우 수원시 내 타 부서에서 일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으나 주력분야가 아니므로 청년정책관의 주요 정책영역으로 관장하는 것이 필요함
 - 청년 일자리 사업의 경우 일자리정책과의 청년여성일자리팀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청년정책관은 사업연계·조정에서 중점을 두고 일자리 기회를 위한 역량 개발에 중점을 두는 것이 효율적임

■ 개편안(제안)

- 정책관으로 외부 전문가 영입(4~5급 임기제)
 - 현재는 행정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으나 청년활동 분야의 경험과 식견, 청년정책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외부에서 영입하는 것이 필요함
- 부서 : 정책팀(계획, 참여와 권리), 지원팀(일자리와 교육, 문화와 건강), 복지/주거팀(주거와 복지)
 - 정책팀 : 청년정책 계획 수립, 국가 및 광역 정책 전달, 부서간 정책공조, 청년단체 운영 등 참여와 권리 영역 주력 사업 추진
 - 지원팀 : 청년공간 지원, 일자리와 교육 영역 및 문화와 건강 영역 주력 사업 추진
 - 복지/주거팀 : 청년특구 조성, 취약계층 청년 지원사업 등 주거와 복지 영역 사업 추진

2. 청년지원센터

- 운영방향
 - 실질적인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수행
 - 청년과 수원시를 이어주는 거버넌스의 연결고리이자 다양한 청년활동의 플랫폼
 - 지역사회와 각 분야의 다양한 자원연계를 통해 수원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
 - 청년과 행정 사이에서 균형 유지
 - 행정은 중간지원조직을 행정의 보조 수단이 아닌 거버넌스를 위한 파트너로 인식
 - 중간지원조직은 청년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그들의 요구를 정책과 연결하는 것이 필요

- 조직 운영 방향(안)
 -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 재정비 필요
 - 고용안정성 증진 및 처우개선 : 현재 인력의 근무 지속성(대다수가 재직기간 1년 이하)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의 충실도 및 업무의 질이 낮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 청년정책 사업이 확대될 경우 이에 맞춰 인원 및 조직 확대 필요
 - 현재 규모의 인력으로는 청바지 및 청누리 공간 운영 이상의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원 확충이 필요함
 - 센터 인원 확충이 불가할 경우 지원센터는 정책사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공간 운영은 분리하여 별도의 민간단체나 청년조직에게 위탁하고 센터는 컨설팅·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공간에 대한 별도의 민간위탁이 불가할 경우 현재 센터 조직을 공간 운영으로 한정하고 정책사업은 시 부서에서 전담하여 수행하는 방안도 있음

〈그림 5-4〉 청년지원센터 조직 운영 방향(안)

지원센터 강화	공간 운영 분리	공간 운영 전담
청년지원센터가 청년공간 운영을 포함해서 연구·지원·컨설팅·교육 등 관련 사업 활성화로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 강화	지원센터는 연구·지원·컨설팅·교육 등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공간 운영은 별도 민간위탁(청년조직 활용)	지원센터 업무는 공간 운영 위주로 한정하고 정책사업은 시 부서에서 전담

조직 사례 : 서울시

- 부서 조직
 - 제1정책부시장 직속 미래청년기획단
 - 청년정책반과 청년사업반의 2개의 반으로 구성, 각반은 각각 4개의 팀으로 조직
 - 청년정책반 : 청년정책팀, 청년지원팀, 청년권익팀, 청년참여팀
 - 청년사업반 : 청년사업기획팀, 청년공간운영팀, 청년공간조성팀, 청년금융팀
-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 2013년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하여 구성
 - 운영 : (사)씨즈가 위탁 운영(서울시 민간위탁)
 - 주요사업
 - 지원사업 : 미래 과제 해결을 위한 청년들의 커뮤니티, 직업, 공간, 국제교류 지원
 - 연구사업 : 청년 생태계를 고려한 사회 및 정책 연구
 - 전략사업 : 사회문제의 청년 공감대 형성 및 대응을 위한 실행모델 도출
 - 교류사업 : 청년의 사회적 자산 마련을 위해 세대와 지역을 잇는 교류와 협력 사업
 - 협력사업 :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인적·물적·사회적 자원을 연계하는 사업
-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
 - 2016년 7월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설립
 - 운영 : (재)서울현대교육재단과 (사)한국디지털번버전스협회가 위탁 운영(서울시 행정사무 민간 위탁)
 - 주요 사업
 - 서울청년센터 지원 : 성과관리 및 컨설팅 지원, 사업운영매뉴얼 지원, 정보 선별 및 제공, 네트워크 지원, BI 관리 및 홍보
 - 마음건강지원 : 일대일 심층상담, 그룹마음상담 '소담소담', 온라인고민상담소 '하이데어'(Hi-there)
 - 자기이해/진로탐색 : 자기이해 프로그램, 실수해도 괜찮은 사회생활 연습실
 - 청년 생활 안정 : 영 케어러 케어링, 청년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지원 인력 양성 : 청년지원매니저 양성과정, 전문상담사 직무교육
 - 연구/홍보/네트워크 : 청년지원 서비스와 지원체계의 이슈를 발굴·조사분석·확산하고 네트워크 구축

자료 : 청년허브 홈페이지 <https://youthhub.kr/청년허브소개>,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sygc.kr/intro>

| 참고문헌 |

〈국문 자료〉

- 경기도일자리재단(2021), GJF 고용이슈리포트 No.2021-07
- 관계부처합동(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
- 국무조정실(2020), 지자체 청년정책 우수사례
- 국토교통부(2020). 보도자료 「대구·광주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선정 발표」(2020.12.22.)
- 김기현(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도형, 박승규(2017), 울산 청년 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수요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은경(2020), 오산시 청년정책의 추진전략 및 발전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 대학내일20대연구소(2021), 밀레니얼-Z세대 트렌드 2022, 위즈덤하우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1), 2020년 혼인&이혼 통계
- 변금선, 김기현, 하형석, 이용해(2019), 청년정책 체계성 강화 방안 연구, 국무조정실
- 변금선, 김승연, 박민진, 이해림(2021), '2025 서울시 청년정책' 비전과 전략. 서울연구원
서울시(2021), 주요업무보고(청년청)
- 송수중, 천영민, 박가열, 변정현, 이장희, 이서정, 백하나, 최지은(2021). 2020년 청년정책 연구총서
3권 청년정책 현황분석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 신광영(2009), 세대, 계급과 불평등, 경제와 사회, pp.35-60
- 안선영, 김희진, 박현준, 김태령(201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총괄보고서, 한국청
소년정책연구원
- 오오쿠사 미노루. (2020). 해외의 은둔형외톨이 지원 현황 - 일본을 중심으로. 「'은둔형외톨이'
지원 방안 세미나 - '은둔형외톨이' 국내외 지원 현황과 쟁점 진단」 (가칭)사회적외톨이지원연대
준비모임
-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20), UN YOUTH2030 전략과 한국청년
- 이철승(2019), 세대, 계급, 위계 : 386 세대의 집권과 불평등의 확대, 한국사회학, 53(1), pp.1-48
- 정성조(2019), '청년 세대' 담론의 비판적 재구성 :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pp.12-39
- 통계청(2020), 인구총조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6~2019),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해외 자료〉

- Arnett, J. J.(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Vol. 55 No. 5, pp.469-480
- Arnett, J. J.(2001), Conceptions of the transition to adulthood: Perspectives from adolescence through midlife,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Vol. 8 No.2, pp. 133-143
- Arnett, J. J.(2004), *Emerging adulthood: The winding road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Arnett, J. J.(2011), Emerging adulthood(s): The cultural psychology of a new life stage. In L. A. Jensen(Ed.), *Bridging cultural and developmental psychology: New syntheses in theory, research and poli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255-275
- ILO(2020), Recovering from the COVID-19 crisis: What policies are needed?, <https://www.ilo.org/actrav/media-center/lang-en/index.htm>
- Tanner, J. L. & Arnett, J. J.(2009), The emergence of 'emerging adulthood': The new life stage between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In A.Furlong(Ed.) *Handbook of youth and young adulthood: New perspectives and agendas*, London: Routledge, pp.38-45

〈온라인〉

- 경기청년포털 <https://youth.gg.go.kr/gg/index.do>
- 국가통계포털KOSIS <https://kosis.kr/index/index.do>
- 대전청년내일센터 <https://daejeonyouth.co.kr/>
-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https://sygc.kr>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https://youth.seoul.go.kr/youthnet/>
- 서울청년포털 <https://youth.seoul.go.kr/site/main/home>
- 수원시청년정책 <http://www.swyouthpolicy.kr/>
- 시흥시청 <https://www.siheung.go.kr/>
- 시흥시청년스태이션 블로그 <https://blog.naver.com/0siheung21>
- 오산 청년일자리카페 유잡스 <https://blog.naver.com/youthjobplace>
- 온라인청년센터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

청년포털 <https://2030.go.kr/main>

청년허브 <https://youthhub.kr/>

통계로 보는 수원 <https://www.suwon.go.kr/stat/index.do>

〈신문기사〉

결혼 후 첫째 아이 낳을 때까지 평균 2.34년 걸렸다(중앙일보, 2020.05.27.)

신입사원 평균연령 1998년 25.1세→2018년 30.9세로 증가(쿠키뉴스, 2020.4.22.)

| 부 록 |

수원시 청년정책 수요조사 설문지

수원시 청년정책 수요조사

수원시정연구원에서는 수원시 청년(만 19~39세)을 대상으로 「수원시 청년정책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 문항은 30개 내외이며, 소요시간은 약 15분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통계법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응답대상 :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수원시 소재 학교·직장인 포함)
- 문의 : 수원시정연구원 최지연 연구위원, 심지은 연구원 (031-220-8062)

[개인정보 제공/수집/활용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신청자의 개인식별정보이며, 이용 목적은 수원시 청년정책 수요조사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은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1년입니다. 본 조사결과는 통계법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설문 참여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I. 응답자 기본

Q1. 귀하의 만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 본 조사는 만 19~39세 청년만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① 만 19세 ~ ② 만 39세

Q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여성 ② 남성

Q3. 귀하는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① 예 ⇨ 3-1번 문항으로 ② 아니요 ⇨ 3-2번 문항으로

Q3-1. 귀하께서는 현재 수원시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 ① 수원시 권선구
- ② 수원시 영통구
- ③ 수원시 장안구
- ④ 수원시 팔달구

Q3-2. 귀하께서는 현재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 ① 서울특별시
- ② 경기도 타 시군구
- ③ 인천광역시
- ④ 충청도
- ⑤ 대전광역시
- ⑥ 세종특별시
- ⑦ 그 외 지역

Q4. 귀하께서는 현재 수원시 소재 학교, 직장에 다니고 계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요

Q5.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학생
- ② 사무직, 공무원
- ③ 서비스직 종사자 및 판매, 영업직 종사자
- ④ 기능직 및 생산직 근로자
- ⑤ 단순노무자
- ⑥ 자영업
- ⑦ 전문직
- ⑧ 주부
- ⑨ 농업, 어업, 임업 종사자
- ⑩ 기타

Q6.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 ② 대학교 재학(휴학)
- ③ 대학교 졸업
- ④ 대학원 재학(휴학) 또는 졸업

Q7. 귀하의 가구 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1인 가구(본인 혼자) ⇨ 8번 문항으로
- ② 2인 가구
- ③ 3인 가구
- ④ 4인 가구
- ⑤ 5인 가구 이상

Q7-1.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함께 사는 사람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조)부모님
- 배우자
- 자녀
- 없음
- 형제·자매
- 친구(연인, 선·후배, 동료)
- 기타

Q8. 귀하의 혼인 여부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미혼
- ② 기혼

Q9. 귀하께서 거주하는 주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아파트
- ② 다가구, 연립다세대 주택
- ③ 오피스텔
- ④ 기숙사
- ⑤ 고시원, 고시텔
- ⑥ 단독 주택
- ⑦ 기타

Q10. 귀하께서 거주하는 주택의 점유 형태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 만약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인 경우 부모님 집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자가
- ② 전세
- ③ 월세
- ④ 사글세, 연세, 일세
- ⑤ 무상

Q11. 귀하는 현재 일자리(직장, 사업, 아르바이트)를 가지고 계십니까?

* 일자리(직장, 사업)는 고용되어 보수(임금)을 받고 일하는 임금근로자, 개인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 1주일에 18시간 이상 가족(친척)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무급가족 종사자를 의미합니다.

- ① 예 ⇨ 11-1번 문항으로 ② 아니요 ⇨ 12번 문항으로

Q11-1. 귀하의 주된 일자리(직장, 사업)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일자리가 여러 개인 경우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일하는 일자리를 기준으로 응답하며, 근로 시간이 동일할 경우 수입이 더 많은 일자리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민간회사(사기업) 또는 개인 사업체
- ② 공무원(교사, 경찰, 직업군인 포함)
- ③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기업
- ④ 외국계기업
- ⑤ 법인단체
- ⑥ 기타

Q11-2. 귀하의 주된 일자리(직장, 사업)에서 종사상지위가 어떻게 됩니까?

- ① 정규직 임금노동자
- ② 비정규직 임금노동자(계약직, 파견직, 아르바이트 등)
- ③ 자영업자(유급종업원 없이 사업을 함, 특수형태고용 제외)
- ④ 고용주(유급종업원을 두고 사업을 함, 특수형태고용 제외)
-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합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 ⑥ 무급가족종사자(1주일에 18시간 가족(친척)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도움)

Q12. 귀하의 현재 월 평균 수입은 얼마입니까?

* 소득은 일이나 경제활동의 대가로 얻은 돈을 의미합니다.

- ① 100만원 미만
- ②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③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④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⑤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⑥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 ⑦ 700만원 이상
- ⑧ 수입 없음

Q13. 귀하께서는 현재 기본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본인 급여(월급, 아르바이트비 등) 배우자 급여(월급, 아르바이트비 등)
 부모님 지원(소득, 자산 등) 저축 등의 기존의 재산 처분
 이전 직장에서의 퇴직금 실업급여
 대출 정부지원금(청년수당 등)
 기타

II. 코로나로 인한 변화

Q14.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다음의 생활들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구분	매우 감소	약간 감소	변화 없음	약간 증가	매우 증가
1) 각종 모임 및 행사 참여	①	②	③	④	⑤
2) 재택근무 및 온라인 강의 수강	①	②	③	④	⑤
3) 취업·창업·이직 기회	①	②	③	④	⑤
4) 학업·직업교육 기회	①	②	③	④	⑤
5) 신체·정신적 건강	①	②	③	④	⑤
6) 가사 노동 및 가족 돌봄	①	②	③	④	⑤
7) 개인 소득	①	②	③	④	⑤

Q15. 귀하는 코로나19 이후 앞으로의 삶에 대하여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 해당되는 항목이 없는 경우 '변화없음'을 선택해 주십시오.

구분	매우 악화	약간 악화	변화 없음	약간 개선	매우 개선
1) 전반적인 생활	①	②	③	④	⑤
2) 가족관계	①	②	③	④	⑤
3) 친구관계	①	②	③	④	⑤
4) 학교관계	①	②	③	④	⑤
5) 사회에 대한 신뢰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진로 및 일자리 전망	①	②	③	④	⑤

III.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

Q16. 귀하께서는 현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어려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심각하지않음 ~ ⑤ 매우 심각함

Q17. 귀하께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없음 ~ ⑤ 매우 필요함

Q18. 귀하께서는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구직자 직업능력개발 훈련프로그램 지원(국민내일배움카드, 취업성공패키지 등)
- ② 직업계고 및 고졸 청년 특화 직업교육훈련
- ③ 대학생 학자금 지원(국가장학금 등)
- ④ 청년 맞춤형 시민교양강좌 제공(재테크·노동인권·인문사회 강의 등)
- ⑤ 온라인 직업교육·교양강좌 홈페이지 운영(대학공개강의KOCW 등)

Q19. 귀하께서는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일자리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구직자-기업 취업연계프로그램 제공(직무캠프, 인턴십 프로그램 등)
- ② 취업 준비 비용 지원(구직활동수당, 자격시험응시료, 면접비 등)
- ③ 고용환경 개선(근무환경 개선, 채용비리 근절 등)
- ④ 직업훈련 지원(직무 교육, 자격증 교육 등)
- ⑤ 창업환경 조성 및 지원(창업 자본조달, 사무실 임대 지원 등)

Q20. 귀하께서는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위한 일반주택 공급
- ② 기숙사, 쉼어하우스 등의 공유주택 공급
- ③ 주택 비용 지원(월세 지원, 전세금/보증금 대출 및 이자 지원)
- ④ 원룸, 고시원 등의 안전관리 및 치안 강화
- ⑤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Q21. 귀하께서는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생활·복지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생활비 지원
- ② 출산 및 육아 지원
- ③ 금융자산 형성 지원(청년우대형청약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 ④ 건강지원(심리상담, 신체단련 프로그램 등)
- ⑤ 지역사회 치안 강화(가정폭력·성폭력 등 범죄에 대한 대응)
- ⑥ 교통지원(공공자전거, 교통비 지원 등)
- ⑦ 여가활동지원(공연·전시관람료 지원 등)

Q22. 귀하께서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 | |
|--------------------------------------|--|
|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홈페이지 | <input type="checkbox"/> SNS(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
| <input type="checkbox"/> 현수막 | <input type="checkbox"/> 언론매체 |
| <input type="checkbox"/> 가족 및 친구(지인) | <input type="checkbox"/> 학교 |
| <input type="checkbox"/> 박람회 | <input type="checkbox"/> 특별히 정보를 찾아본 적 없음 |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Q23. 정부는 2020년 2월 「청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적인 청년정책의 비전, 목표를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과 관련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①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다.
- ②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청년정책이 다양화된 것을 느끼고 있다.
- ③ 청년과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

Q24. 다음은 수원시 청년정책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시 : 면접정장 무료대여,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일자리 박람회, 청년 월세지원, 청년공간(청년바람지대, 청누리) 운영 등

구분	전혀 아님	←	보통	→	매우 그려함
1) 수원시 청년정책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수원시 청년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3) 수원시 청년정책은 꼭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수원시 청년정책에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Q25. 귀하께서는 수원시에서 청년들을 위해 운영하는 공간(청년바람지대, 청누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 ① 예
- ② 아니요

Q26. 다음은 수원시에서 시행중인 주요 청년정책 사업입니다. 각 정책사업이 청년에게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구분	전혀필요없음 ← 보통 → 매우필요	
일 자 리	면접정장 무료대여(청나라)	① ② ③ ④ ⑤
	취업준비청년 교통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수원형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장려금 지급	① ② ③ ④ ⑤
	대학생 인턴사업	① ② ③ ④ ⑤

	해외 취업 지원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열정페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교육, 상담 등	① ② ③ ④ ⑤
주거	수원청년 마을사랑방(창업공간) 운영	① ② ③ ④ ⑤
	부모와 거주를 달리하는 청년 주거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청년 월세 지원	① ② ③ ④ ⑤
복지 · 문화	자산형성 지원(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① ② ③ ④ ⑤
	정신 건강 지원(마인드케어, 고민상담소)	① ② ③ ④ ⑤
	보호종료청년 지원(자립수당, 주거지원)	① ② ③ ④ ⑤
	청년기본소득 지급	① ② ③ ④ ⑤
	1인가구 물품 대여(슬기로운 청년생활)	① ② ③ ④ ⑤
	이주배경 청년 직업, 기술교육	① ② ③ ④ ⑤
교육	대학생 장학금 지원	① ② ③ ④ ⑤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① ② ③ ④ ⑤
	NCS 인적성 강의 프로그램 운영	① ② ③ ④ ⑤
	청년, 기업, 대학간 연계 취업멘토링	① ② ③ ④ ⑤
참여 · 권리	청년정책 참여 기회 제공(정책조정위, 협의체)	① ② ③ ④ ⑤
	청년공간 운영(청년바람지대, 청누리)	① ② ③ ④ ⑤
	청년 소모임 및 단체 활동 지원	① ② ③ ④ ⑤

Q27. 다음은 수원시에서 시행중인 주요 청년정책 사업입니다. 각 정책사업에 참여한 경우 얼마나 만족하셨나요? 참여 경험이 없으신 경우 '해당없음'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매우 불만족 ← 보통 → 매우만족	해당 없음
일 자 리	면접정장 무료대여(청나라)	① ② ③ ④ ⑤	⑥
	취업준비청년 교통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수원형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장려금 지급	① ② ③ ④ ⑤	⑥
	대학생 인턴사업	① ② ③ ④ ⑤	⑥
	해외 취업 지원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⑥

	열정페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교육, 상담 등	① ② ③ ④ ⑤	⑥
주거	수원청년 마을사랑방(창업공간)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부모와 거주를 달리하는 청년 주거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청년 월세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복지 · 문화	자산형성 지원(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① ② ③ ④ ⑤	⑥
	정신 건강 지원(마인드케어, 고민상담소)	① ② ③ ④ ⑤	⑥
	보호종료청년 지원(자립수당, 주거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청년기본소득 지급	① ② ③ ④ ⑤	⑥
	1인가구 물품 대여(슬기로운 청년생활)	① ② ③ ④ ⑤	⑥
	이주배경 청년 직업, 기술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교육	대학생 장학금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NCS 인적성 강의 프로그램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청년, 기업, 대학간 연계 취업멘토링	① ② ③ ④ ⑤	⑥
참여 · 권리	청년정책 참여 기회 제공(정책조정위, 협의체)	① ② ③ ④ ⑤	⑥
	청년공간 운영(청년바람지대, 청누리)	① ② ③ ④ ⑤	⑥
	청년 소모임 및 단체 활동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Q28. 귀하께서는 앞으로 수원시 청년정책이 가장 주력할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대로 2가지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① 교육정책
- ② 일자리정책
- ③ 주거정책
- ④ 생활·복지정책

Q29. 수원시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견이나 제안할 내용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Q30. 설문조사 답례품지급을 위하여 귀하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Q31. 추후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수원시 청년정책 방향설정을 위한 개인·그룹별 인터뷰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① 예 (응답시 입력하신 핸드폰 번호로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 ② 아니요

| 저자 약력 |

최지연

사회학 박사 수료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E-mail : choi.jiyoun@suwon.re.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안」 (2021, 수원시정연구원)

「고색뉴지엄 활성화 방안 연구」 (2021, 수원시정연구원)

심지은

사회학 석사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위촉연구원

E-mail : jieun@suwon.re.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안」 (2021, 수원시정연구원)

「고색뉴지엄 활성화 방안 연구」 (2021, 수원시정연구원)

